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8-8823 E-mail : gods@ktra.or.kr
http://www.kt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49 / September / 2006

이것은

칼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와 건축법

회원작품

보비스 기념병원

수원지점 안산지점

김포 농업기술센터 청사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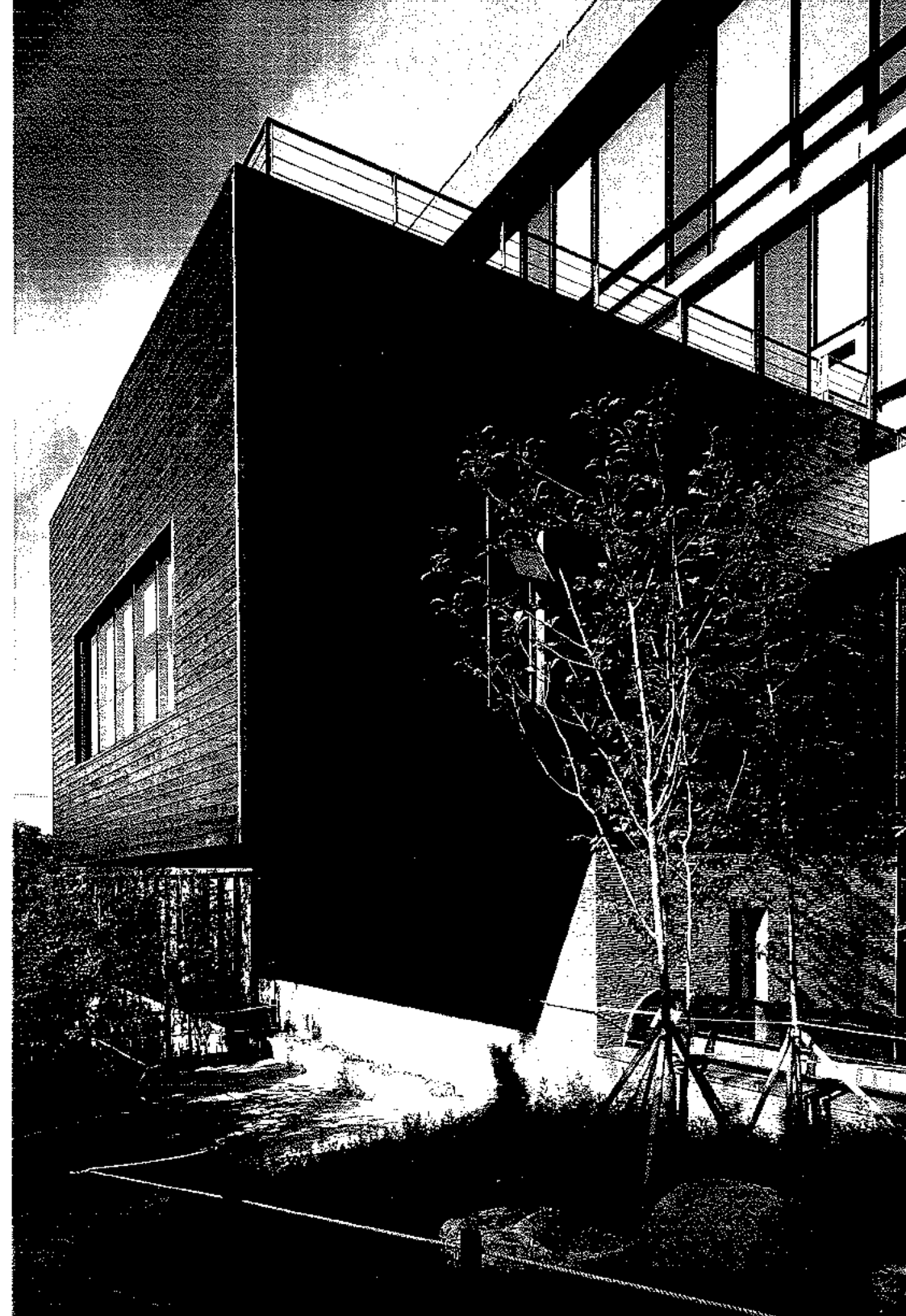
부산지방보훈청사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08

자재정보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기대고 싶은 벽

보이지 않는 단열재에도 자연을 담았습니다!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는
자연 그대로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신소재 단열재

에너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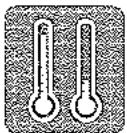
KUMHO ENERPOR



'가' 등급 단열재 획득!

에너포르(ENERPOR)는 동일한 비중의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을
10~20% 향상시킨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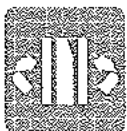
특허출원(10-2004-0078931호)



고열효율 단열재로 연료 절감
유기질로 합성된 독립기포 구조층으로
인한 고열효율로 연료가 절감됩니다.



건강 우선시하는 웰빙 단열재
독립기포구조로 수분, 습기, 세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차별화된 단열재입니다.



안목치수 적용 용이로 높은 공간 활용도
저밀도에서 열관류율 적용시 단열재의 허용 두께를
15~20%까지 절감해 내·외벽 두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원료비 절감으로 합리적인 가격
발포 배수를 높여 비중을 낮추고 우수한 열전도율을
유지함으로써 원료비가 절감됩니다.

세·계·적·적·조·독·자·모·텔·로·대·한·민·국·올·대·표·마·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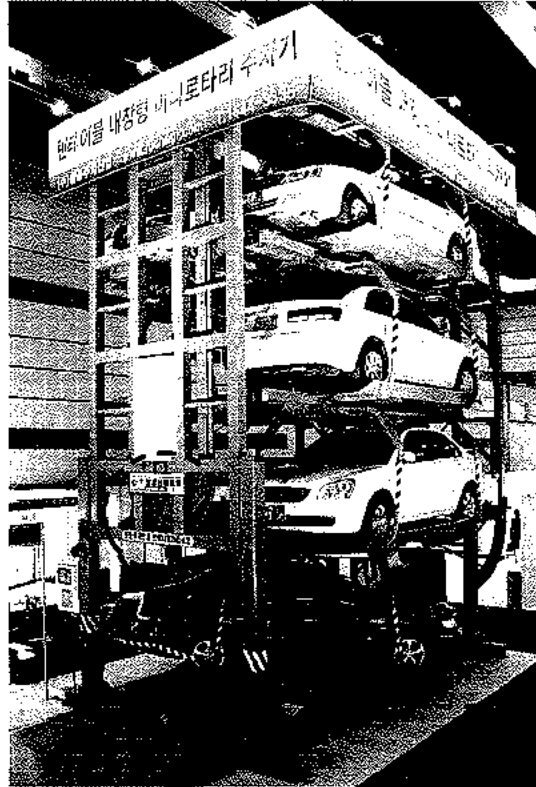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329557호



6年이 걸렸습니다.
턴테이블 내장형
개발완료!
시판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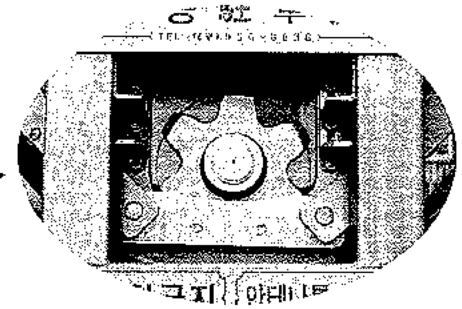
"2006 한국전국산업대전 참가전시관경"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 최초의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 메커니즘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따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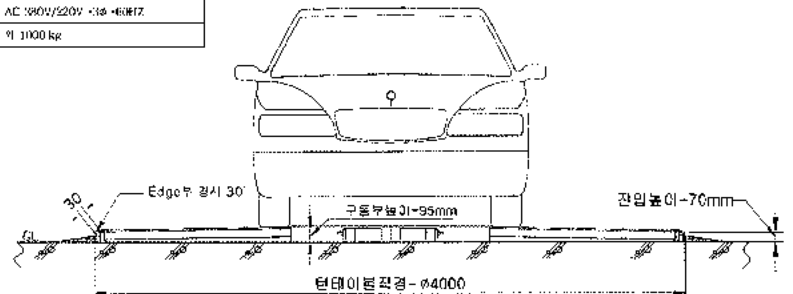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9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자매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칭	회전타이머(선택)
수용차량	최소한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방식	바퀴 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x 4P = 3기
회전속도	약 1 RPM
조작방식	PUSH BUTTON
전원전압	AC 200V/50Hz 3상 4선 + 접지
지상면적	약 1000 sq

실용신안등록 제20-0233726호



Since 1989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매인 : 주차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남, 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A/S : 02)323-4448

■ 부산사무소 : 051)303-2296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대리점모집

합성목재 CorrectDeck

KOREA DISTRIBU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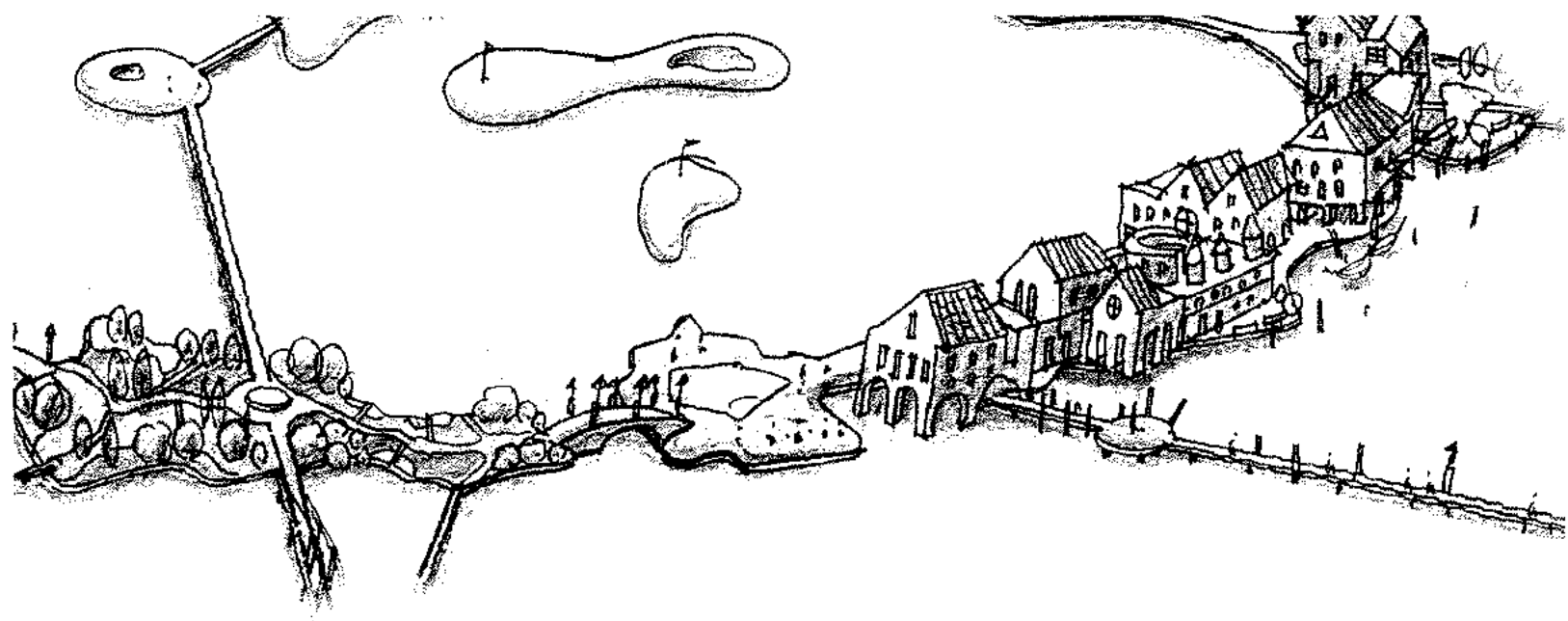
- Green
- Cedar
- Acacia
- Mahogany

천연목문(단종나무) 60% 함유
방부 / 방수 / 방염 / 도장 불필요
 방부록 대체 친환경 자재
유지 보수 불필요
 표면 미세철방지 처리
 콘크리트보다 뛰어난 표면강도
 간편한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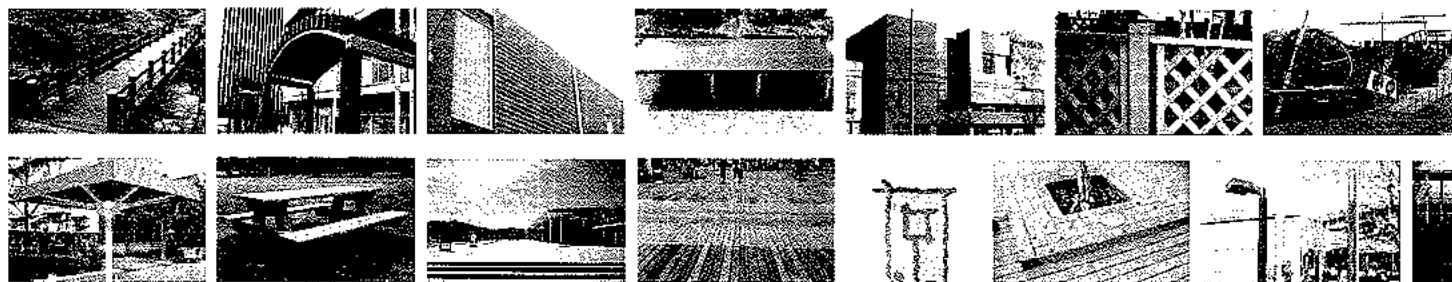
(주)아론물산
 ARON COMMERCIAL
www.correctdeck.co.kr

본사/블류센터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10-11
 Tel : 031)767-8695~7 Fax : 031)767-8698
 전시장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92-6
 Tel : 031)768-7650 Fax : 031)766-7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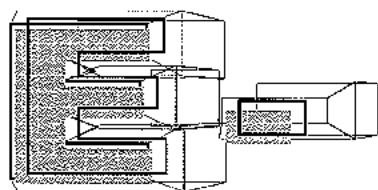


【 이우드 파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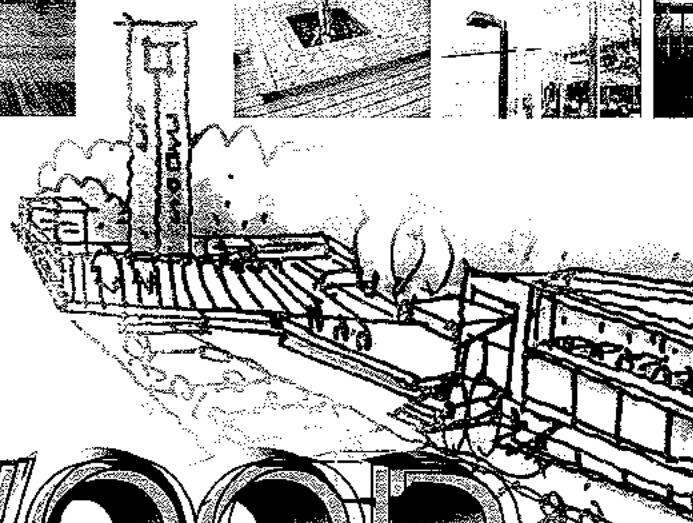
천연목 느낌이 어느 곳에서도 돋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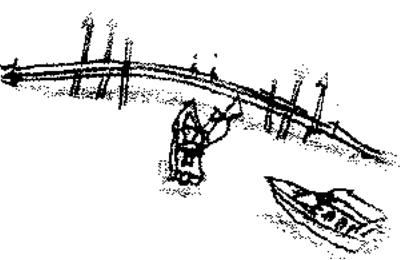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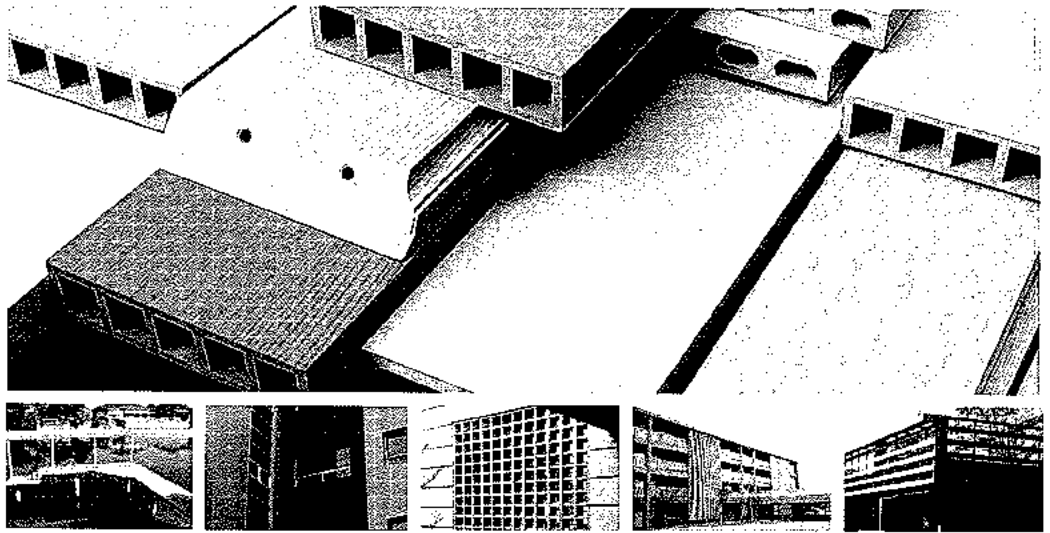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만드는 첨단 소재과학



WOOD





21세기는 나무를 공장에서 만듭니다.

E-Wood™는 플라스틱과 나무 섬유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얇은 플라스틱 막이 형성되어 물과 벌레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나무섬유 부분이 천연목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E-Wood™는 나무와 똑 같은 무늬, 촉감 그리고 나무의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한 유해균 서식이 불가능하고, 뛰어난 방수 효과로 제품이 썩지 않으며 부서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E-WOOD™

서울시 논현2동 221-17 데코레빌딩 9층
Tel : 02-456-3252, Fax : 02-456-3251
<http://www.e-wood.co.kr>

▶ 수도권 총판

(주)청산조경 / (주)에코그린
135-85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6번지 정석 B/D 2층
Tel. 577-8895(대) Fax. 578-2876

▶ 호남 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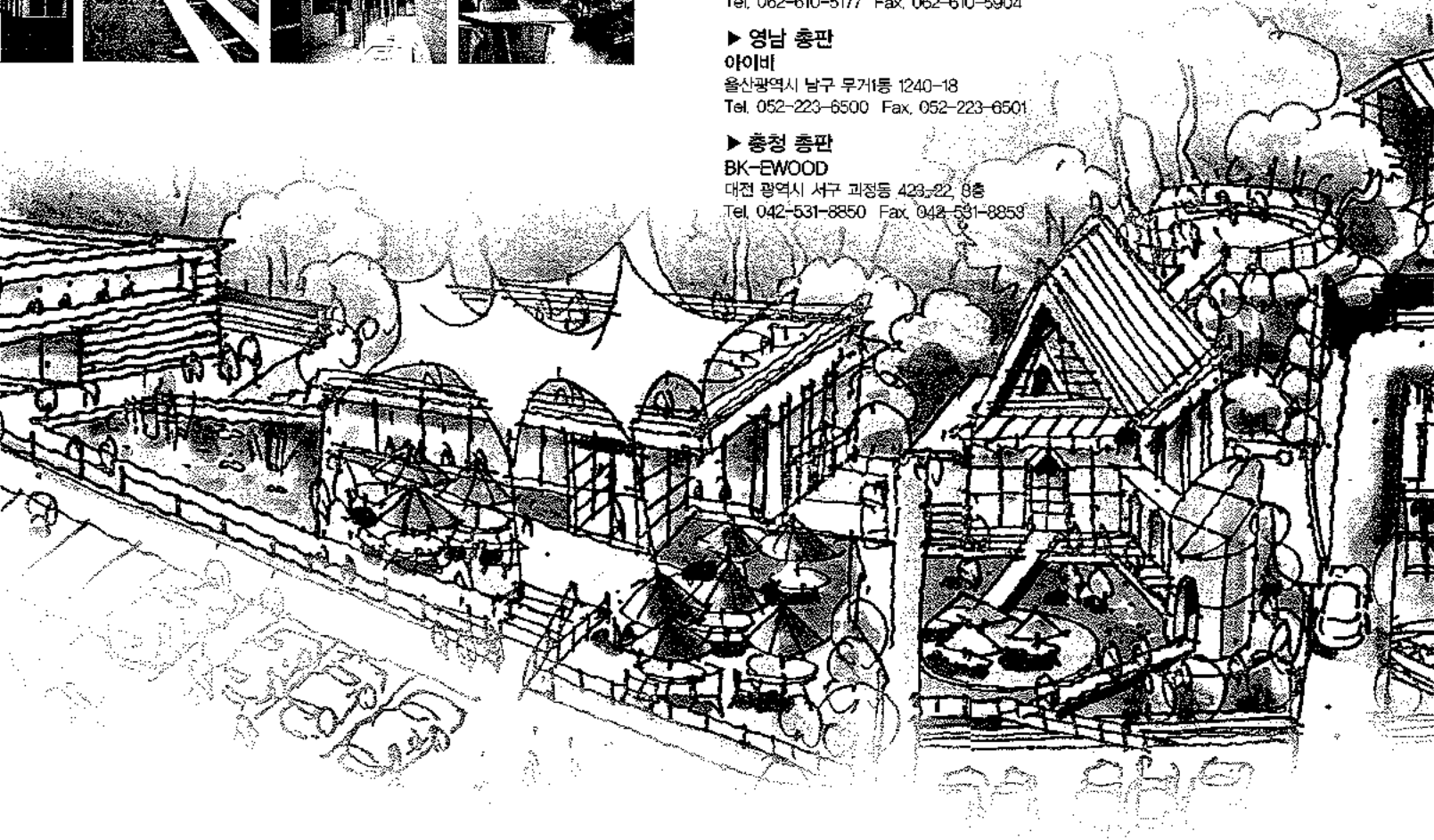
(주)에이치엔건설
경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투원스타운 105동 201호
Tel. 062-610-5177 Fax. 062-610-5904

▶ 영남 총판

아이비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240-18
Tel. 052-223-6500 Fax. 052-223-6501

▶ 충청 총판

BK-EWOOD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22, 8층
Tel. 042-531-8850 Fax. 042-531-8853



국내최초 난연 3급 - 프로폴 샌드위치판넬 성능인증 획득!!

스티로폼이 불에 잘 안타요!

PROPOR SANDWICH PANEL

KSF-4724
KSF-4731
KSF-2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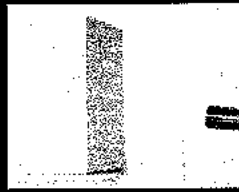
난연 3급

프로폴 샌드위치판넬 전문 생산업체

"프로폴 패널은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화재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대표적 난연패널이며, 기존의 EPS패널의 장점을 모두 유지하여 어떠한 건축물에도 폭넓게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난연패널입니다"

단열재 화염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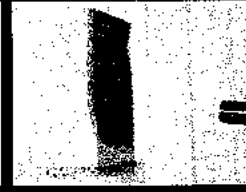
단열재 화염 테스트 결과
난연성에서 획기적인 제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테스트 전



테스트 30초



테스트 60초

프로폴 판넬의 특징

- 우수한 난연성
- 우수한 경제성
- 보온 유지 기능
- 인체 안전성
- 우수한 내후성
- 내구성 및 취급성
- 뛰어난 보온성

취급품목

-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F 4724)
-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F 4731)
- 난연 3급 (KSF 2271)

● 미국특허출원 : AN20050266244
● 파국 UL94-VO등급 획득 ● 중기청 제 22-008호
● 국내발명특허 : 제 0479218호, 제 10-05894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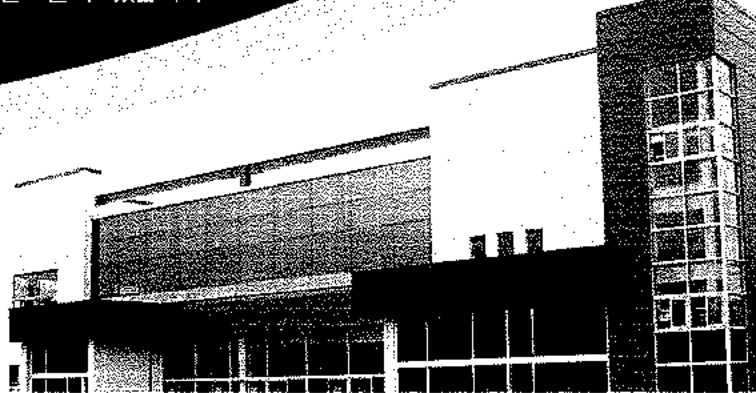
국내최초
성능인증
획득



난연 3급 프로폴 샌드위치판넬 KSF인증 벽판 KSF인증 지붕 목하중 성능인증서

관급자재 구매시 성능보험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릉 축협 하나로마트 시공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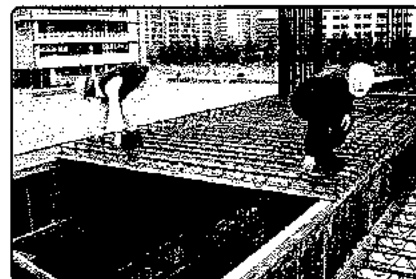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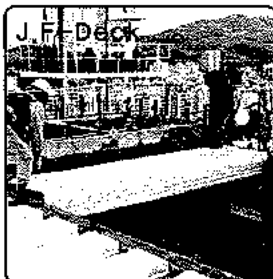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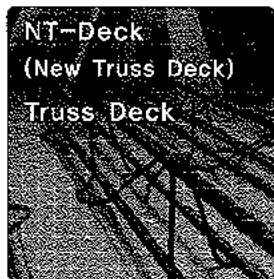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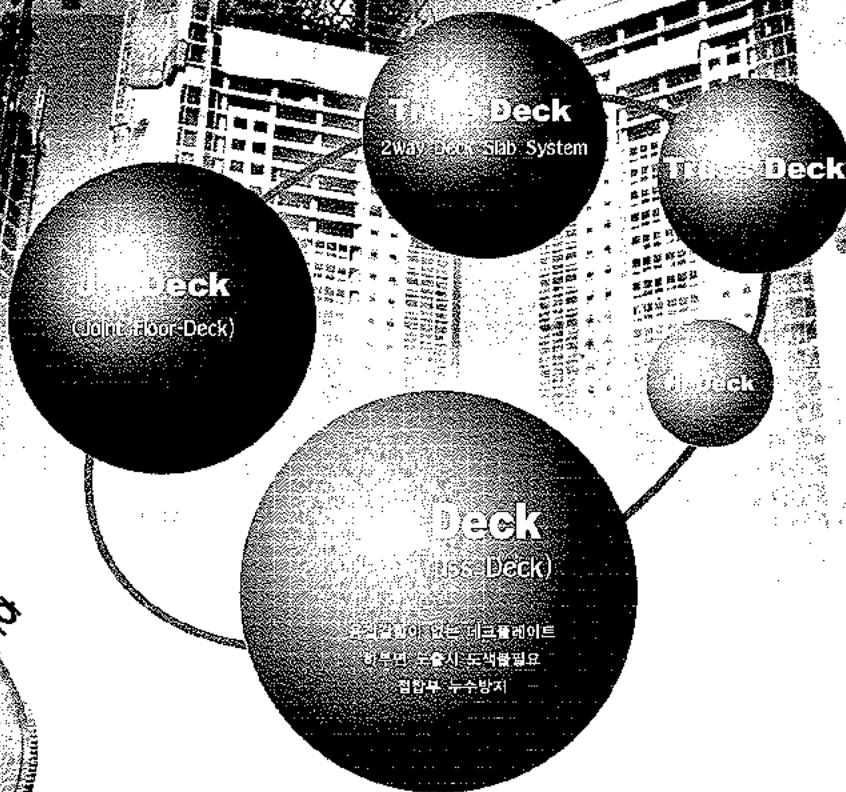


상담문의 033)261-8600

■ 인터넷 주소창에서도 다음, 야후, 네이버에서도 영춘판넬 을 쳐주세요

조립식 판넬 생산
영춘판넬주식회사
주최서 퇴계동 B58-3번지(퇴계동공단지) FAX : 033)262-6196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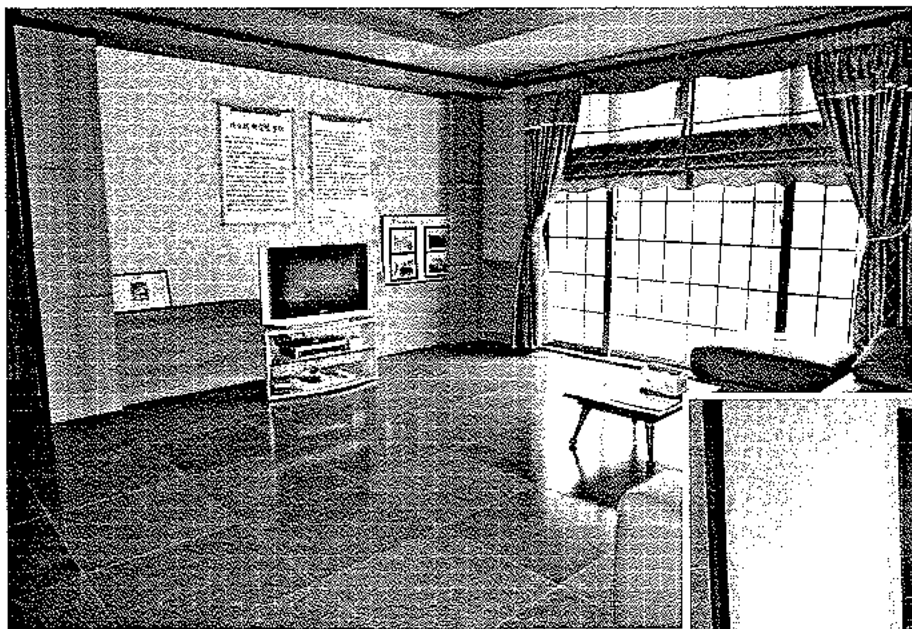
<http://www.jeil21c.co.kr>

본사 _____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철강공단 2단지)
TEL : (054)278-2841(대) / FAX : (054)278-2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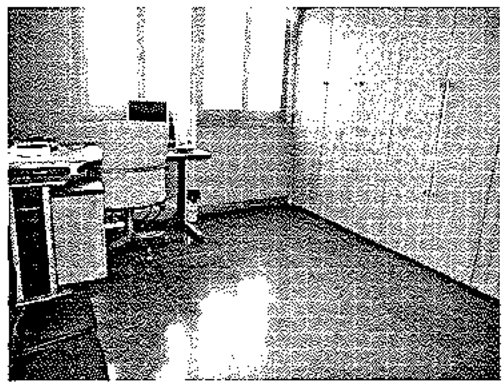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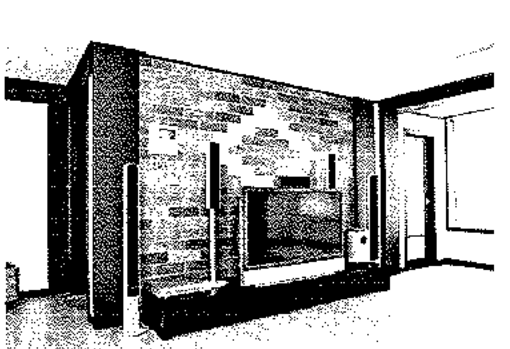
서울 사무소 _____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6 남도빌딩 5F
TEL : (02)555-2055(대) / FAX : (02)554-1476

황토대리석 - 신비한 생명력의 폭돌

- 원적외선방사 428W
- 흡수기능 98.0%
- 기능
- 기능
- 이물질차단 효과적
- 냉, 난방 에너지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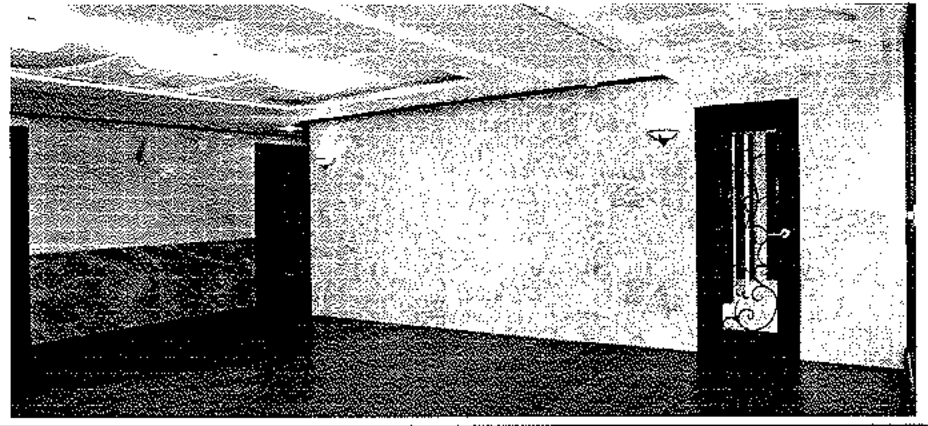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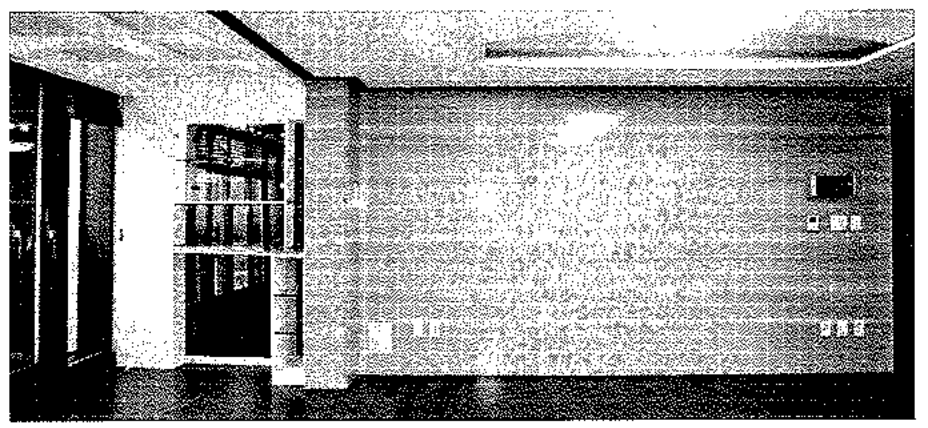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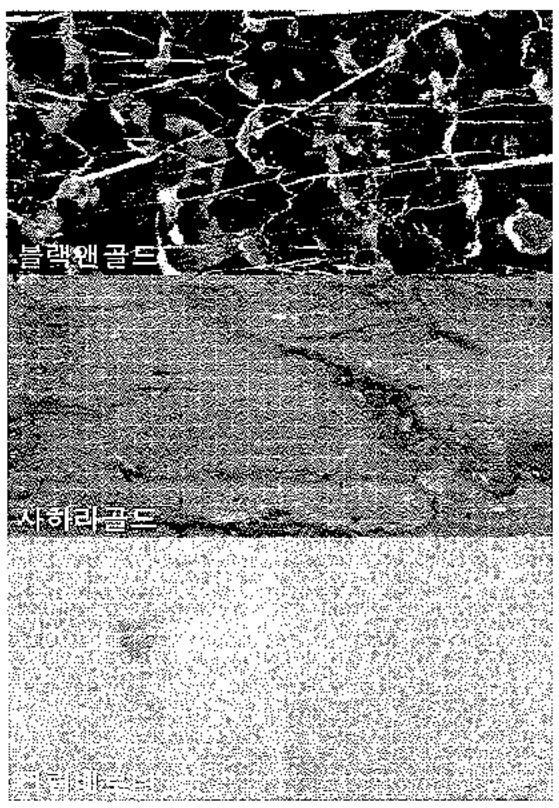
거실 바닥이나 벽면 등을 황토 대리석으로 마감하면, 실내공기 오염을 줄여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성마감제입니다



안방이나 공부방, 주방 등을 황토 대리석으로 마감하면, 냄새 억제, 집중력강화, 숙면 효과 등으로 건강관리 도움과 화상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용 대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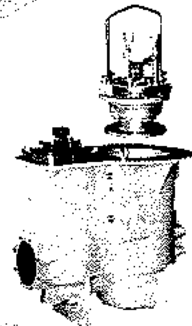


미진교역
MIJIN TRADING CO.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206. <http://www.mijin.net>
TEL : 031-763-6688, FAX : 031-769-8690

당사는 균일한 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어떤 정압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몰형정압기는 공간이용의 극대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정압기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가스의 공급압력
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감압하여 가스사용처에 알맞은 압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매몰형정압기는 일반정압기와는 달리 설비의 대부분을 매
몰시키는 정압기로 최근 현대적 빌딩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건
축시 설치공간 부족 및 주변환경과의 시각적인 부조화 문제로 인해 정
압기 위치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몰형정압기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정압기



선택은



매몰형정압기



설치
현황

서울 염창 롯데아파트, 서울 동대문운동장, 일산 백석동, 천안 온천 현대홈타운아파트, 천안 벽산 블루밍아파트, 아산 배방 금호아파트 외 42곳 설치운영 중



(주)JB엔텍 본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8-6 중부빌딩 8층
JB엔텍 기술연구소: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대평리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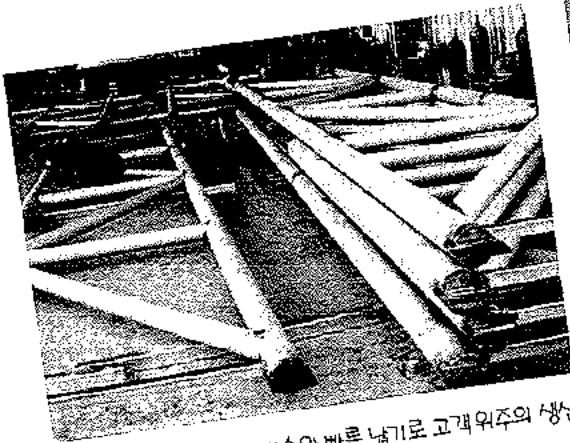
Tel: 02)2191-7600 Fax: 02)3453-5877
Tel: 041)568-0551~2 Fax: 041)558-0553

21세기를 선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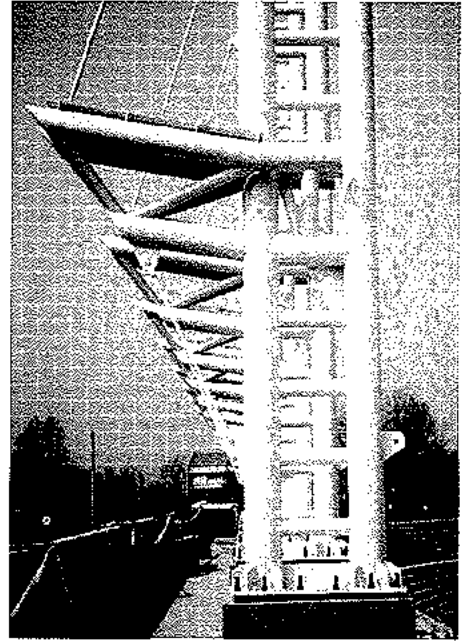
파이프 레이저가공 전문업체

레이저 가공방식은 재래형 가공방식보다 생산성이 높고, 생산비용이 저렴합니다.
고객 위주의 생산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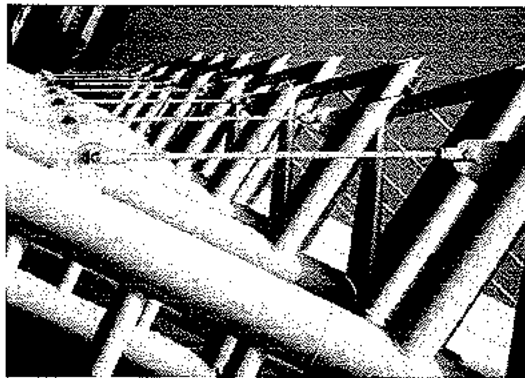
삼신레이저는 국내 처음으로 최첨단 레이저 가공기를 도입하여 탁월한 레이저 가공 기술의 Know-How로 업계 최고의 가공 기술로 더욱 향상된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재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파이프 레이저 가공 기술과 여러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생산에 대한 편리성과 원가 절감, 빠른 납기 등이 가능하므로 많은 상담 부탁 드리며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하는 삼신이 되겠습니다.



■ 신속 정확한 제품 서비스와 빠른 납기로 고객위주의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파이프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구조물도 쉽게 가공할 수 있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능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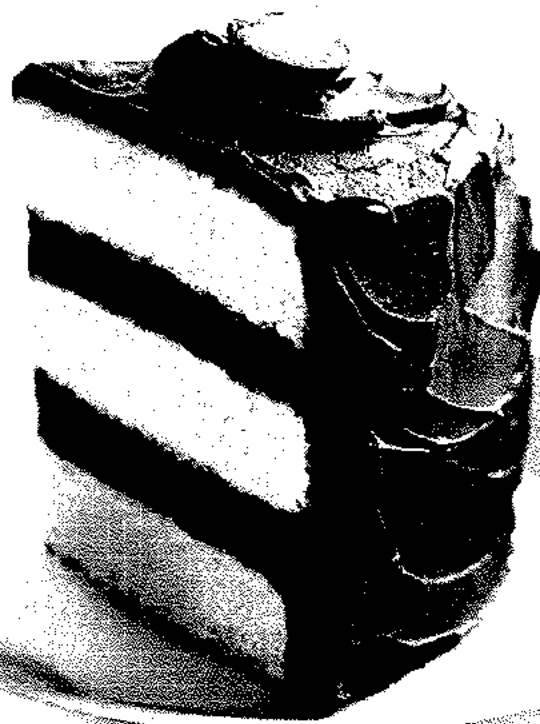
■ 파이프 안에 판재 버팀물(지지물)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파이프 안에 파이프를 삽입 연결할 수 있어 내구성을 높여 줍니다.



■ 용접위치를 표시해 줌으로써 준비과정을 간단히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용접 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달콤한 차이! 한 층의 차이가 보입니다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층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층고를 줄여 10층 높이에 11층을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로어 솔루션인 슬림
플로어 공법. 현대제철이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국내 최초로 개발
된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짝~ 줄이고, 임대면적과 수익
률은 확~ 늘려 드립니다.



현대제철 슬림빔 - 이것이 다르다

More Floors

- 층당 25~40cm 층고 절감으로 10개층에 1개층 추가 가능
- 분양면적, 임대면적 증가로 사업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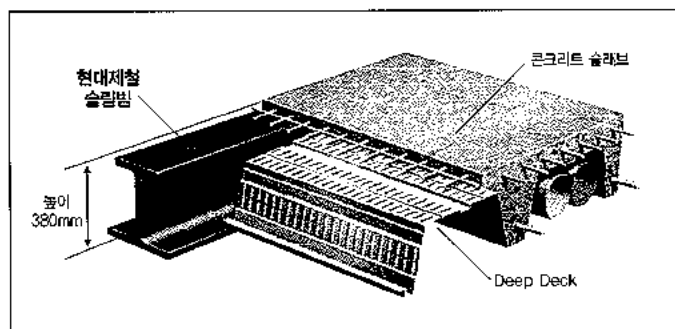
Cost Down

- 작은 보 생략으로 철골량 30% 감소
- 층고 절감으로 내외장재 비용 5~10% 절감
- 철골보의 하부플랜지만 내화피복 필요, 70% 비용절감

Fast Construction

- 철골량 감소 및 양중 수 감소로 제작 설치 기간 30% 단축
- 지하층에 적용시 토공사량 감소

슬림플로어 공법



슬림플로어 공법은 층이 깊은 데크플레이트를 슬림빔의 하부플랜지 위에 위치시켜 작은 철골보
를 생략함과 동시에 층고를 줄이는 층고절감공법입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하부플랜지가 상부
플랜지보다 긴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국내 최초로 현대제철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국내 적용 사례 : 청량리 삼성화재 사옥,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지하층)

Contents

26



31



37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6 09 449호

칼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양순	16
서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와 건축법	정 권	18
건축민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보바스기념병원	손준익 · 김성한·김준경	22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동주 · 전영성	30
	김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재진	34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노윤경	42
	하악미 한인기독교회	최동규	48
	부산지방보훈청사	정철수	52
현상설계	소안 현충회기념관		56
	안산시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62
기획연재	세계로 열린 청·올림픽과 도시 · 건축의 변화	안창모	71
연구	아파트 주동입면 디자인 요소의	전한중	82
	디자인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건축마당	협화소식		88
	건축계소식		95
	건축인터넷정보		98
	통계		104
	해외잡지동향		106
	자재정보		111

발행인 이원호
편집위원 장양순, 양태윤, 유원재, 박호건, 이관진, 이종훈, 신호근
취재·편집 최탁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891-6711~4
팩시밀리 (02)666-6823
인터넷 <http://www.kia.or.kr>
인쇄장 정문사문쇄주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44



49



54

Column

I have a dream	Chang Yang-soon	16
----------------	-----------------	----

Focus

Society and Architectural Law that cares for Human	Jeong Kwon	18
--	------------	----

Cartoon

	Yoo Won-jai	21
--	-------------	----

Works

Bobath Memorial Hospital	Seo Jun-ick, Kim Sung-han, Kim Jun-kyung	22
Suwon District Public Procurator Office Building, Ansan Branch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30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Lee Jae-jin	34
Dongdaemun Library	Rho Yoon-kyung	42
Korean Christian Church	Choi Dong-kyu	48
Busan Regional Office Patriots & Veterans Affairs	Jeong Cheol-soo	52

Competition

Hyunjunghwa Memorial Hall		56
Yangsan City National Sports Center & Municipal Library		62

Serial

Opening to the World-The Olympic Game and Transformation of the City	Ann Chang-mo	71
--	--------------	----

Study

A Study on the Design Priority Analysis of Design Factors of Apartment Facade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Apartment Design	Jun Han-jong	82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88
Archi-Net	95
Archi.w.w	98
Statistics	104
Overseas Journal	106
Product Information	111

Korean Architects

Vol. 449

September 2006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Yang Hae-yu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on, Shin Ho-gua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3-8823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하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위의 글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의 평등을 주장한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대통령 동상 앞에 모인 25만 군중을 놓고 준비된 연설문 없이 평소 바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꿈에 대해 설파한 유명한 연설이다.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연설문과 비견되는 이 명 연설을 한 킹 목사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사후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후 개인의 생일이 국경공휴일로 지정된 영광을 안기도 하였으며, 사랑의 사표로 전 인류에 추앙받고 있으나 한창나이에, 자신의 꿈이 이뤄지기 전, 흉탄에 쓰러진 비운의 인물이기도하다.

사람은 누구나 크면 작면, 이기적이던 이타적이던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요 따라서 목숨은 있으되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꿈은 평생을 아우르는 원대한 꿈도 있으며, 일정기간 특정한 일에 대한 목표 성취의 꿈도 있다.

필자는 본 협회의 편찬담당 이사를 맡아 「건축사」지 편찬을 관장하면서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사의 역할은 건축사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및 검사확인에 관한 업무 등이 있으나 역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건축설계에 관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꿈은 「건축사」지가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자료들을 공급하고, 완공된 건축 작품을 서로 나눠보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있었다.

물론, 그간 이러한 기능을 「건축사」지는 비교적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상업지들이 아주 유명한 또는 유명작가들의 작품만을 다룰 때, 「건축사」지는 회원의 작품이라면 다소 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것이나 제출한 것은 게재하였다. 이는 건축이 시대의 거울인 만큼 비록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의 기본이 될만한 것이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일, 대통령이 베푸는 만찬에 회장단이 참석하여
 창작에 걸림들이 되는 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기를
 건축청이 신설되고, 2중 처벌이 없어지며, 종전과 같은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성숙한 건축문화의 꽃이 피기를
 건축사의 업적이 확대되어 뛰어난 후진들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큰 사무소나 작은 사무소가 제각기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만한 논문들을 게재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바른 개업건축사를 위하여 해의 잡지나 인터넷 건축소식을 정리하여 보내는 일도 꾸준히 시행하였고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대소 건축계 활동도 항상 정리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항상 필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대부분 필자가 쓰는 권두칼럼의 내용이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의 권두칼럼의 제호를 보자. 설계검입과 관련한 글이, 이해찬 총리께 드리는 글을 비롯하여 5편, 인증원, 등록원 관련 및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이 각 1편, 건축사법 관련 1건 등 무려 8편이, 건축사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필자는 이러한 글들이 「건축사지」에서 사라지기를 꿈 꿔 왔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따르는 고뇌, 완성하였을 때의 환희, 건축인들의 사색의 공간을 담아내는 그런 글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여, 부당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소리를 내야 했으며, 본지가 유일한 매체이기에 메아리가 없어도 목이 메도록 아우성을 쳐야 했다.

이제 금번호부터 그런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 나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건축문화신문」의 창간호를 내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간은 유일한 매체가 「건축사」지 밖에 없었으나 이제 격주간이긴 하지만 어엿한 신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고한 「건축사」지는 이제 본연의 일에만 더욱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꿈은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다. 단지 무대를 옮겼을 뿐이다. 그렇지만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일, 대통령이 베푸는 만찬에 회장단이 참석하여 창작에 걸림들이 되는 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기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청이 신설되고, 2중 처벌이 없어지며, 종전과 같은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성숙한 건축문화의 꽃이 피기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적이 확대되어 뛰어난 후진들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큰 사무소나 작은 사무소가 제각기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물론 「건축문화신문」에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사」지 권두 칼럼에는 창작의 기쁨이 샘솟는 글들이 오르게 하소서. 창작과정의 고뇌를 공유할 수 있는 글이 쓰여 지게 하소서. 사색의 한 자락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소서. 건축주, 시공자들과 함께 두둥실 솟아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쌍장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와 건축법

Society and Architectural Law that cares for Human

요즘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뭉땅 아픈 이야기뿐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들판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들, 치솟는 물가, 바다 이야기 등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실천은 참으로 다양하다. 수술환자에게 피한방울을 나눠 건강을 찾게 할 수도 있고,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나눌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진 지식을,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을 깨뜨려 함께 나누는 어린이도 있다. 기업과 연예인 중에는 자기가 가진 1%의 재산과 끼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건축사들도 자신의 달란트를 통하여 아름답고 쓰기편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계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 건강을 잃고서 장애인급으로 한없는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남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남은 생명, 남은 건강...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나 이 깨우침은 나를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게 하였고, 86년 12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활을 위해 무지개선교회를 설립하였다.

공동화장실, 공동수도, 편의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12평의 빈약한 무허가 건물에서 시작한 첫걸음은 열악한 시설로 인해,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몸을 가누지 못해 흔들거리는 캐러식 화장실에 빠지는 일이 허다했다.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 장애인사역 20년을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좋은 일에 함께해 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님비현상으로 우리 주위 많은 장애인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지개재활원의 경우 보증금의 인상액을 채울 수 없어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 나가는가하면, 근린상가건물을 임시거처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공사 진행도 못하고, 좁은 교육공간 안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생활하고 있다.

작년 초, 정부의 복권기금 등의 보조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이들을 위해 용인의 대지를 구입하였다. 1년 간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 건축기금이 약간 모아졌기에 건축허가관계를 문의하자, 당해공무원은 장애인시설은 안된다고 하였다. 님비현상을 피해 내대지들만 있는 곳을 구입하였고, 땅을 매입할 때도 구입사유를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분명히 했는에도, 땅주인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거절하는 것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라 분명한 사유를 기재한 것이 서류로 남아있기에 항의를 거듭하여 용도를 인정받았으나 앞으로 허가와 준공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

성남에 세운 예가원도 이웃의 눈길을 피하려고,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을 택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던가.

장애인들이 산속이나 변두리로 쫓겨 가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의 현주소이다.

이것은 내 집 근처로 오면 교육이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오해와 장애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멀리 있을 때는 도와야 하고 내 집 옆으로 오면 쌍수 들고 반대하는 사회,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은 설자리가 없고, 혼자 움직일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공공시설들은 정상인 위주로 건축이 되어있다.

지금은 그나마 건축법 등이 바뀌어, 새로 건축하는 건물은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서울의 거리는 젊은이들의 거리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는 쓰레기통에 들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거리는 젊은이들의 거리가 아닌 노약자의 거리요, 장애인의 거리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거리낌 없이 거닐고, 활동한다.

선진국이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며,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우선하는 사회이다.

필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15일 동안 우리 예가원의 정신지체아로 구성된 레인보우 두들소리 팀을 이끌고 미국 LA와 시카고에 초청을 받아 난타공연을 다녀왔다.

그곳의 장애인 단체들과 교회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장애인들의 천국인 미국은 철저하게 장애인중심으로 노약자들의 중심으로 편의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 부시 행정부에서 사회복지의 기초를 이루는 두 가지 정치철학은 모두 성서에 바탕을 둔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compassion and inclusion' 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17절의 '하나님의 형상'의 구절에서 추출한 목적적 가치관[자존감(self respect), 평등사상(equality), 평화(peace)]가 도구적 가치관[정직(honesty), 공감 하는 마음(compassion)], 또 존귀(dignity)와 평등(equality)의 가치관이다.

미국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일반적 가치에 근거해서 모든 사회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1959년 당시 케네디대통령은 건축 장벽으로 인하여 다수 장애인의 고용이 저해되고 다수의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와 구성'이라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1968년에는 건축 장벽철폐법이 제정되고 1973년에는 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 조치가 취해졌다. 지금도 미국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건축물이 되도록 법적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성인전반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성인 800만 명이 풀타임으로 노동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렇듯 미국의 복지는 정부와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편의시설 설치를 법제화 하였다.

우리사회에 장애문제는 편의시설 설치나 복지서비스확대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러한 제도적 기초위에 미국과 같이 자원 봉사하는 사랑의 마음이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울어나야 한다. 사랑의 실천 안에서, 봉사의 손길 속에서, 진정한 복지사회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나는 장애인들이 사는 집이, 그 동네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집이었으면 한다. 건축사들이, 다른 건물보다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디자인해주길 소원한다. 그리하면 선진복지사회가 가시적으로 한발 성큼 다가오리라. ■

보바스기념병원

Bobath Memorial Hospital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10-25외 14필지
지역지구	보존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용도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대지면적	19,546.00㎡
건축면적	3,259.03㎡
연면적	24,897.92㎡
건폐율	16.67%
용적률	67.21%
건물높이	27.5m
규모	본관 - 지하2층, 지상5층 웰니스센터 - 지하2층,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부 철골조
재료	본관 - 치장벽돌, 투명로이복층유리, 알미늄복합판넬, 드라이비트 웰니스센터 - 판테온석, 투명로이복층유리, 적삼목
설계담당	황선경, 이주호, 이준석, 우지식, 천지혜, 김재홍
구조설계	(주)에이팩어엔지그룹
설비설계	(주)건양설비설계
전기설계	(주)극동문화전기설계
시공사	(주)마이스터건설
설계기간	2004. 02 ~ 2005. 02
공사기간	2005. 02 ~ 2006. 06



Location 310-25, Geumgok-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9,546.00㎡

Bldg area 3,259.03㎡

Gross floor area 24,897.92㎡

Bldg coverage ratio 16.67%

Gross floor ratio 67.21%

Structure SRC

Bldg. Scale B2, F5

Design period 2002. 7 ~ 2005. 2

Bldg. Scale 2005. 2 ~ 2006. 6

1. 정경
2. 도크



보바스기념병원

급격한 사회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인 2002년도에 노인전문병원으로 개원한 보바스기념병원은 치매, 뇌졸중, 퇴행성 질환 등을 전문 치료하며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바스 치료는 신경학적 손상 환자에게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적인 움직임을 향상시켜 잠재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치료이다. 150병상 규모로 4년간 운영되면서 입원병상이 부족하게 되고, 외래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새 병원을 계획하게 되었다.

병원같이 않은 병원 이 건축주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1년여 동안 의료진과의 설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인허가과정과 실시설계과정을 거쳐서 16개월간의 공기로 완성되어 2006년 6월에 새 병원의 개원을 맞게 되었다.

대지는 분당의 끝자락이 자연과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여 자연과 접하고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수목이 울창한 급경사지에 있다. 부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게 되면서 토목공사와 진입레벨의 해결이 쉽지 않았으나, 대신에 좋은 경관을 얻게 되었다.

도시적인 경관으로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으로 분당의 초고층 주상복합 및 오피스 군으로의 조망과,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의 차량행렬과 같은 도시의 동적인 요소는 자연 속에 묻혀있어 고령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사회

로부터의 고립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외부공간계획의 개념은 자연, 건강, 생활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물이 앉혀지는 부분은 옥상조경을 설치하여 개발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공자연을 구축하는 것을 배치계획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본관동 및 별동인 웰니스센터의 옥상과 대부분의 옥외공간을 녹지와 인공대지로 구성하였다. 입원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활활동을 하는 옥외공간에 휠체어산책 및 보행훈련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장기입원이 주를 이루는 고령자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은 치료의 장이자 생활의 공간이다.

가장 큰 옥외공간인 데크는 각병동의 1층에서 연결되며, 병동으로 위요된 인공 대지위에 청단풍나무, 아외부대, 나뭇잎 모양의 천창, 동적인 요소로서 인공자연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공간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옥외공간에 사용되지 않았던 부드러운 이미지의 대리석의 수형(樹型)배턴 위에 배치되면서 지상, 옥상정원, 각 병동 등 각기 다른 레벨에서 조망할 때 중요한 오브제로 작용한다.

대지안의 고지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에서 각 층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는 로비층에서 하차를 하고, 주차장은 로비층의 하부에서 직접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게 된다. 주차장 입구에 일곱 그루의 장송이 있는 원



형화단을 중심으로 주차장 진입, 로비층 주출입구의 승하차 공간, 웰니스센터로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정리된다.

건축물은 크게 세가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건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전문병동인 본관동과 재활병동은 서비스코어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식당으로부터의 배식 및 서비스, 공급동선 등은 공유하게 되지만, 병동에 따라 환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또는 인테리어에서도 마감 재료나 색상 등에 의해 공간적인 차별을 갖게 된다. 노인전문병동과 재활병동은 재활치료실을 공유하게 되며, 수직적으로는 검사 부분과 중앙 공급 부분으로 연결 된다. 입원재활치료실과 외래재활치료, 소아재활치료센터는 별도로 구성되어 환자들이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별동인 웰니스센터는 데이케어센터와 보완대체의학센터로 운영된다.

외래객의 출입이 빈번한 로비층의 주출입구에 병원 로비를 중심으로 외래 진료부분, 외래 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식당 및 보바스홀(강당)로 연결된다. 법규상으로 지하인 로비층은 전면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면을 경사면의 커튼월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실 깊이가 깊은 외래 진료부분에 조형적인 천창, 식당부분과 메인코어로 향하는 넓은 복도에 자연환기 및 채광을 위한 선큰가든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자연채광과 환기를 끌어들이고, 로비층 대공간은 4.5m의 천정으로 개방감을 극대화 하였다.

웰니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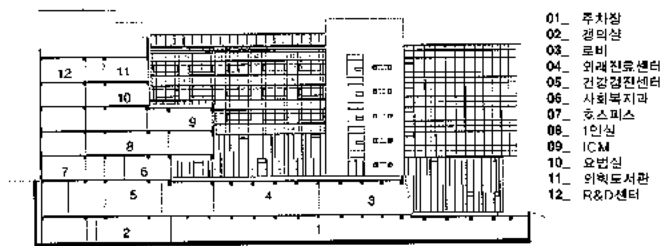
건축허가시에 장례식장으로 계획되었던 부분이 공사진행중에 용도를 달리 하게 되면서 설계변경의 과정을 거쳐 주간재활치료시설(데이케어센터) 및 보완대체의학센터로 완성되었다. 입원실이 있는 본관동과 기능을 달리 하기 때문에 외부재료나 형태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적인 형태가 채택되었다.

외부 마감재료는 데크의 바닥재와 같은 대리석으로 유리와 조화를 이루어 온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식당 및 다목적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외부에 목재패널이 곡면을 이루고 자연채광이 되는 부분에 대형 커튼월로 구성되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2개층의 환기와 통풍을 위해서 대나무와 자작나무가 식재되어있는 선큰가든쪽으로 개방적인 창호가 설치되었고 중앙의 오픈된 부분으로 온온한 천채광이 전망형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흐르게 된다. 지하 2층까지 최대한 자연채광을 끌어들이고자 한 의도였다. 웰니스 센터의 후면의 매화나무가 식재되어있는 스텝가든과, 옥상의 상록수 정원은 본관동 후면의 소단의 운동 시설까지의 산책로로 연결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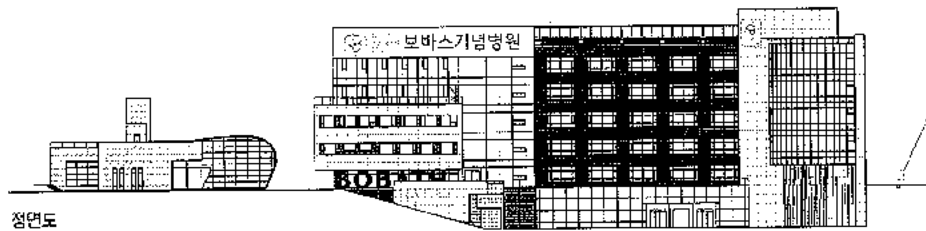
‘OMNIBUS OMNIA’ 모든이에게 모든 것을....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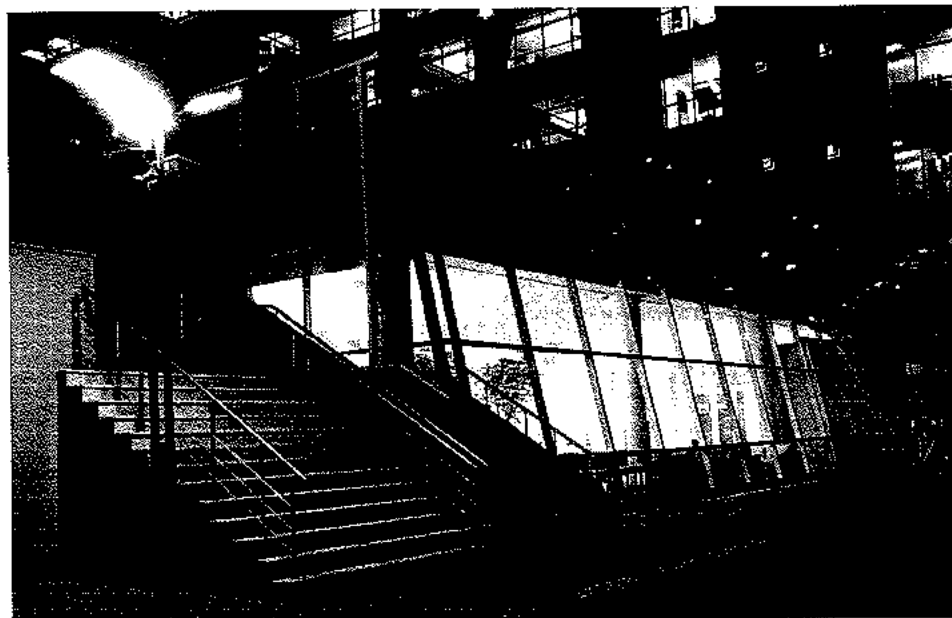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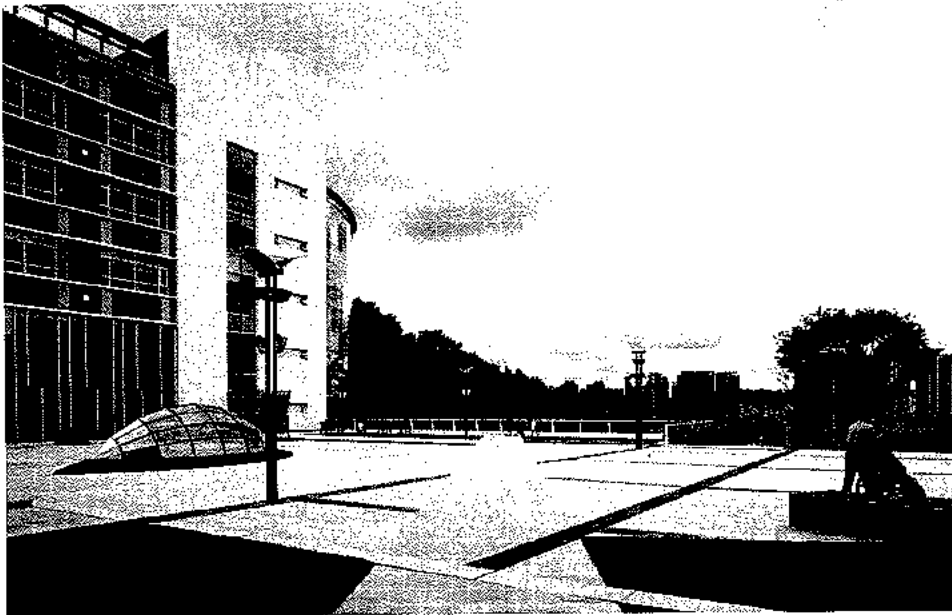
1. 주출입구 부분
2. 웰니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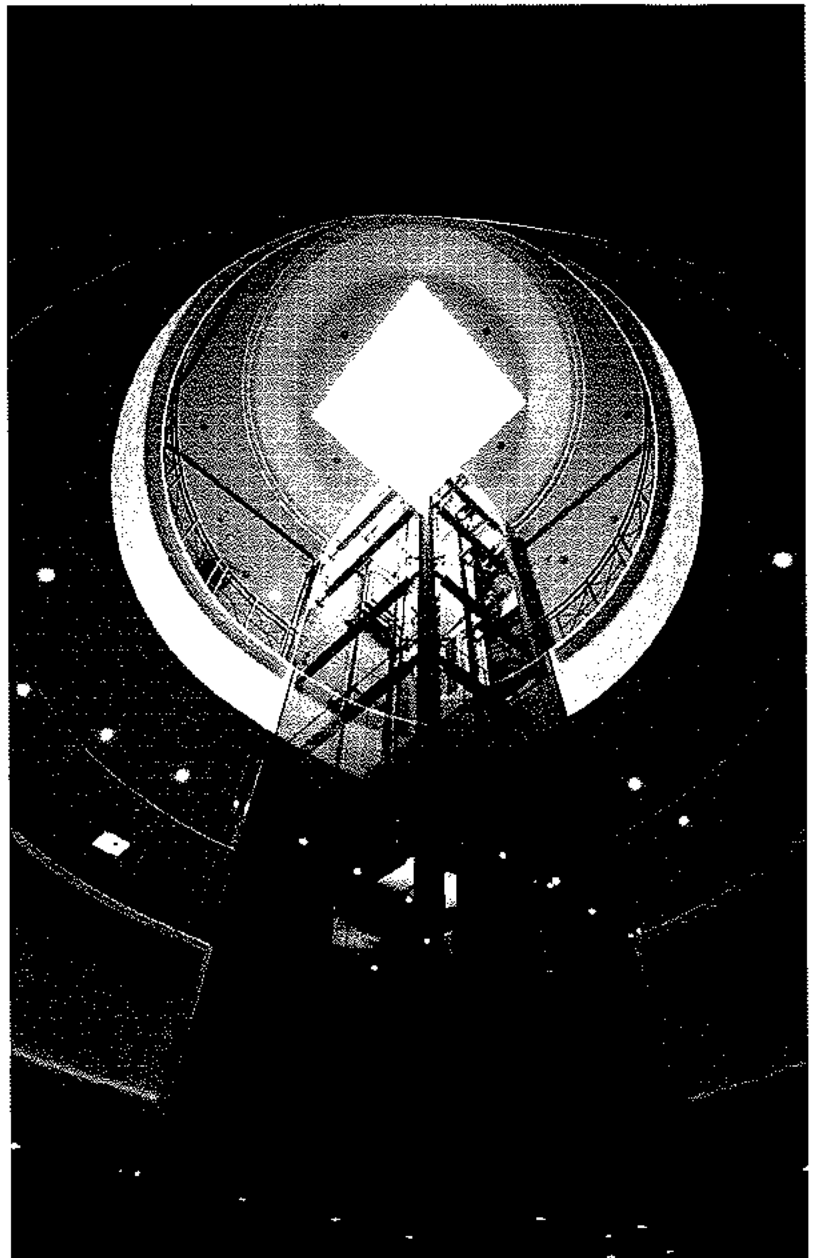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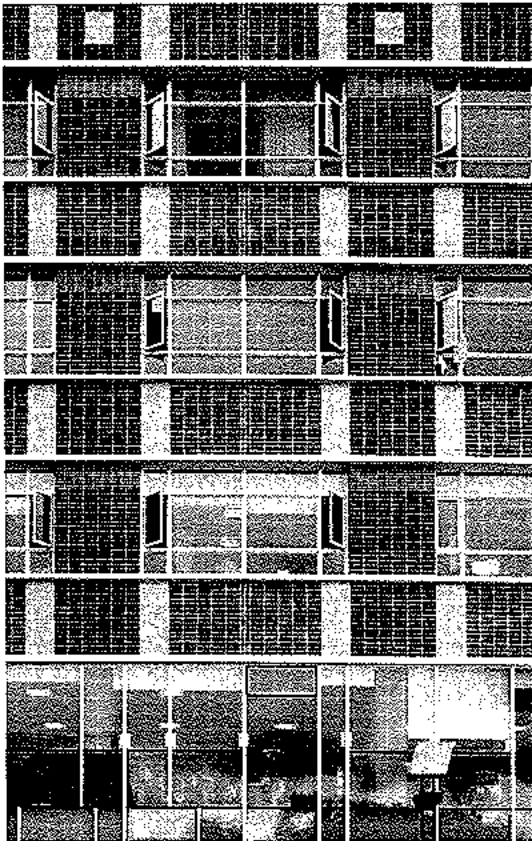
황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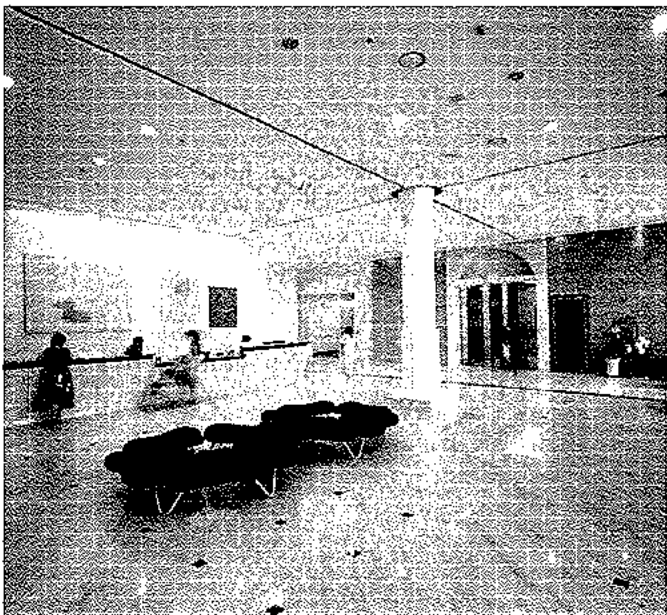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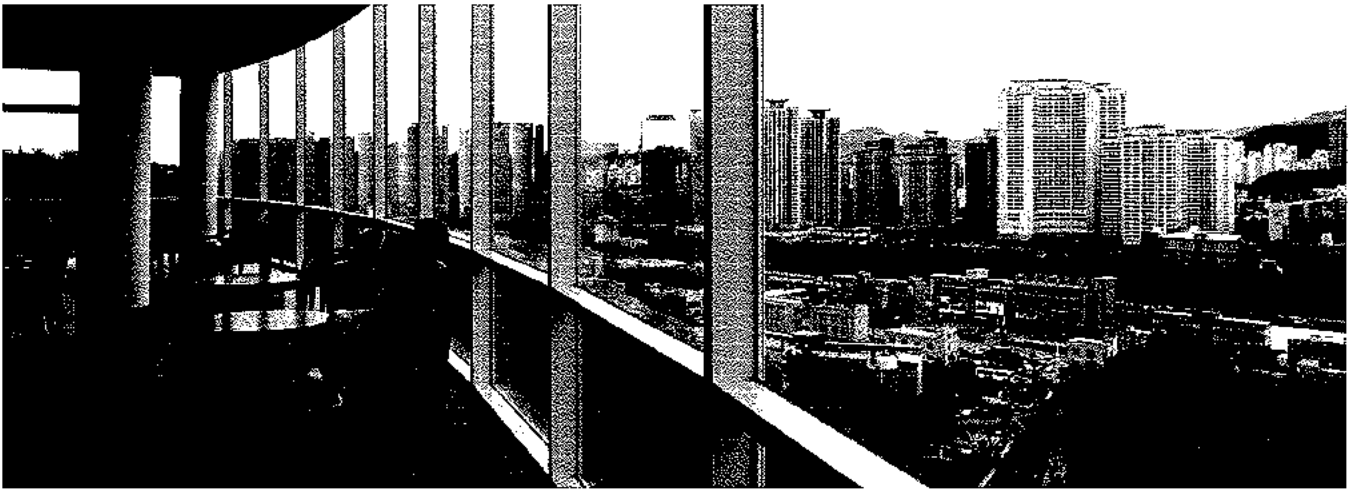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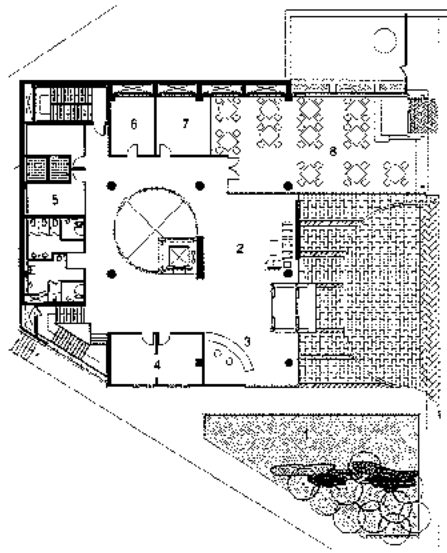
정면도



1. DECK에서의 조망
2. DECK외부계단과 로비
3. 자평동 일면 개문
4. 자평차로상 외벽의 패턴
5. 원니스센터 VOD공간
6. 원니스센터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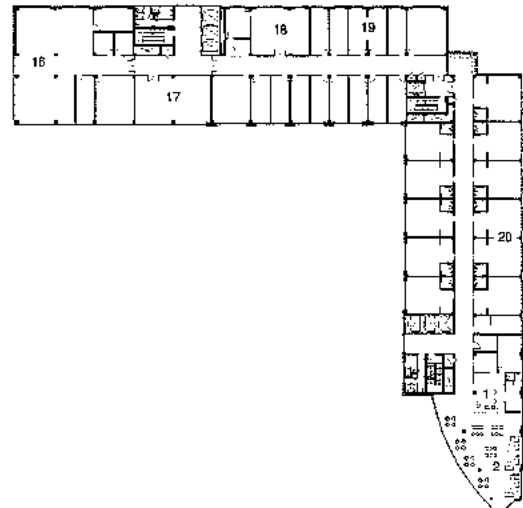


웰니스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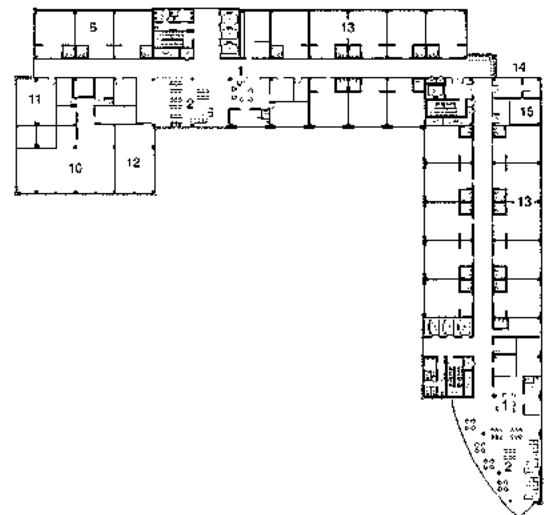
- 01. 선글라스
- 02. 로비
- 03. 접수
- 04. 상담실
- 05. 진료/사위실
- 06. 노과별
- 07. 영화촬영실
- 08. 요양실

- 1. 개관동 대이동
- 2. 선글
- 3. 로비
- 4. 종합대내외의 치료실
- 5. 웰니스센터: 다목적실
- 6. 웰니스센터: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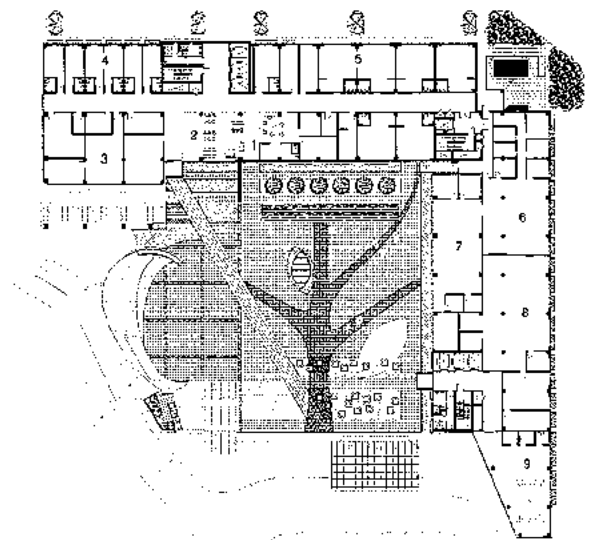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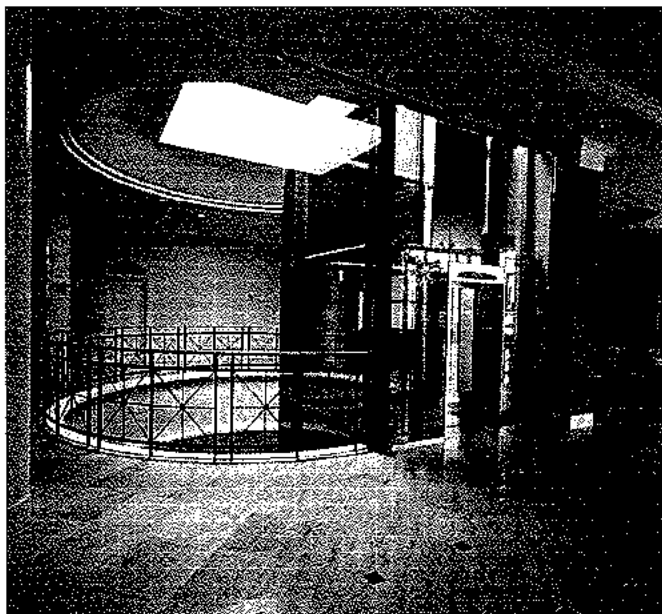
- 01. Nurse station
- 02. 대이동
- 03. 사회복지실
- 04. 1인실병동
- 05. 4인실병동
- 06. 개별치료실
- 07. 운동치료실
- 08. 작업치료실
- 09. 수치료실
- 10. R&D센터
- 11. 도서관
- 12. 회의실
- 13. 의사실
- 14. 사무실
- 15. 주민실병동
- 16. 중환자실
- 17. 의국
- 18. 내과응급실
- 19. 방사선
- 20. 사위실



본관 5층 평면도



본관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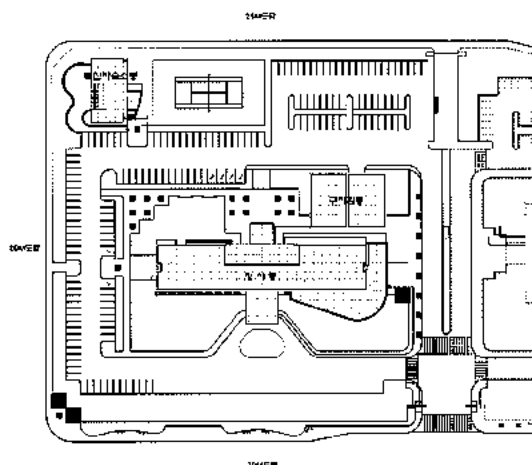
본관 1층 평면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Suwon District Public Procurator's Office Building, Ansan Branch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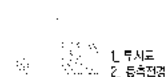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교잔지구 24블럭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공공의청사)
대지면적	19,124.50㎡
건축면적	2,569.29㎡
연면적	14,730.68㎡
건폐율	13.43%
용적률	68.91%
규모	청사동 - 지하층, 지상9층 구치감동 - 지하층, 지상3층 숙소동 - 지하층, 지상3층
외장재	TILE P.C
최고높이	41.8m
설계담당	박윤호, 심형준, 김대영, 권오제, 고병진, 배준호, 하민정, 황선수
주차대수	160대 계획(장애이용주차: 6대 포함)



Location 24BL, Gojan-dong,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9,124.50㎡
Bldg area	2,569.29㎡
Gross floor area	14,730.68㎡
Bldg. coverage ratio	13.43%
Gross floor ratio	68.91%
Bldg. Scale	B1, F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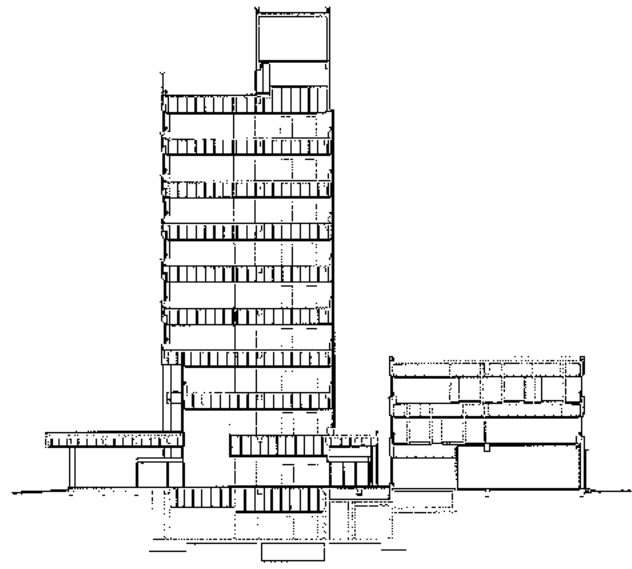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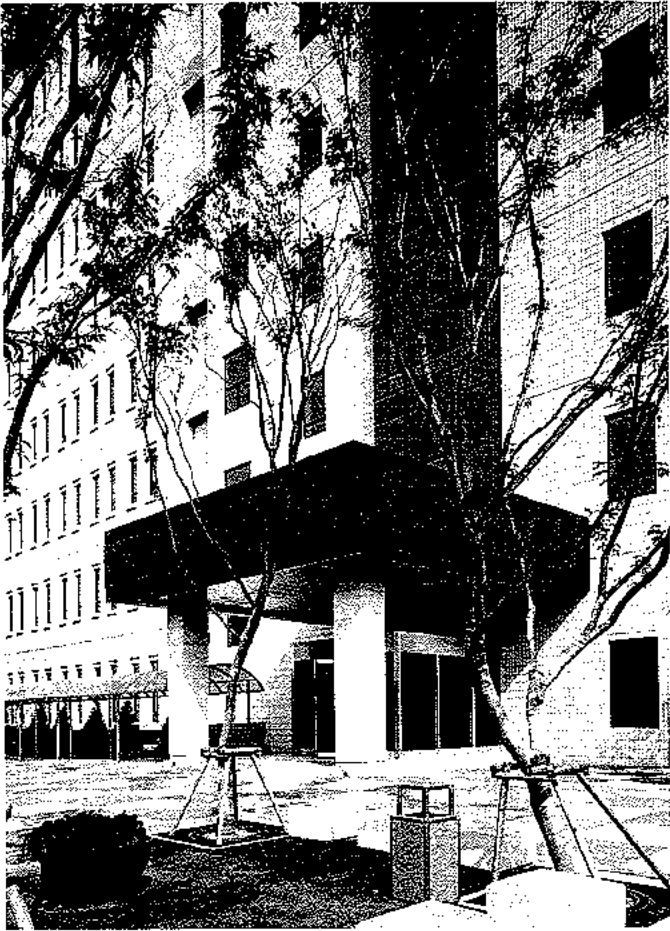


경기도 안산시 고잔지구 24블럭에 위치한 이 건물은 인근 블럭에 들어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함께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힘이 되고자 계획되었다. 우리는 자청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정의구현의 의지를 함축하는 내외부의 장중한 공간창출, 민원인 청사출입의 적절한 보안통제, 피의자 계호 및 이동에 지장이 없는 명쾌한 동선체계, 청사의 사무시설과 민원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충족시킬 효율적인 조닝, 사무공간의 자연채광 확보와 쾌적한 실내환경 구축 등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해결해야 했다. 동시에 자칫 생기를 잃기 쉬운 판공서 건물과 권의주의 공간에서 탈피해야 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질서 안에서 비대칭요소를 삽입하고, 육중한 매스에 대응하여 저층부에 개방감을 줌으로써 공간을 보다 생기 있게 만들었다. 또한 공개공지와 민원존의 동선을 연결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원실, 법률상담실, 장수실 등을 대기 홀 주변에 통합 배치하여 민원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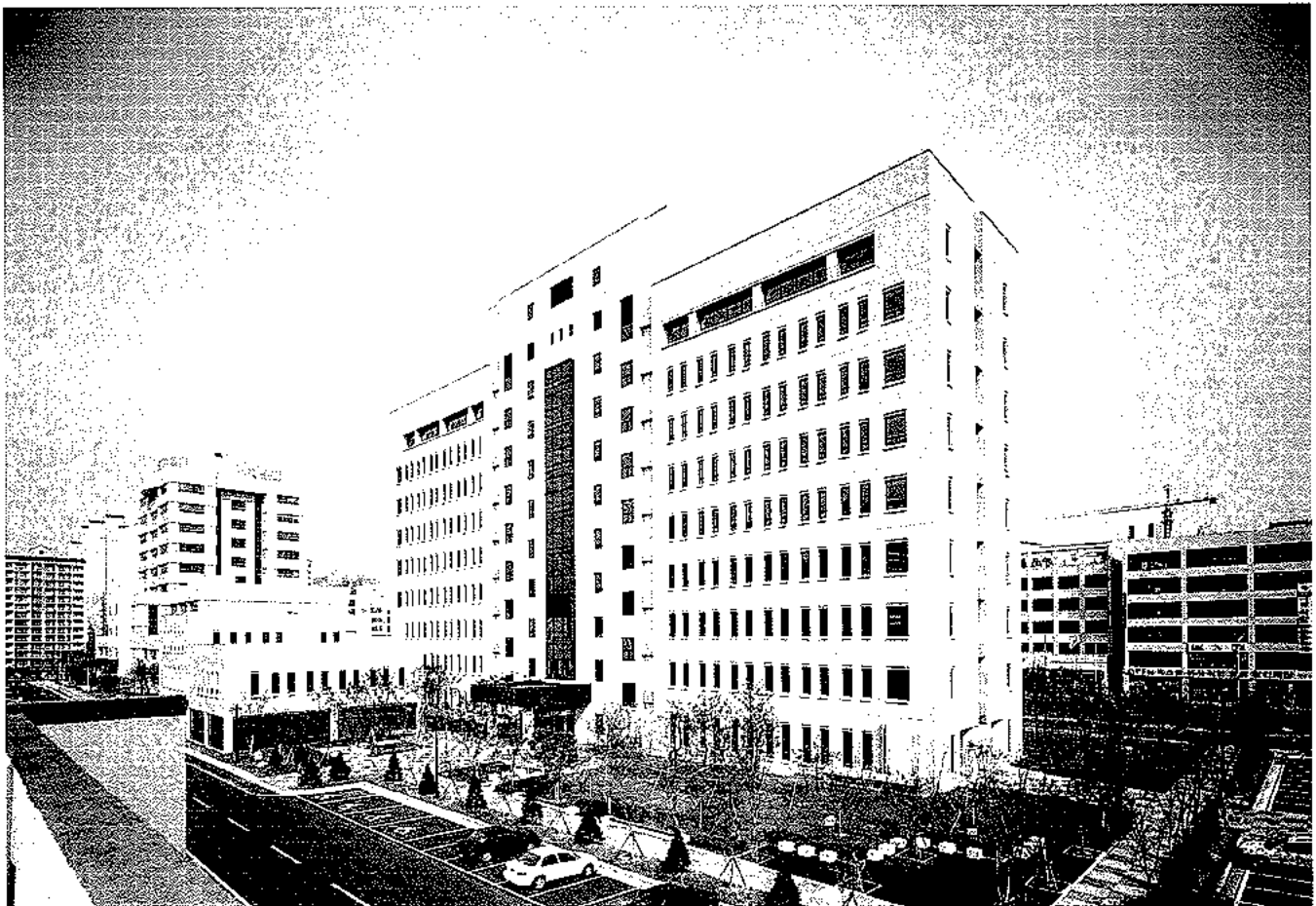
이런 형태상의 중압감 해소 및 시각적 명쾌함, 이용의 편의성 등이 새 시대 검찰의 이미지 제고를 유도하며 '권위'에 대한 재해석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권위적'이기는 하나 '권위'는 상실한 힘들을 많이 보아왔다. 흔들리지 않는 법의 권위가 건물에 흐르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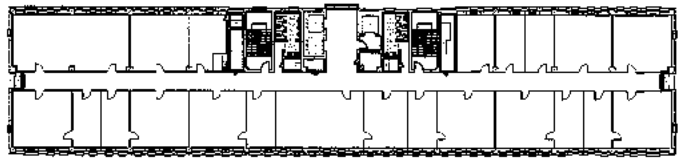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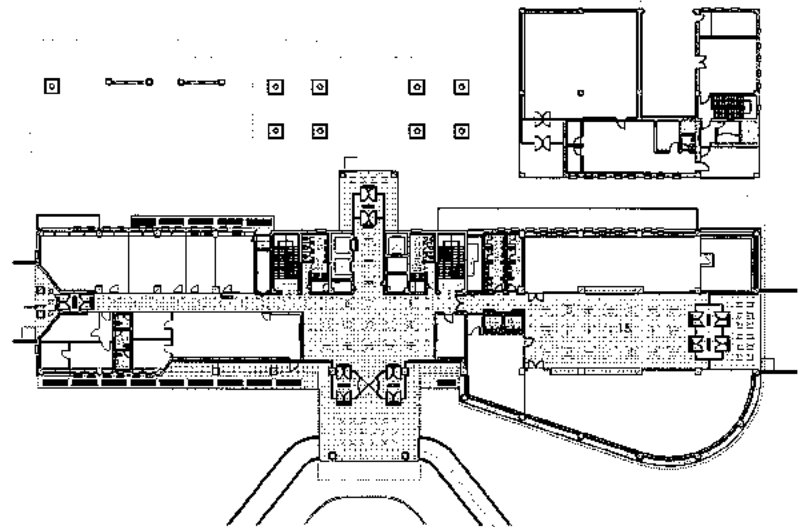
0 5 10 20m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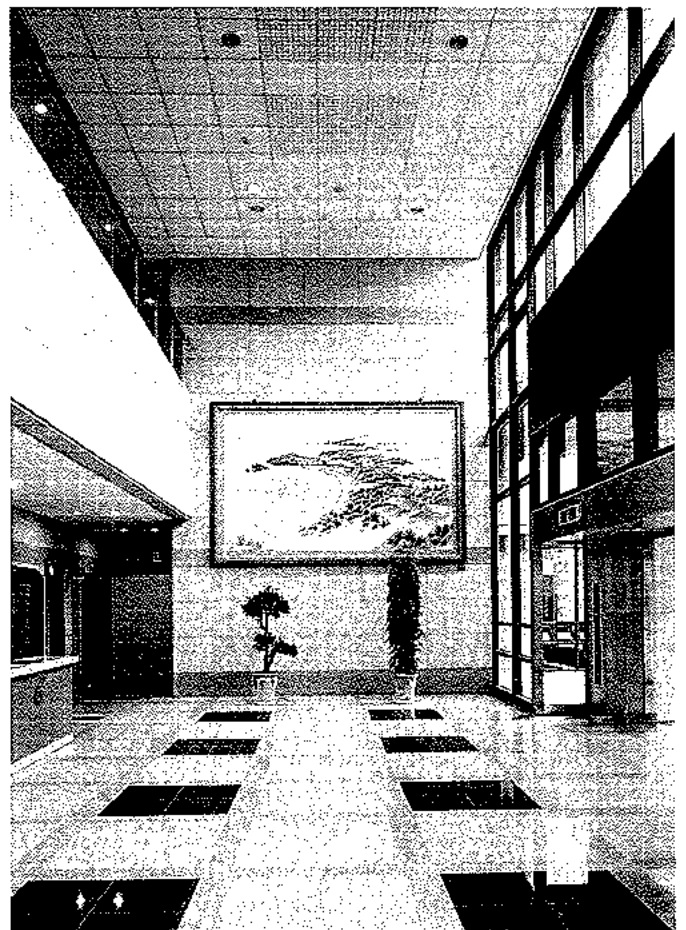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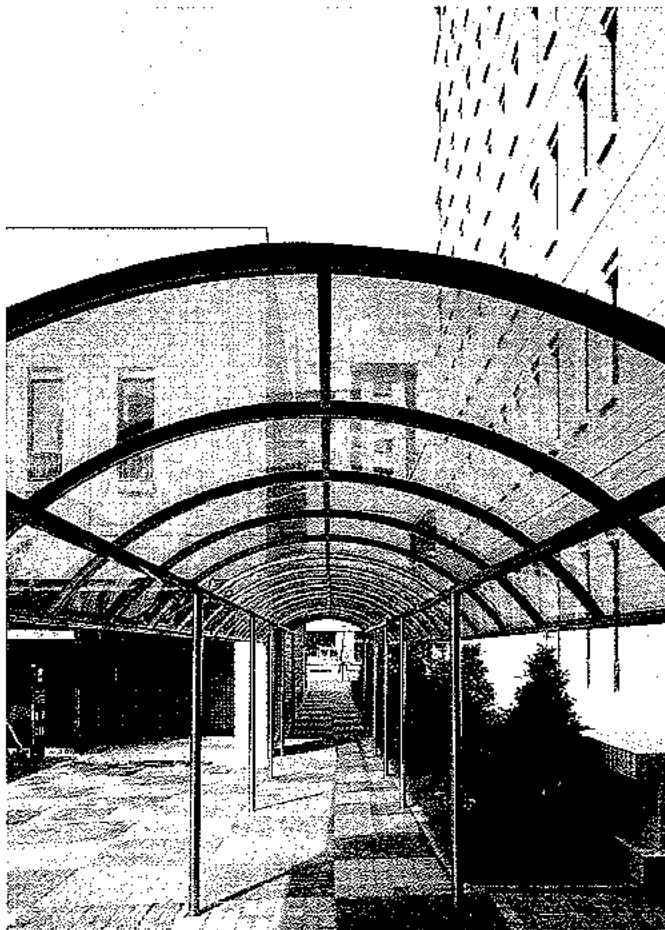


기준층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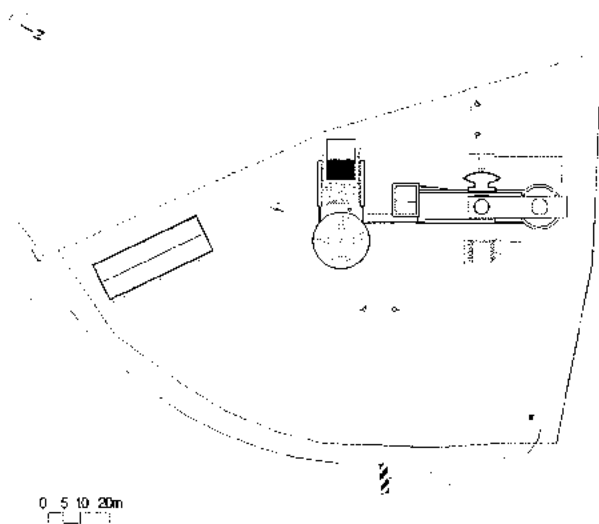
1. 서측부 승강부 전경
2. 서측 전경
3. 주차장 연결 통로
4.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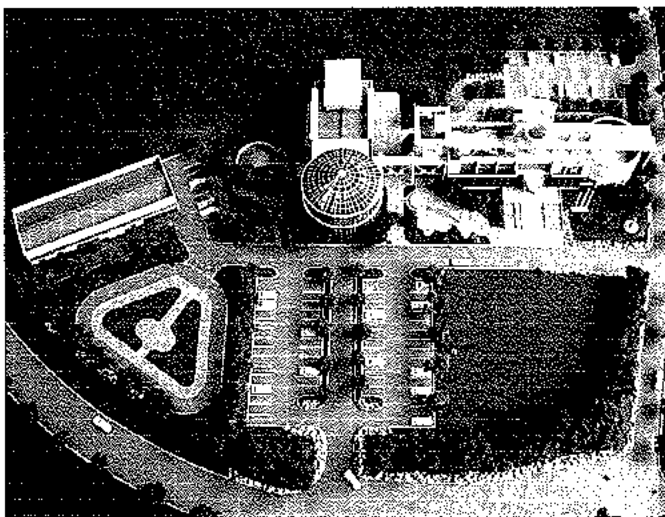
김포 농업기술센터 청사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36-15
지역지구	관리지역, 군사보호구역, 준보전임지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청사)
대지면적	15,642.00m ²
건축면적	1,811.31m ²
연면적	3,414.16m ²
건폐율	11.58%
용적률	17.75%
규모	본관동 : 지하 1층 · 지상 2층, 별관동 : 지하 1층 · 지상 2층, 농기계동 :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외부마감	T=12SPG GLASS, T=50압출성형시멘트판, T=1.5S, STL골판, T=0.7아연도골강판(미러), T=3알미늄쉬트, T=24칼라복층유리
설계담당	유병규, 전종성, 심준형
구조설계	(주)동양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이레설비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정방
시공	양화건설(주)
설계기간	2004. 02 ~ 2004. 08
공사기간	2005. 06 ~ 2006. 02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상수)



Location	536-15, Galsan-ri, Wolgot-myeon, Gimpo-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5,642.00m ²
Bldg area	1,811.31m ²
Gross floor area	3,414.16m ²
Bldg. coverage ratio	11.58%
Gross floor ratio	17.75%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Design period	2004. 02 ~ 2004. 08
Construction period	2005. 06 ~ 2006. 02

1. 건물배치도
2. 건물전세면장

전국이 아파트 가격으로 들쭉거리는 가운데 이곳 국내최초의 벼농사가 시작되었던 경기도 김포시에도 신도시개발이란 세찬바람이 휘몰아쳐 왔고 그 회오리 중심에 위치한 김포농업기술센터가 개발붐에 밀려 옛동지를 떠나 한적하고 자그마한 갈산리 성고갯길의 한 모퉁이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FTA에 직면한 농업개방의 현실아래 생명산업으로 국가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분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시급한 때이기도 하다. 과학농업의 새기술보급과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김포농업기술센터는 현대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신도시와 함께 세계속으로 발전 변모하는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데 그 변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단지계획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대지는 주도부가 휘감아 올라가듯이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을 바라볼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성으로 건물의 높이와 위치에 제약이 많았으며, 주변의 산세에 도전하지 않는 수평적 플랜으로 배치하였다. 본관은 부지안쪽인 서쪽으로 배치하고 진입구 방향인 동쪽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센터와의 완충지대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농기계동은 부지의 끝자락에 배치하여 본관과의 동선을 분리하고 주차장과 연계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계획

본관동은 지층을 농민에게 지속적인 기술이양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1층은 연구 및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은 청사의 업무를 관장할 사무공간으로 설치하였으며 별관동과 연결복도를 설치하여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층에 설치한 커다란 선관은 지상의 유기적인 연결통로로서, 녹지와 함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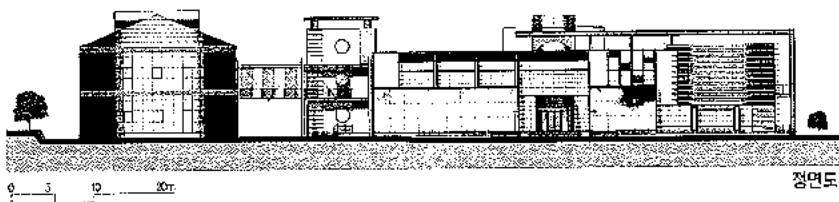
별관동은 1층에 온실과 식당을 설치하고 이동 가능한 유리벽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간의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2층은 강당을 설치하였다. 1층과 2층의 공간들은 시민들이 예식 및 문화행사의 복합적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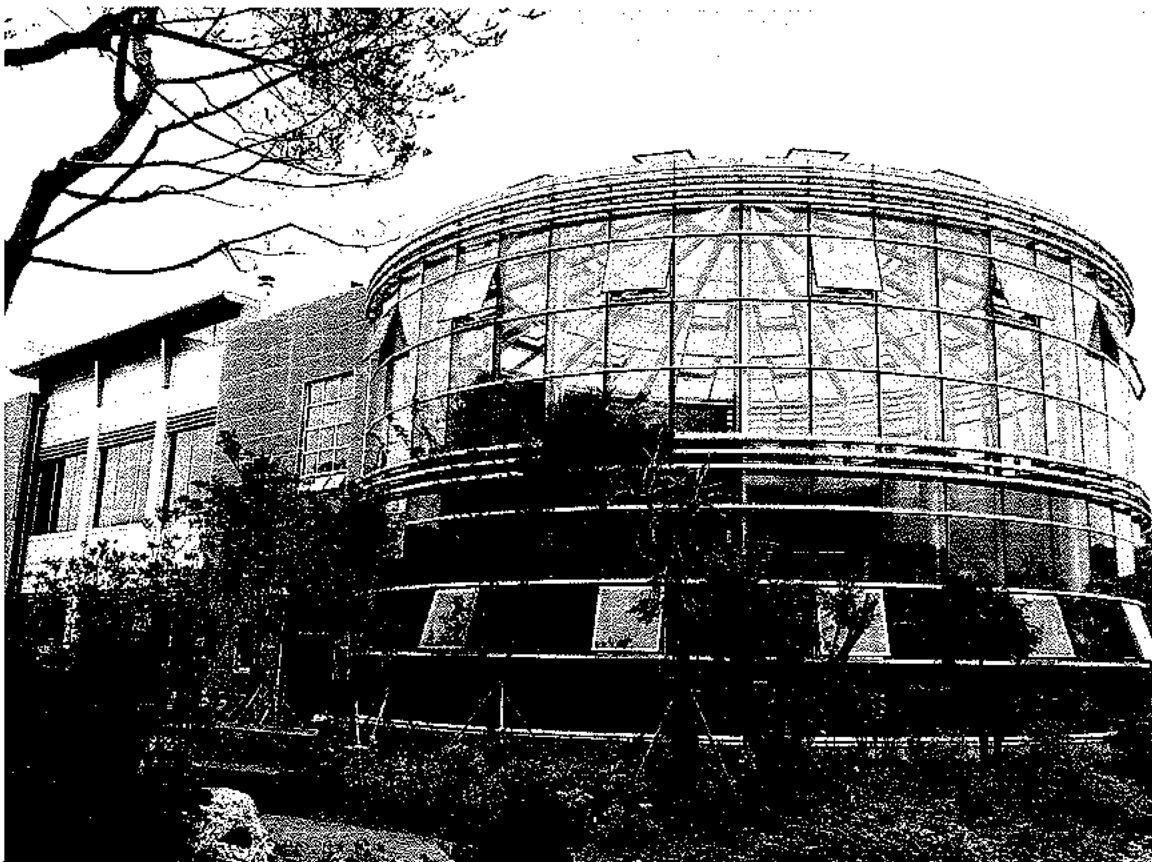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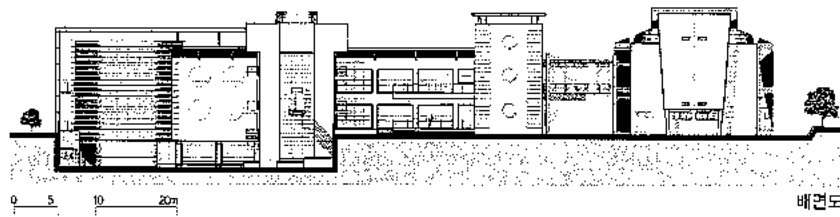
수평으로 늘어진 입면들은 원형의 형태와 조합하여 볼륨감을 주었으며, 들고 나는 입체적 형태를 가미하여 단순한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건물의 시작점에서 감아올라가 지붕을 형성하고 있는 가벽은 돌출된 입면들을 잡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요소요소마다 다른 입면을 접목하여 다양하면서도 일체화된 이미지를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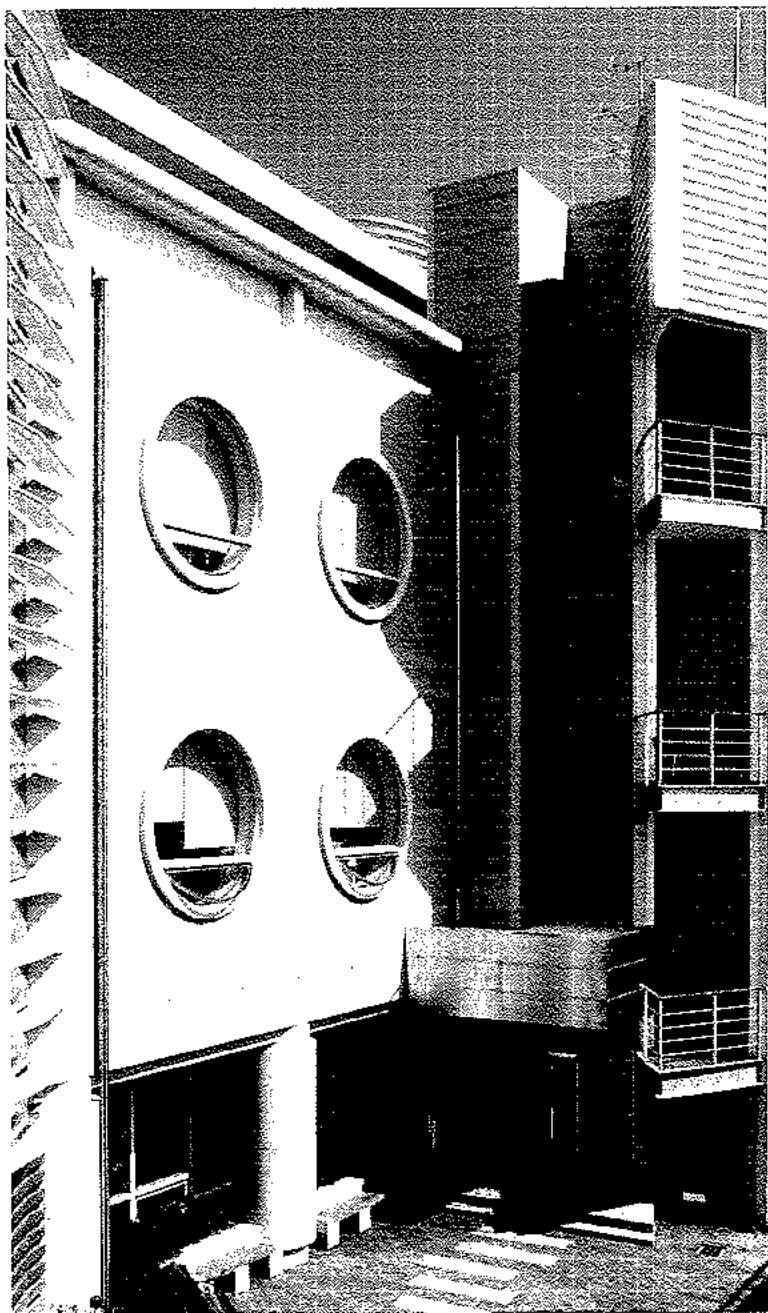
남·북간으로 늘어진 본관동과 별관동의 연결통로는 유리벽의 OPEN된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동·서간 공간의 이동통로로서의 역할 또한 부여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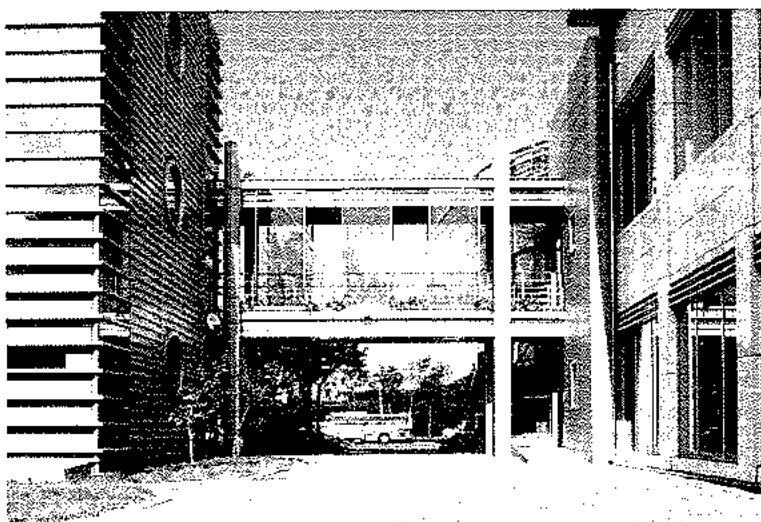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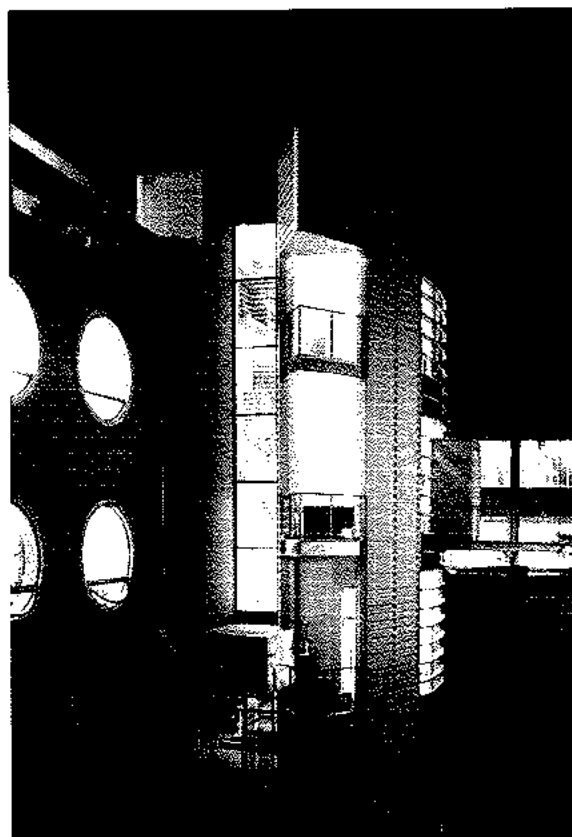


- 1 본관동 2층 연관동 정면
- 2 본관동 및 연관동 배면
- 3 연관동 옥상천정
- 4 본관동 옥상천정
- 5 연관동 옥상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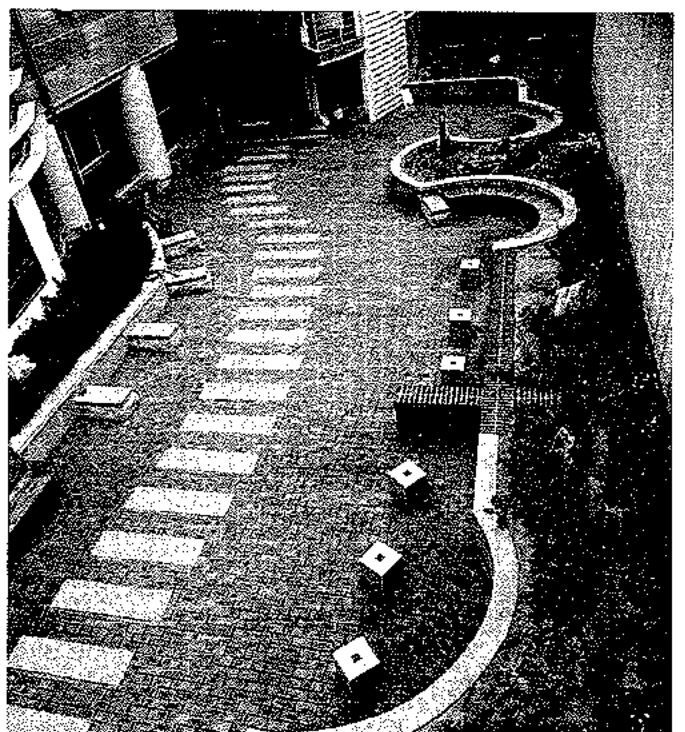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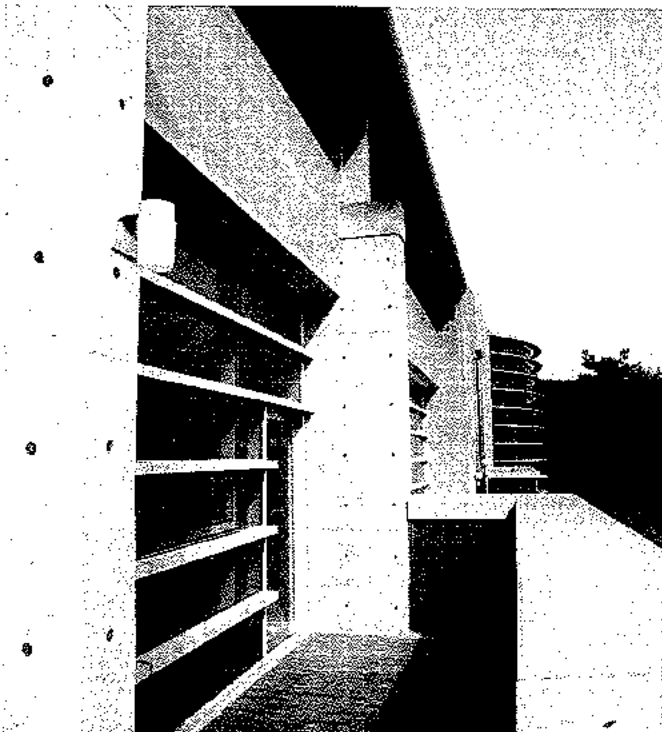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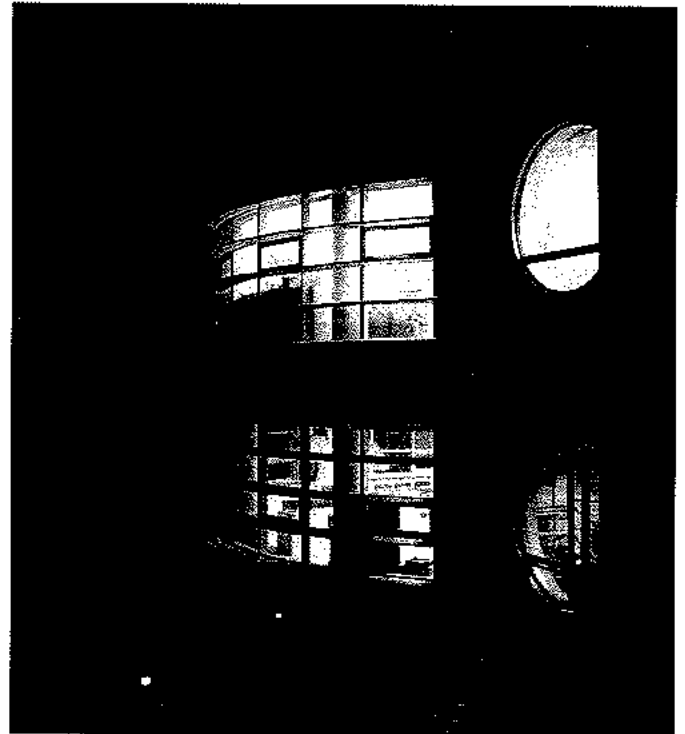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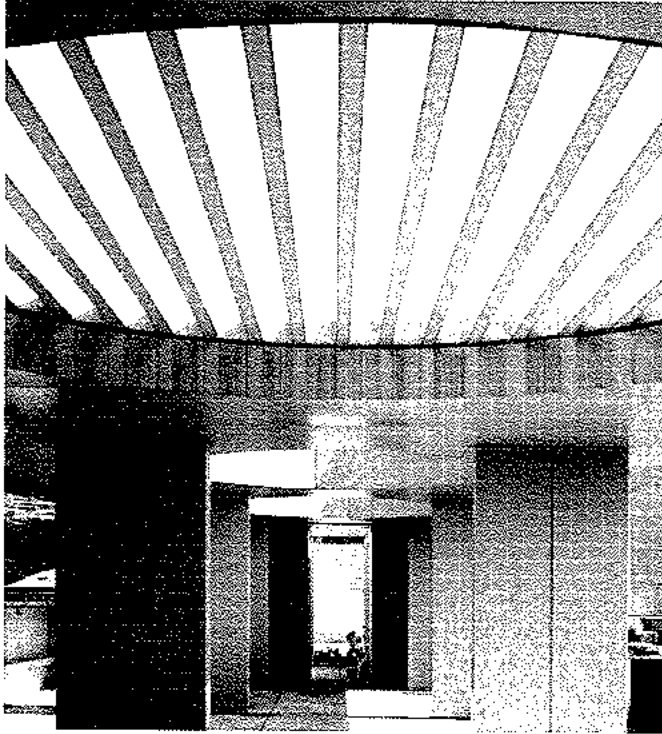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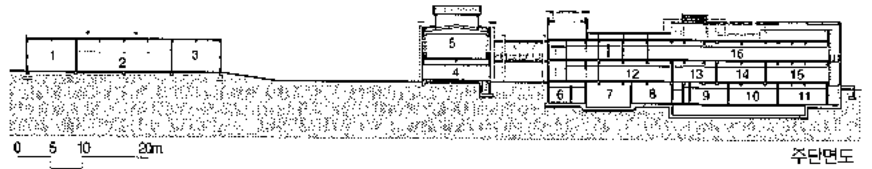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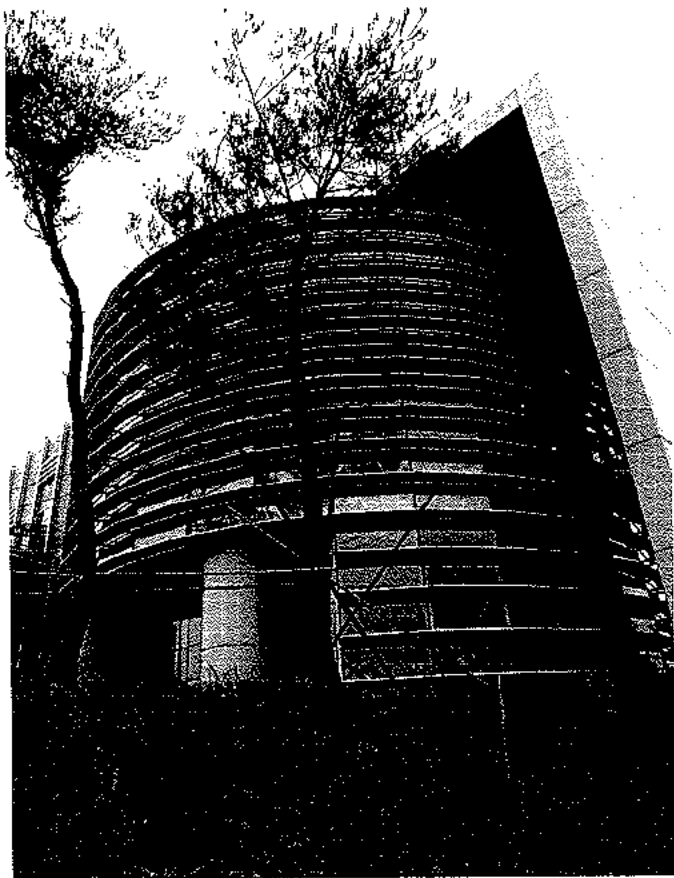


1. 원형의 벽면 개입설
2. 신축된 벽면과의 연결로
3. 원형의 벽면 개입설 마감
4. 원형의 지붕 형태
5. 원형의 2층 옥외유지공간
6. 원형의 벽면 개입
7. 원형의 선형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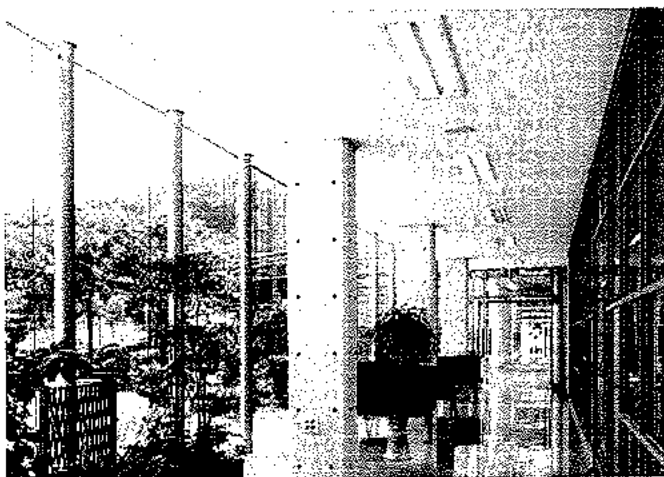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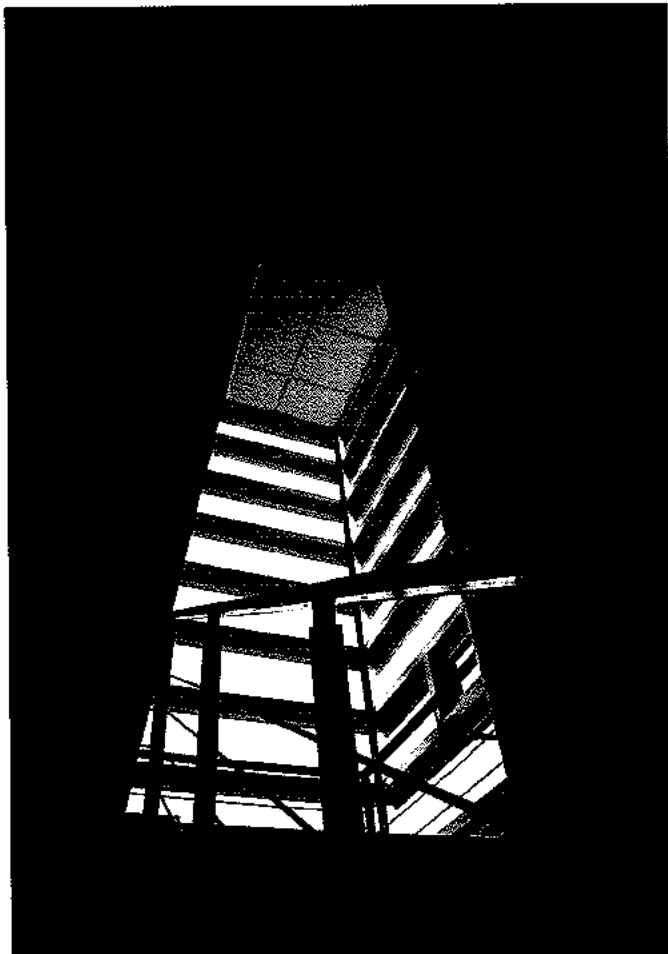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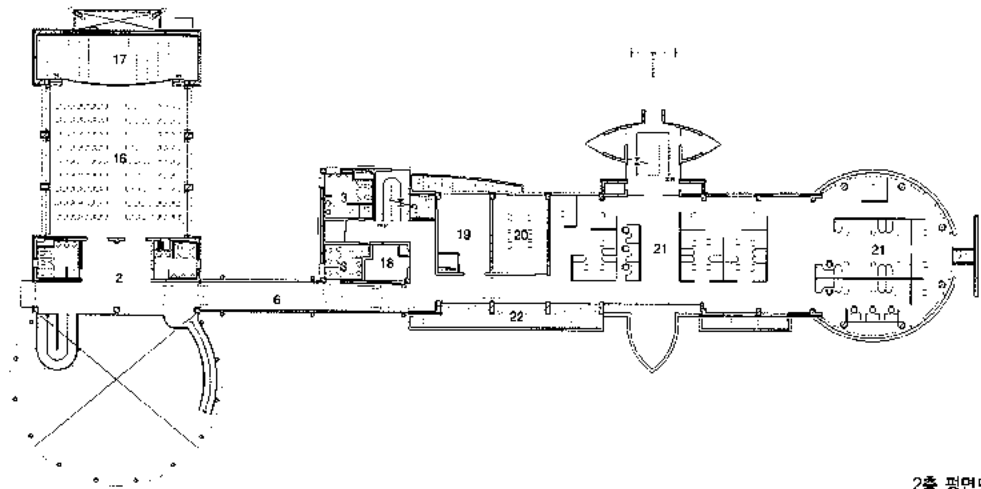
- | | |
|-------------|---------------|
| 01. 사무실 | 09. 원예치료실 |
| 02. 편집작실 | 10. 방송물제작실 |
| 03. 작가부 (방) | 11. 방송수신물제작실 |
| 04. 식당 | 12. 생활체육종합전람실 |
| 05. 회의실 | 13. 책 및 전시실 |
| 06. 체육단 연습실 | 14. 토양검정실 |
| 07. 기계실 | 15. 생활과학보존실 |
| 08. 전기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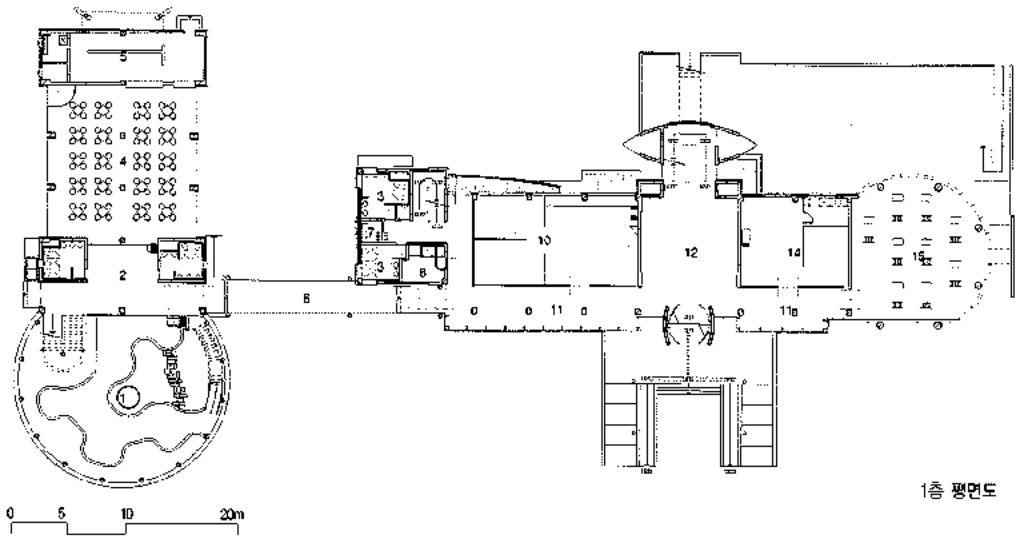


1. 남문동 성역 치문관
2. 남문동 1층 복도
3. 남문동 계단소
4. 옥외유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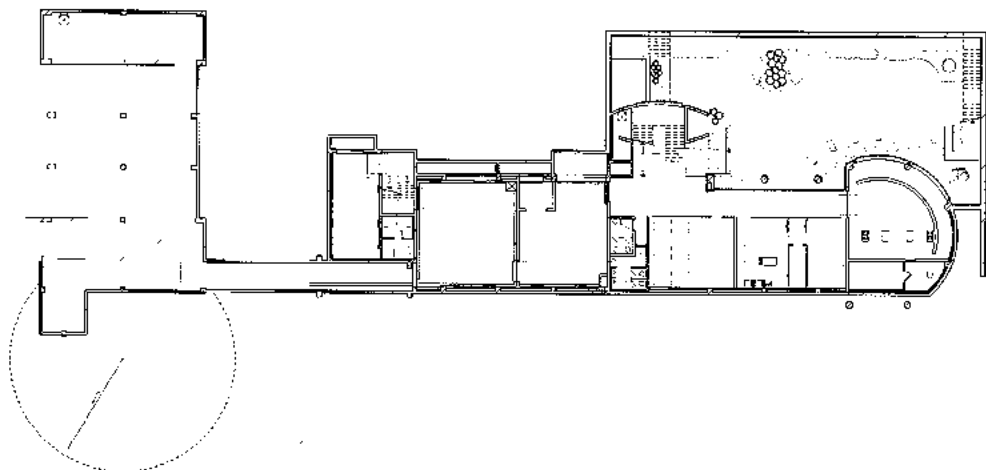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_ 은실
- 02_ HALL
- 03_ 화장실
- 04_ 식당
- 05_ 주방
- 06_ 연습실
- 07_ 강연인화장실
- 08_ 숙직실
- 09_ 복도
- 10_ 명해중 종합진단실
- 11_ 복도
- 12_ 휴게공간
- 13_ 휴게공간
- 14_ 토양 실험실
- 15_ 생활과학실험실
- 16_ 강당
- 17_ 무대
- 18_ 서고
- 19_ 소강실
- 20_ 회의실
- 21_ 사무실
- 22_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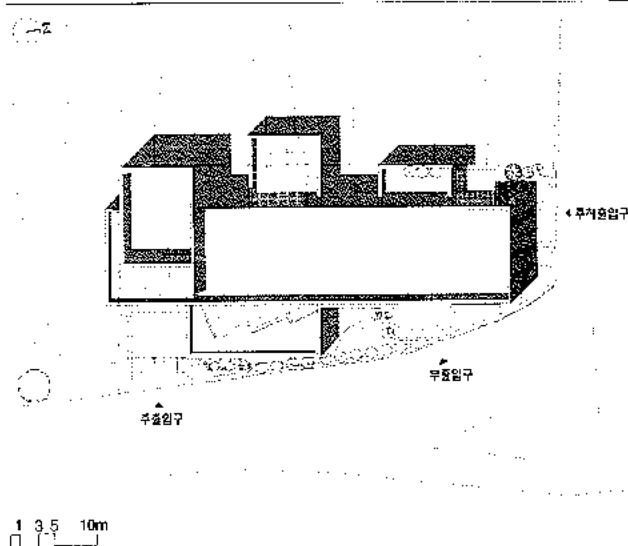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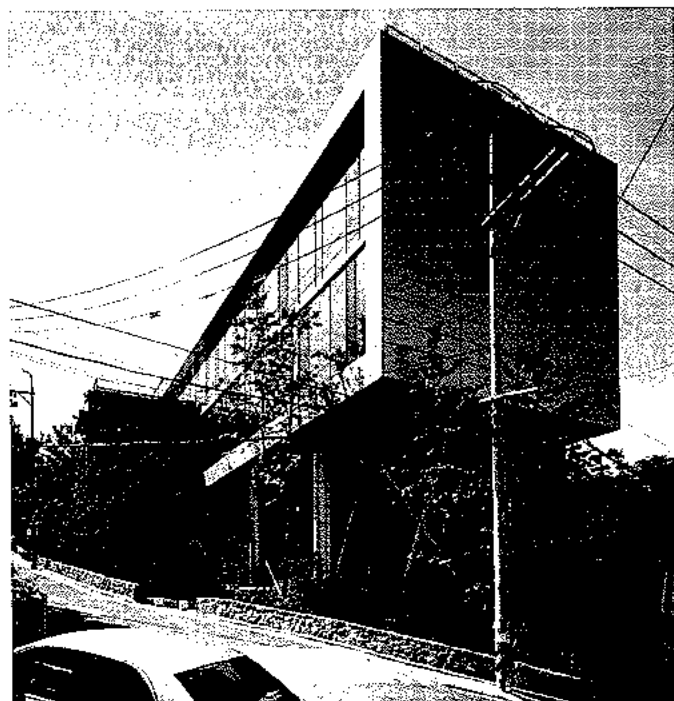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Dongdaemun-gu Libra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19(충릉공원내)
지역지구	제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1,161.0㎡
건축면적	841.98㎡
연 면 적	3,094.02㎡
건 폐 율	1.17%
용 적 륜	1.74%
규 모	지하3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A.L FLUX PANEL, 복층유리, 적삼목사이딩, 화강석(하이라인 블랙)
설계담당	김두환, 최지호, 이종규, 최정인, 김형근, 조상은
기계설비	(주)하나기연
전기설비	극동전기기술사사무소
시 공 사	타원종합건설(주)
설계기간	2002년 11월 4일 ~ 2004년 10월 31일
공사기간	2004년 12월 27일 ~ 2006년 6월 12일



Location	206-19, Cheongnyangr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Site area	1,161.0㎡
Bldg. area	841.98㎡
Gross floor area	3,094.02㎡
Bldg. coverage ratio	1.17%
Gross floor ratio	1.74%
Structure	SRC
Bldg. Scale	B3, F3
Design period	2002. 11. 4 ~ 2004. 10. 31
Construction period	2004. 12. 27 ~ 2006. 6. 12

1. 우측에서의 전경
2. KIR 도로에서의 야경

홍릉공원은 영취원(영친왕의 받아들인 이진의 묘)과 송인원(고종의 비인 엄귀비의 묘)이 있는 사적지로서 전체면적은 약 102,920㎡(31,133평)이다.

전면의 홍릉길에서부터 뒤쪽으로 주택가와 학교로 연결되면서 숲이 울창한 구름지로 되어 있으며, 주택가와 면한 정상부는 산책로, 휴게마당, 배드민턴장 등으로 꾸며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당초 계획안은 공원 정상부 골짜기에 계획(1998년 현상설계경기 공모)하던 중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입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 능이 잘 보이지 않는 후면인 현재자리에 재설계(2004년)를 하게된 것이다.

모델 사진과 같이 정상부 골짜기를 이용하여 가능한 지상돌출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돌출된 층의 지붕은 단형의 테라스를 만들어 식재를 함으로서 공원과 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계획은 건물을 오브제화하여 공원지면으로부터 매스를 부유시켜, 첫 번째 계획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원과 건물의 상호 관계를 해석하였다. 당초 계획안이 대지가 갖고 있는 힘들을 가라앉히면서 내향적인 해결 방식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내재된 힘들을 서로 드러내면서 외향적인 해결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원과 건물 즉 자연과 인공이 공존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그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내재된 존재방식은 같은 결과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관계

주택가, 학교 등에 접해서 홍릉공원 한쪽 모퉁이에 서있게 된 건물은 공원의 흐름을 막지 않고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 자연속에 건물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프로그램상 큰 공간이 요구되는 열람실을 최상층부(2~3층)에 위치시켜 남북방향으로 긴 매스를 만들고 그 하부에 프로그램실과 어린이 열람실을 직교 배치하였다. 매스를 엇갈리게 배치하여 만들어진 필터하부의 빈 공간은 마치 커다란 천막하부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이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모습들은 1층 데크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비움과 채움의 교차배



치를 통하여 만들어진 공간들은 자연과 인공의 상충적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교감될 것이다.

경계 넘나들기

외부계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1층데크로 연결 되도록 하여 계단, 데크, 브리지 등의 2, 3층 하부 연결 요소들과 어우러진 피로티공간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흥미를 유발시키는 산책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외벽과 유리에 의해 닫힌 내부공간을 큰 외부공간 속에 끼워 넣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내·외부공간의 상호 반전을 유도하였다. 서로 교차되면서 두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함으로서 보다 극적인 공간체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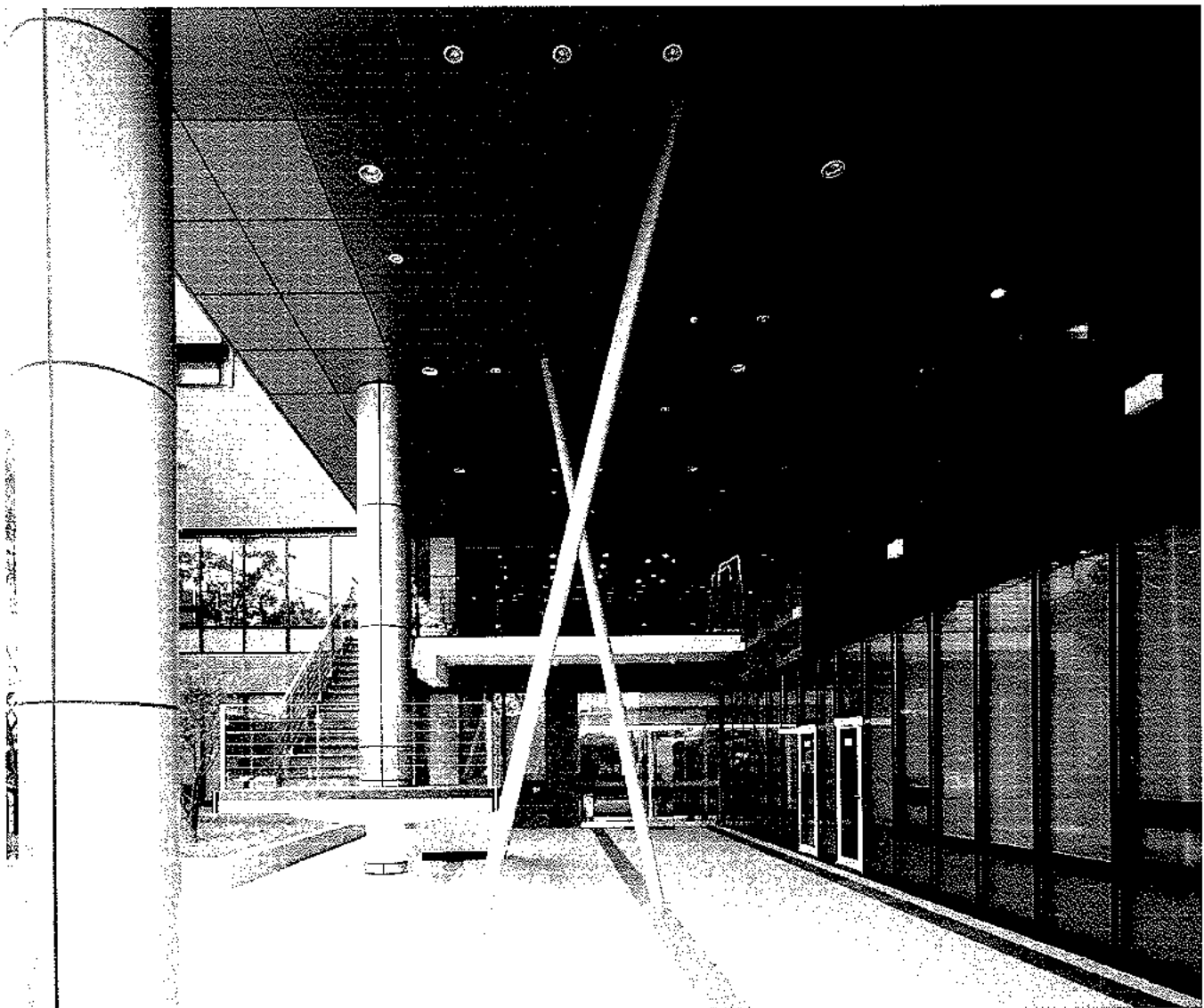
순응

도로에서 도서관으로의 진입은 약 10m 정도 전면도로의 높이차(약10m)를 이용하여 건물의 주진입 마당을 지하 1층에서 진입하도록 하였으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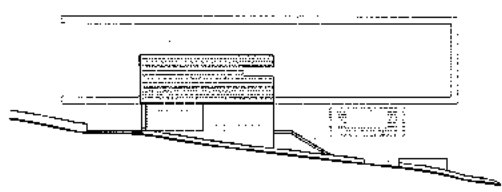
하 2층은 주차장 출입구로, 어린이도서관 출입은 지상 1층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건물의 진입 레벨을 주변도로 지형 변화에 대응토록 하였다. 이와같은 다층적 진입방식은 공원 훼손을 최소화 하 시키고, 부족한 전면공지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공원의 경사와 접한 지하 1층 기반부에 놓인 매스(1층 어린이 열람실과 프로그램실)와 기둥에 얹혀진 상부의 장 방향 매스(2, 3층 열람실)는 공원 골짜기에 떠있는 오브제로서 역할을 의도 하였으며, 가느다란 기둥에 의해 지지된 채 떠있는 매스와 캔틸레버 하부의 필로티 공간은 시각적인 긴장감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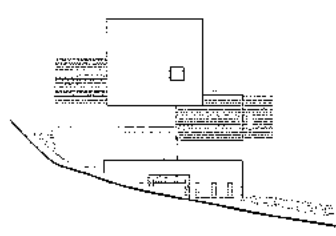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시에는 외부로 드러나는 기둥이 한 개 밖에 없었으나, 시각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불규적인 사선 방향으로 철골기둥 5개를 추가 설치하였다. 추가된 불규칙적인 기둥은 2~3층 오픈된 피로티 공간의 경직된 분위기를 훨씬 완화시켜 줄 뿐아니라 풍부한 공간감을 제공하는 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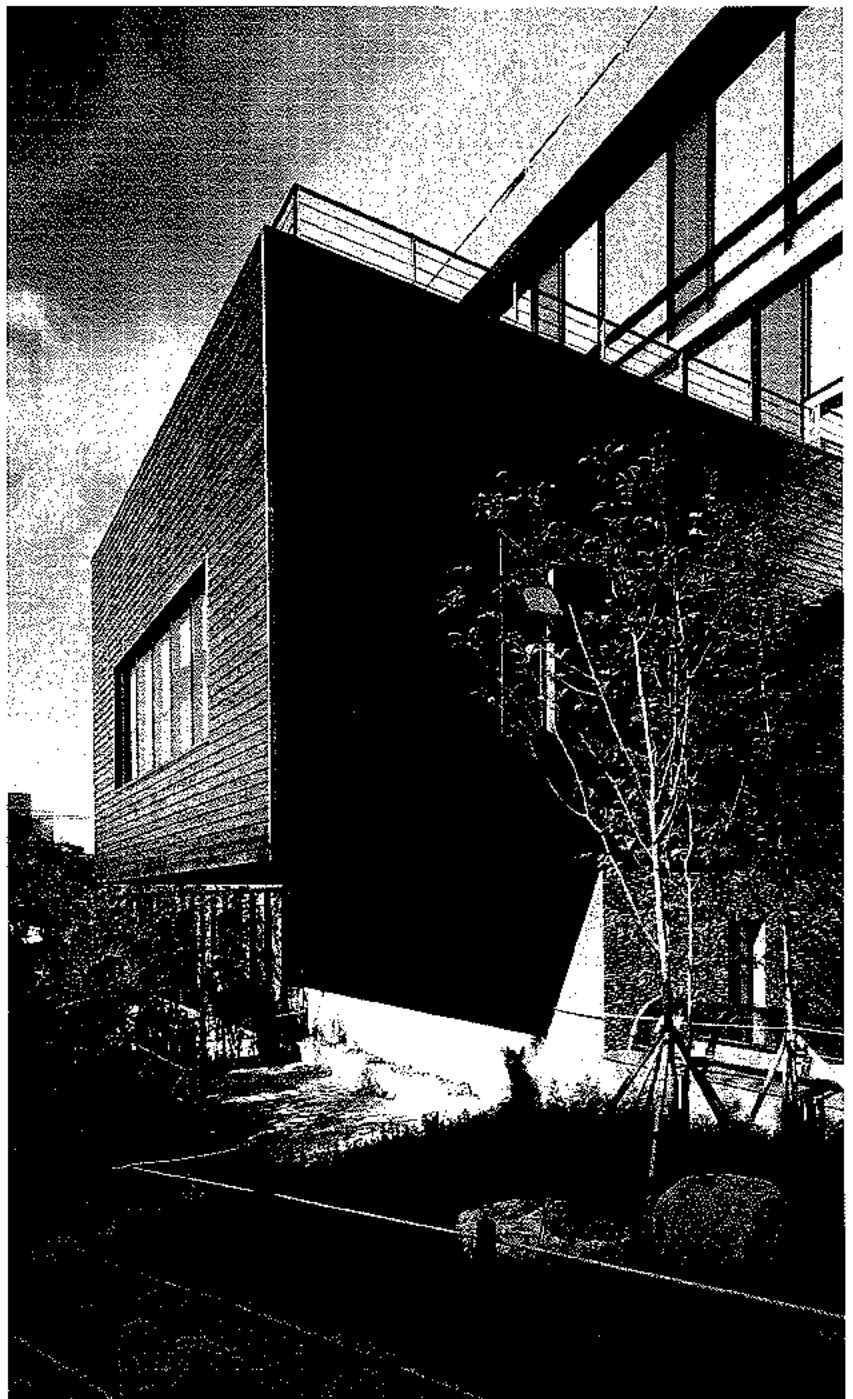
1. 옥외세탁에서의 진입구
2. 담초 한창경계 공모사업(1998)에 당선안
3. 공원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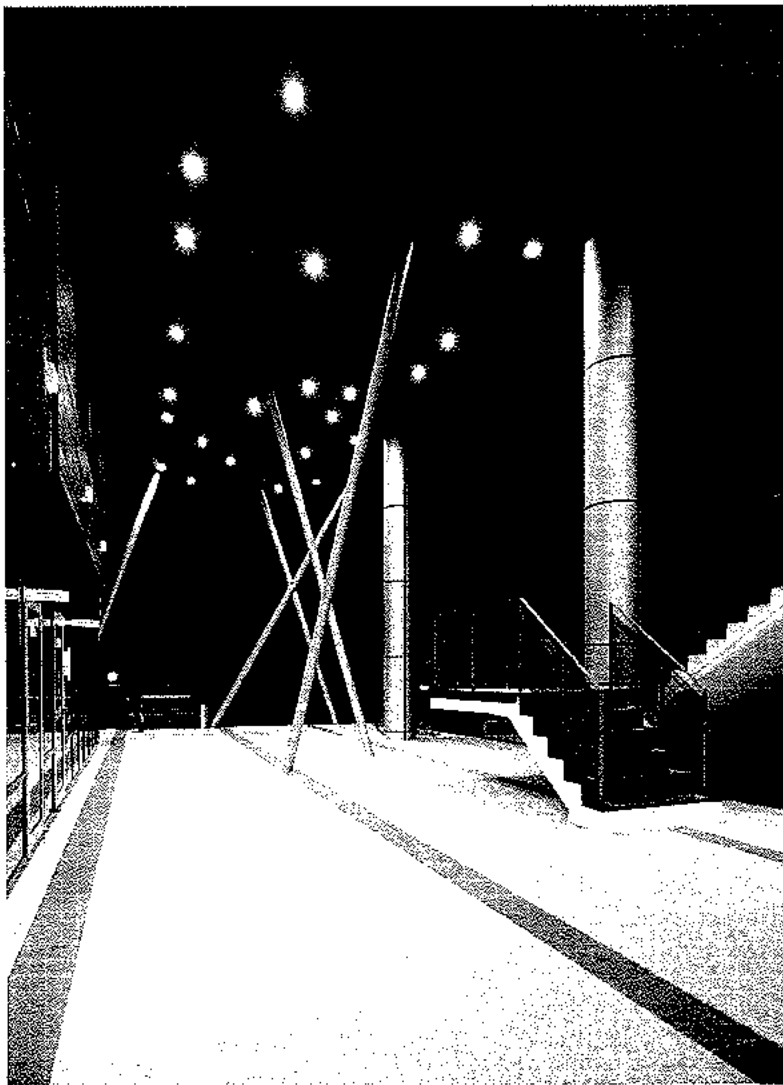


경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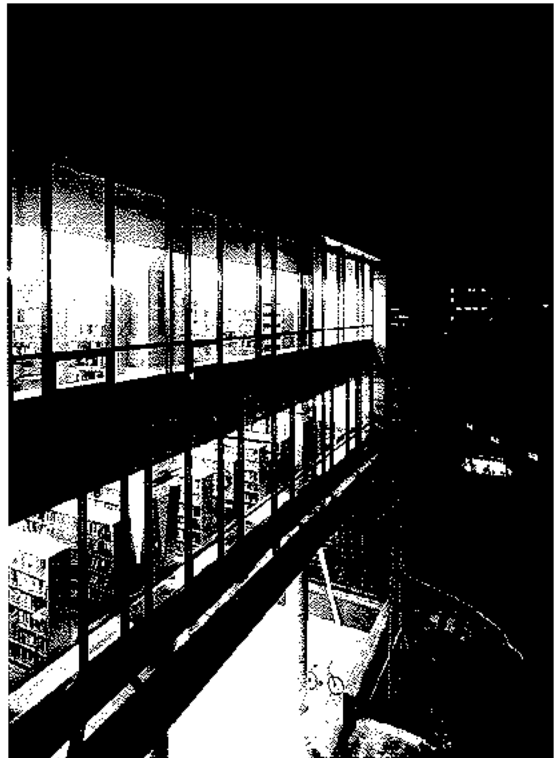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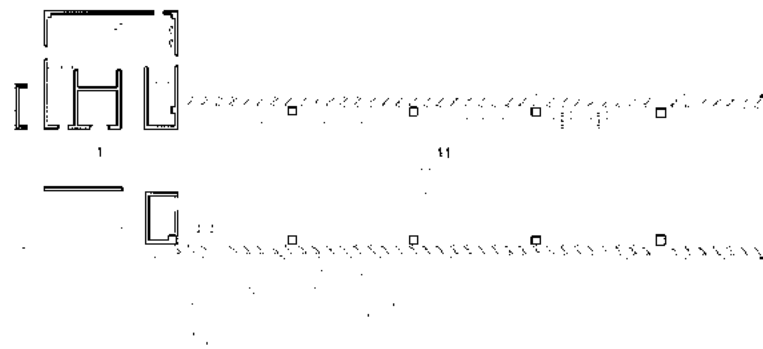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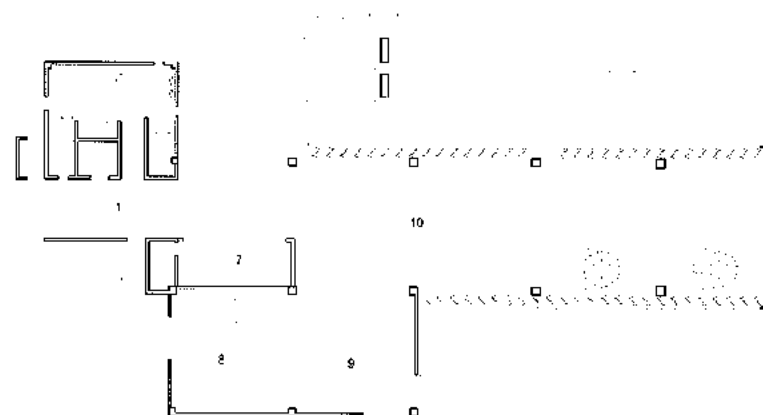


1. 옥외테크
2. 문화 영입실 : 계단
3. 전자정보자료실의 야경
4. 전자정보자료실 내부계단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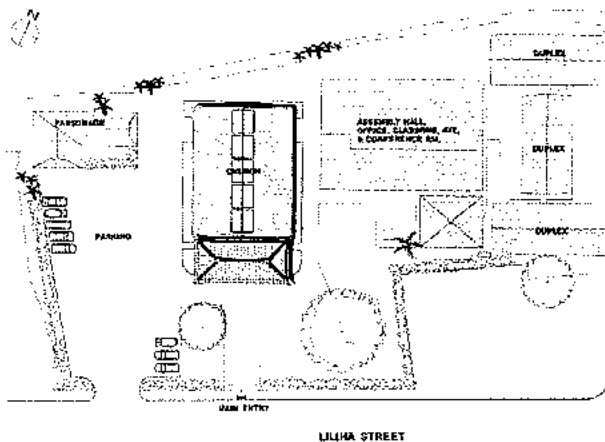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1832 Liliha Street Honolulu, Hawaii 96817
주요용도	Church
건축면적	452m ²
연 면 적	612m ²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내부마감	Wood Board/Sheet, Gyp B.D, CLG,
외부마감	Duroce CEM panel, Granite Veneer, Sandwich Panel, Roof Tile
설계담당	한국부분설계 : 장순용(삼성건축 대표) 교회부분설계 : 박원철, 장병한, 우병규, 이승배, 이혜영, 조원성(서인건축)
현지설계	Paul Osumi
시 공 사	푸나루
설계기간	1996. 7. 30 ~ 1997. 1. 10
공사기간	2000. 5. 8 ~ 2006.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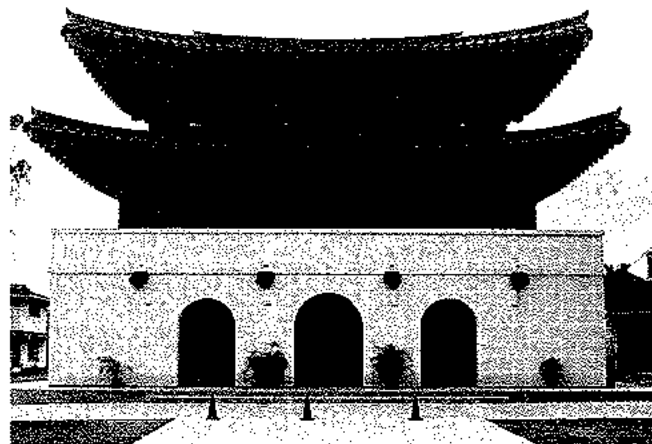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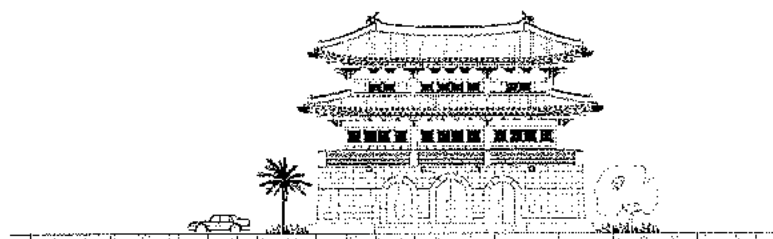
Location	1832 Liliha Street Honolulu, Hawaii 96817
Bldg area	452m ²
Gross floor area	612m ²
Structure	SRC
Bldg. Scale	F2
Design period	1996. 7. 30 ~ 1997. 1. 10
Construction period	2000. 5. 8 ~ 2006. 6. 3

1. 정문을 축에서 돌리다 볼
2. 축조와 결함주의 형태를 비교해 상상하게 재현하려고 함
3. 전통건축의 형태를 나타낸 정문과 실내 예배공간인 통로가 조경된 모습으로 축조해 그대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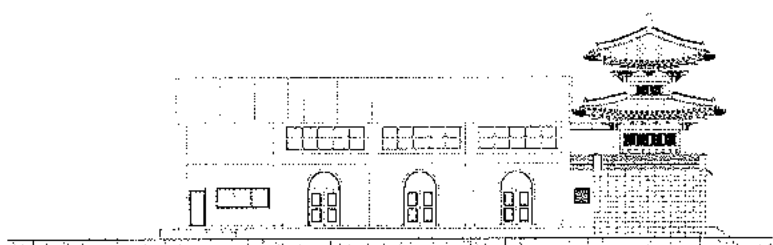
하와이한인교회는 초대대통령 이승만박사가 하와이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된 후 모국을 그리워하며 광화문 모습의 교회를 세워 예배를 보던 장소인데, 하와이에 기생하는 개미가 목조부분을 갉아먹어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교회는 한국교회와 달리 무리한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않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외의 이유로는, 한국전통목조건축을 하와이에서는 순수목구조를 인정하지않아 보조철물이 엄청나게 보완된 점,장애인을 위한 시설보안, 화재에 대한시설보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보완된 후에야 허가가 났다. 두번째는 한국 목구조 관련기술자들이 현지에서 정상적인 신분을 독하여 작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는 자금부족이 문제가 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시절 현지를 다녀간 정희경의원의 배려로 많은 액수의 정부보조가 주어 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문인 광화문의 설계는 삼성건축의 장순용 건축사가 담당해주었고, 정문후편에 있는 교회당은 우리가 담당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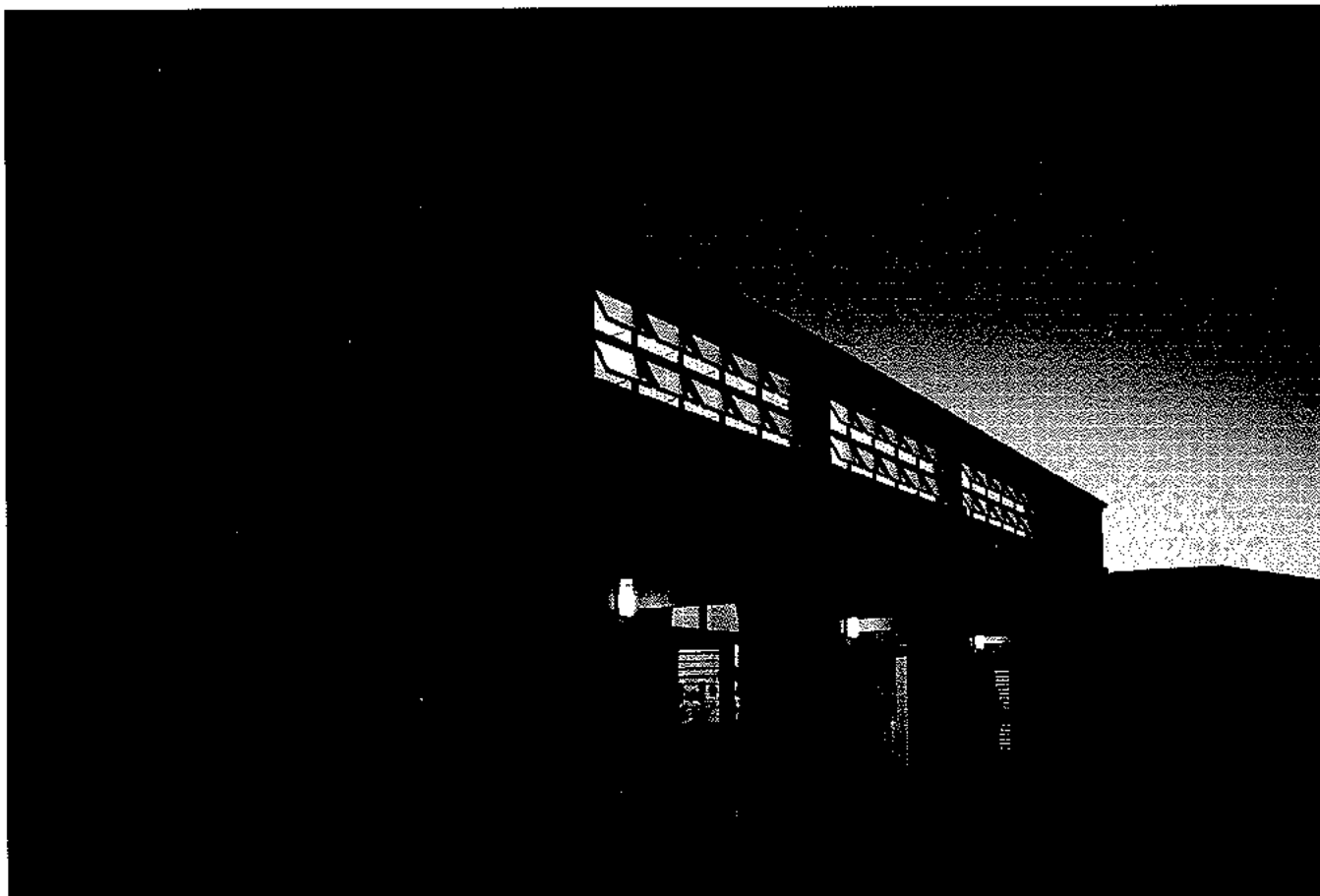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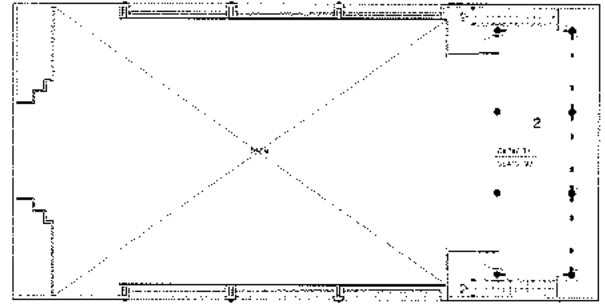


남쪽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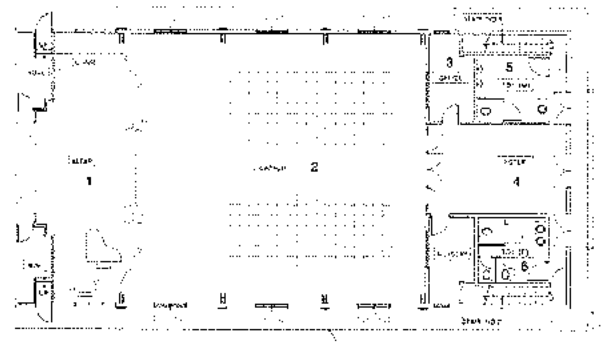


서쪽 입면도





2층 평면도



- 01_계단
- 02_신도실
- 03_사무실
- 04_로비
- 05_화장실(남)
- 06_화장실(여)

1. 이승만 총 44에서 본 예배당 복원도 이경근
2. 예배당 내부전경 모습, 궁궐 앞이 시멘트기둥 위한 장의 개머시장이
눈에 들어온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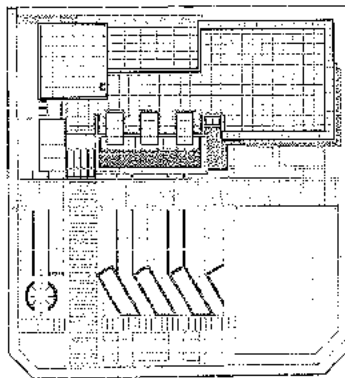
부산지방보훈청사

Busan Regional Office Patriots & Veterans Affairs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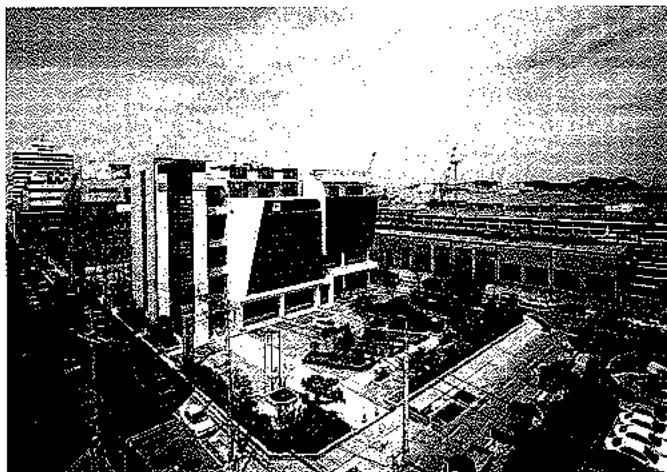
● 건축개요

1/100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4-1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2,689,30㎡
건축면적	852.07㎡
연면적	4,056.76㎡
건폐율	31.68%
용적률	119.98%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높이	26.8m
구조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설계담당	이학공, 이동경, 김동욱, 이옥주, 윤선경, 임유진
감리	(주)거성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아남종합건설주식회사
사진	바운후

0 3 6 12m



Location	74-1, Jungangdong4-ga, Jung-gu, Busan, Korea
Site area	2,689,30㎡
Bldg area	852.07㎡
Gross floor area	4,056.76㎡
Bldg. coverage ratio	31.68%
Gross floor ratio	119.98%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5

1. 원경
2. 건축전경

2004년 봄, 일이 들어올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손을 놀릴 수도 없고... 직원들의 계획능력의 향상에는 현상설계가 최고라는 평소의 고집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침서를 뒤적거렸다. 그런데 설계비가 턱없이 적었다. 그러나 적은 설계비에 비해서 공사비는 넉넉한 편이었다. 며칠을 고민 후 당선 후 건물이 완공되면 작품이라도 남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작업하여 제출하였다. 심사날도 까맣게 잊고 있는데 당선이라는 연락이 왔다.

주어진 space program에 비해 대지는 협소하지가 않았다. 다만 노후한 기존의 청사는 신청사가 완공되기까지만 사용하고 신청사 완공 후 철거하여 조정 및 별도의 필요시설로 설계하여야 하는 설계조건 때문에 건물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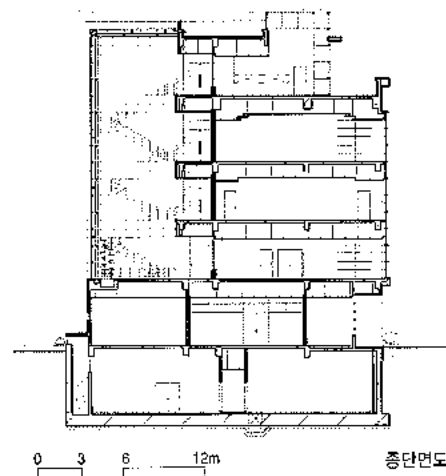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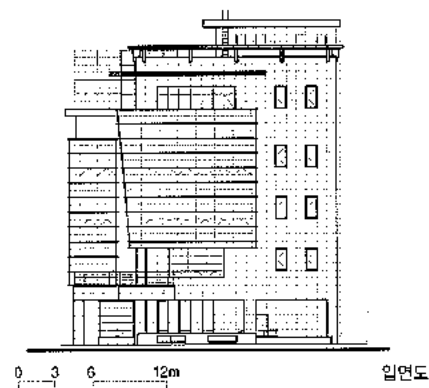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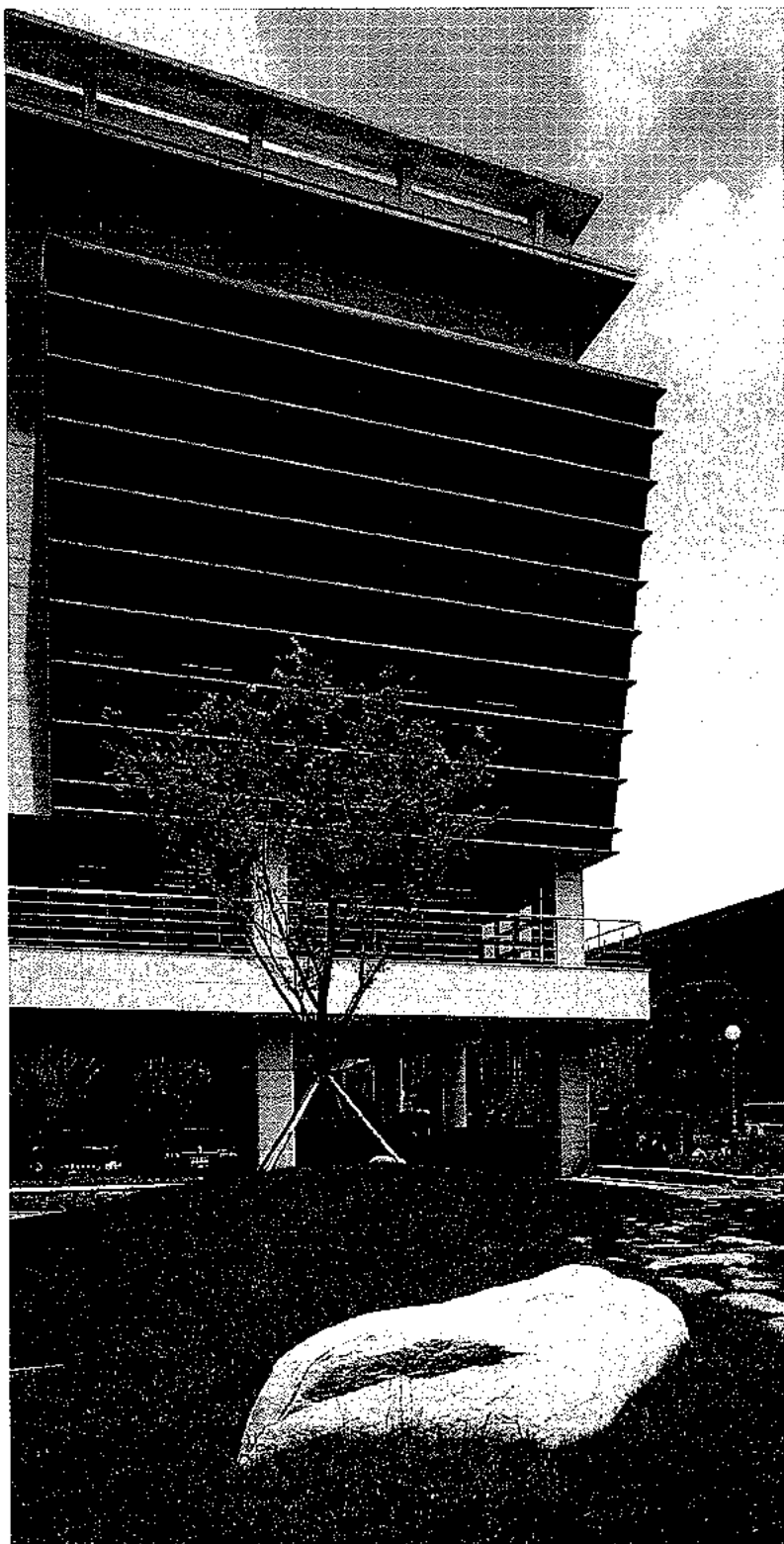
치는 조망권이 좋은 동서방향이 아닌 남북방향으로 배치할 수 밖에 없었다. 동으로 열려있는 버릴 수 없는 북향의 조망은 북쪽에 아뜨리움을 끼우고, 기능이 담겨있는 mass를 남쪽으로 밀어 조금이나마 확보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넓은 대지는 민원인(보훈가족)과 주변인들에게 휴식공간의 제공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었어 만족스럽다. 광장으로 진입이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출구를 많이 열어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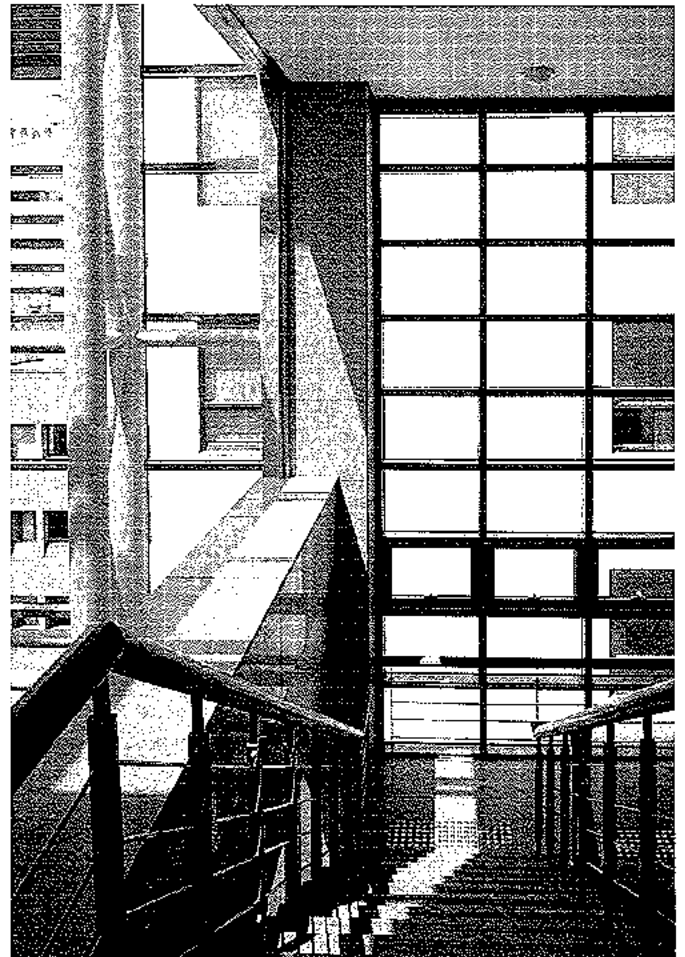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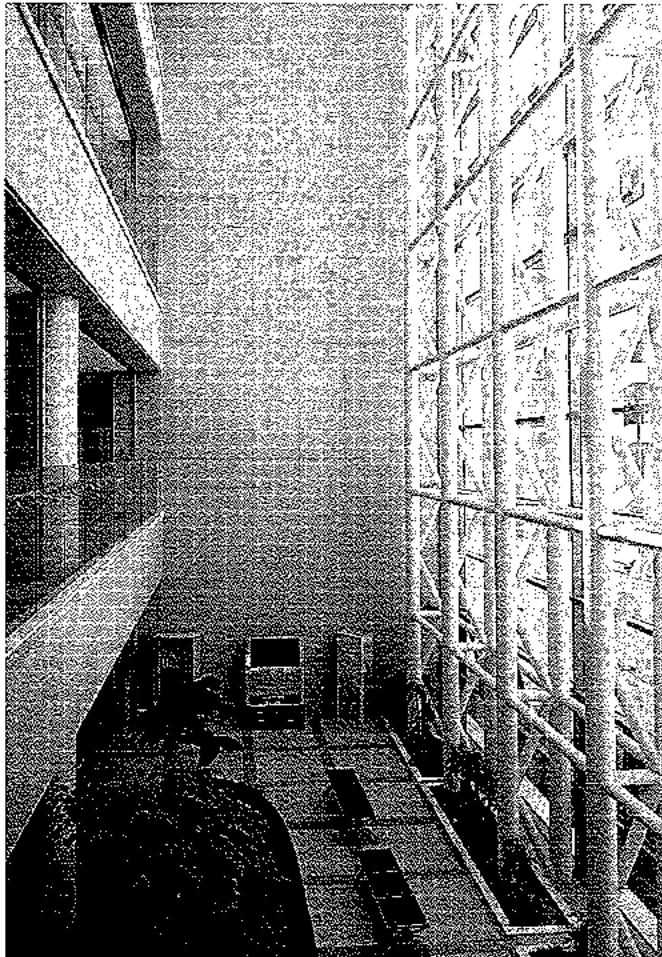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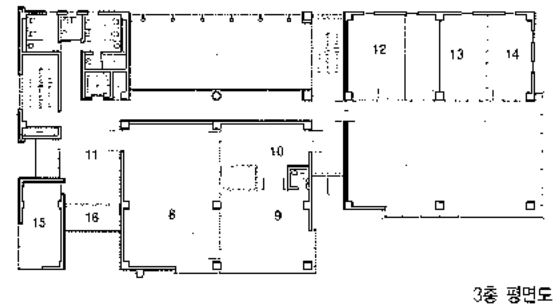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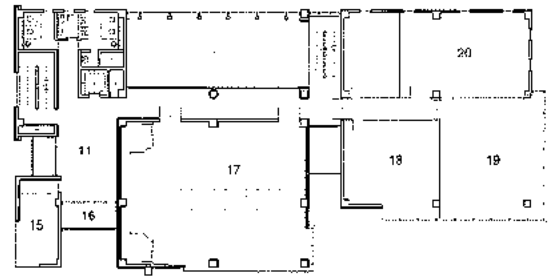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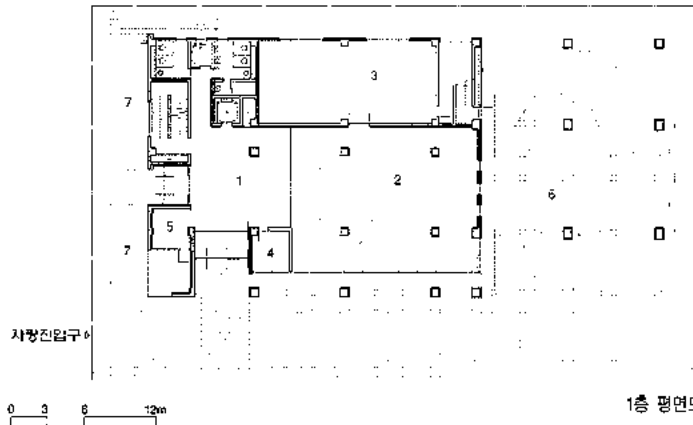
보훈청의 업무는 지도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과가 민원인(보훈가족)을 상대로 한다. 광장에서 2층 민원실로의 접근을 위한 연결 브릿지는 부득이하게 1층에 배치되지 못한 기능들의 불만을 그나마 해소시킬 수 있었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설치되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쉬웠다. ■



1. 입면도 (외관) 및 입면도
2. 입면도
3. 입면도
4. 입면도



- | | |
|----------|-----------|
| 01. 로비 | 11. 홀 |
| 02. 관리과 | 12. 대입견상 |
| 03. 정자력실 | 13. 문서보관실 |
| 04. MDF실 | 14. 소입견상 |
| 05. 안내실 | 15. 휴게실 |
| 06. 주차장 | 16. 데크 |
| 07. 조경 | 17. 대화의실 |
| 08. 소회의실 | 18. 행정자료실 |
| 09. 기관장실 | 19. 제적자력실 |
| 10. 부속실 | 20. 종합문서고 |



설계경기 | Competition

소암 현증화 기념관

Hyunjunghwa Memorial Hall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소암현증화 선생의 예술성을 재조명하고 향토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담 + 건축사사무소 아틀리에현(현군출)'의 안을, 우수작으로 '건축사사무소 한일'의 안을, 가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 반석건축 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담(김상연) +
건축사사무소 아틀리에현(현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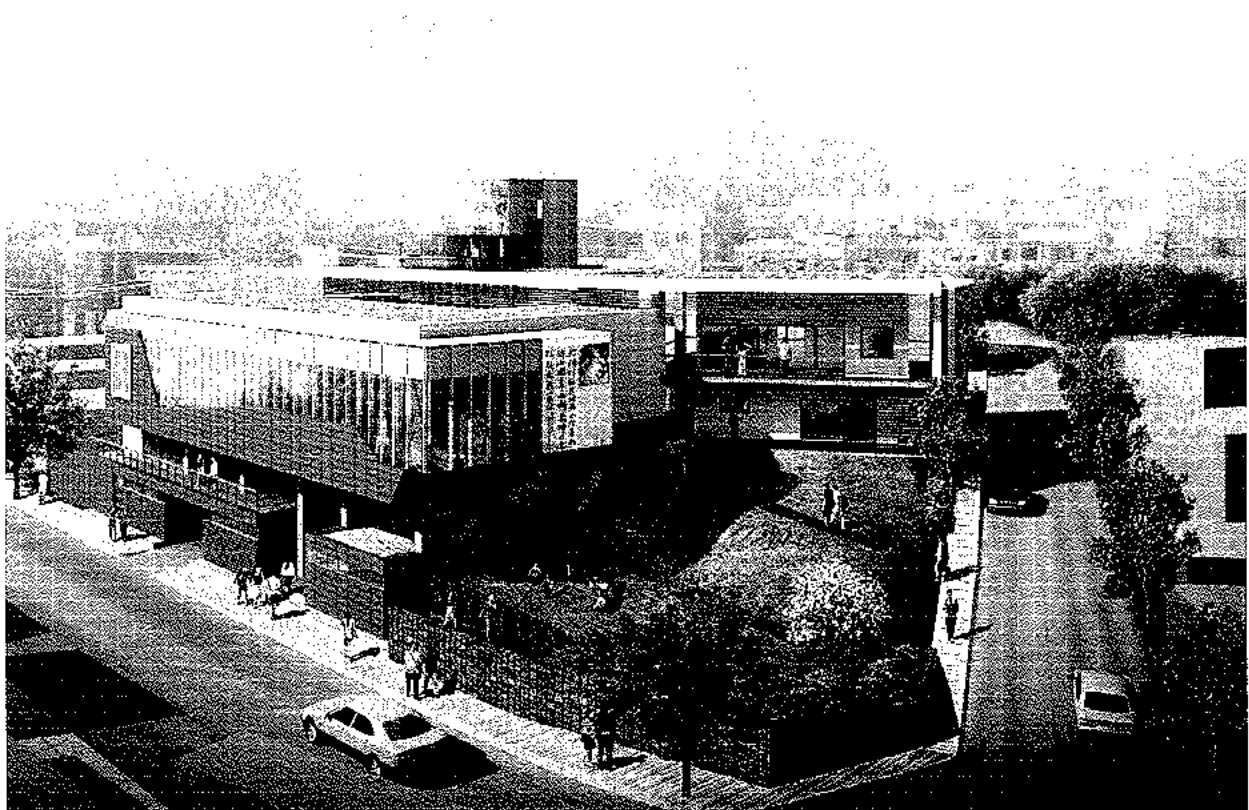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57-1전지 일원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주요용도 미술관
대지면적 1,474㎡
연 면 적 998.11㎡
건축면적 762.71㎡
건 폐 율 51.74%
용 적 율 58.91%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담건축 - 홍광택, 현아람
아틀리에건축 - 양희준, 백승민,
강경희

계획의 전제 - '대지의 시공간적 컨셉'
장소는 추상적이고 균질한 공간을 넘어 특정한 위치와 의미를 갖는다. 장소는 독특한 차별성이 있으며, 고유한 정신을 갖는다. 소암선생이 작품활동을 하였던 조범산방은 소암 현증화선생의 정신, 예술 혼이 깃들여 있는 장소이다. 소암 현증화선생의 예술 혼을 재조명하고, 이중섭 미술관, 기당미술관, 방문객 센터, 서북전시관과 연계된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를 실현하고자 한다.

배치계획의 전제 - '자연' 그리고 '소통'
도심내의 자연과 건축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소화롭게 공존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대지 내의 모든 맥락적 요소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맥락적 요소들은 필터링 작업을 통해 건축 프로그램속에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게 되었다.

평면계획의 전제

팽나무, 매화나무, 서귀포 앞바다, 후원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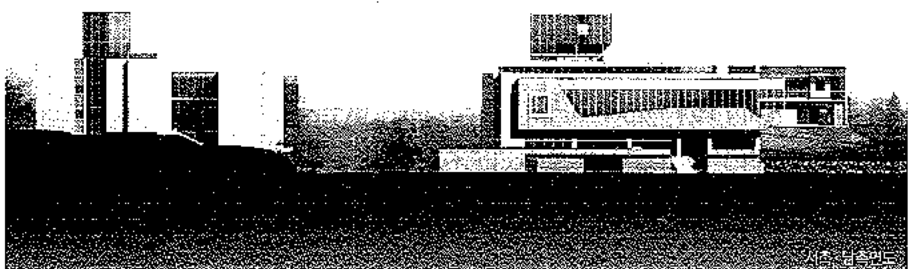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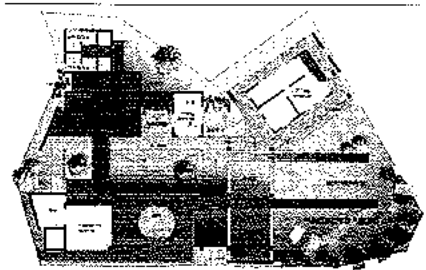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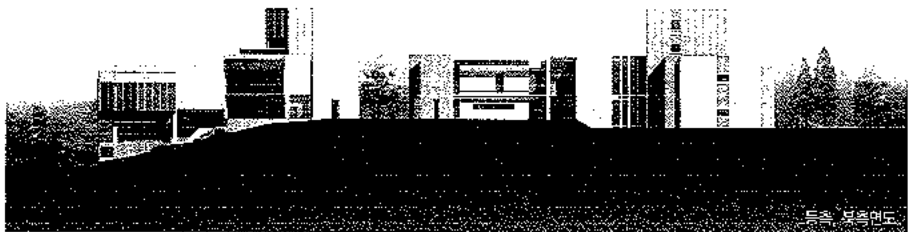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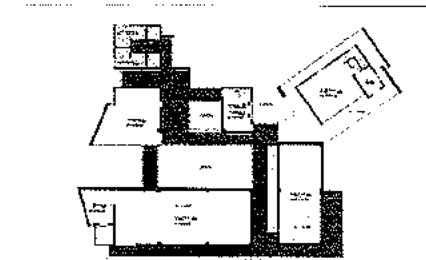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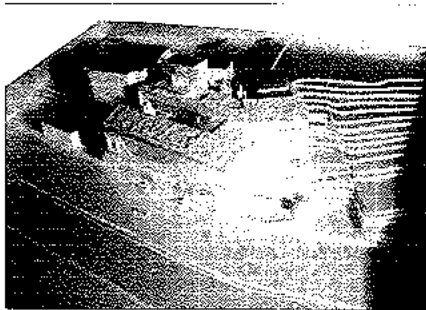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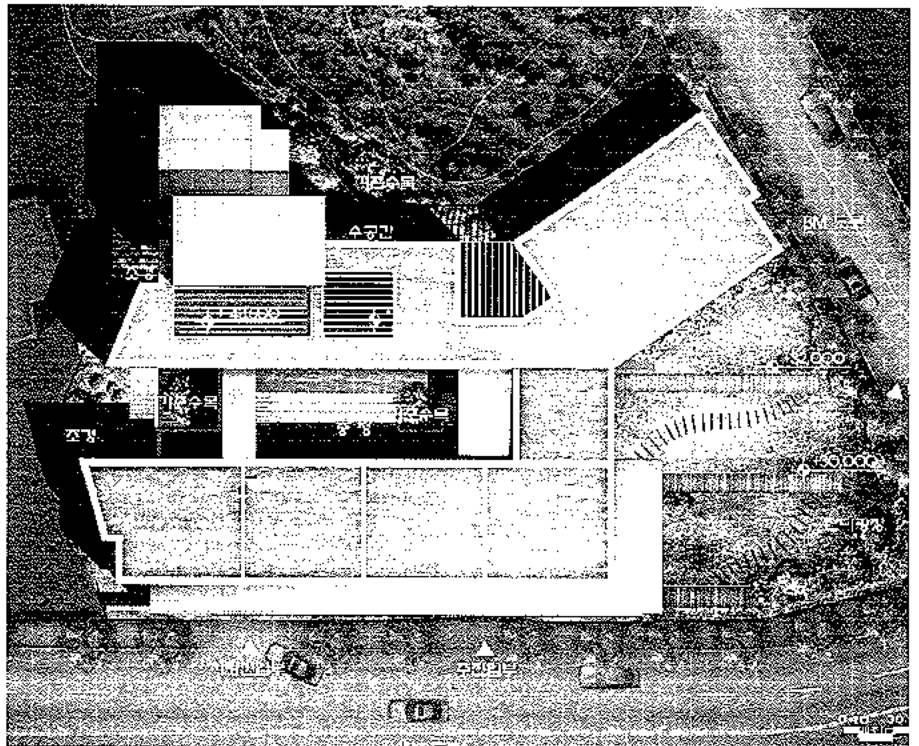


나무 숲, 청명한 서귀포 하늘과 소암 선생의 예술혼을 공간적 흐름을 통해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을 중심으로 한 연속된 공간으로 형성하고, 연속된 흐름의 과정 과정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하나의 형식을 갖게 된다.

- 전시 영역 : 통합된 오픈 플랜 전시 시스템은 상설, 기획, 행사 등 다양한 전시 요구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
- 교육 영역 : 교육, 세미나, 체험 학습등 열린 미술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
- 수장 영역 : 전시실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였고, 별도의 작업공간을 확보
- 관리 영역 : 독립성 확보 및 관리의 효율성에 맞추어 계획

단면 계획의 전체

장소의 혼적과 자연 그리고 기념관은 공간의 위계를 통하여 질서를 갖고, 과정적인 공간으로의 연출은 기, 승, 전, 절의 형식을 통하여 의미를 갖는다.



소암 현대화 기념관

Hyunjaehwa Memorial Hall

우수작 / 건축사무소 한일(김문수)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57-1
번지 외 6필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기념관)

대지면적 1,474.00㎡

연 면 적 1,160.79㎡

건축면적 798.45㎡

건 폐 율 54.17%

용 적 율 78.75%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시설 야외전시필로티홀, 프린팅접합유리전시
마당, 야생화경시마당, 계단객석마당,
선문마당, 반사연못

설계담당 김문수, 고만성, 고시원, 양창렬, 이상훈,
임마령

계획기본개념

- 기운생동(氣韻生動): '움동적인 조화'와 '생명
의 움직임'이라는 두개의 개념이 결합된 것
으로 서화의 절대적인 가치기준이다. 소암의
가치성 즉 서예술의 품격은 '기운'의 문제로
남는다.
- 소산쇄락(蕭散灑落): 소암의 서체는 간략함을
위주로 하지만 서체의 아름다움은 무궁무진하
다. 이처럼 꾸밈을 일삼지 않고 자연스러운 기운
에 깊은 묘취가 있음을 '소산쇄락'이라고 한다.
- 법고창신(法古創新): 서예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의 정신
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 옛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 냈던 소암의
꾸준한 발자취는 단순한 먹의 한 빛깔과 선과
점의 영감적 조화로서 문자의 의미로 정신을
전달하는 새로운 예술성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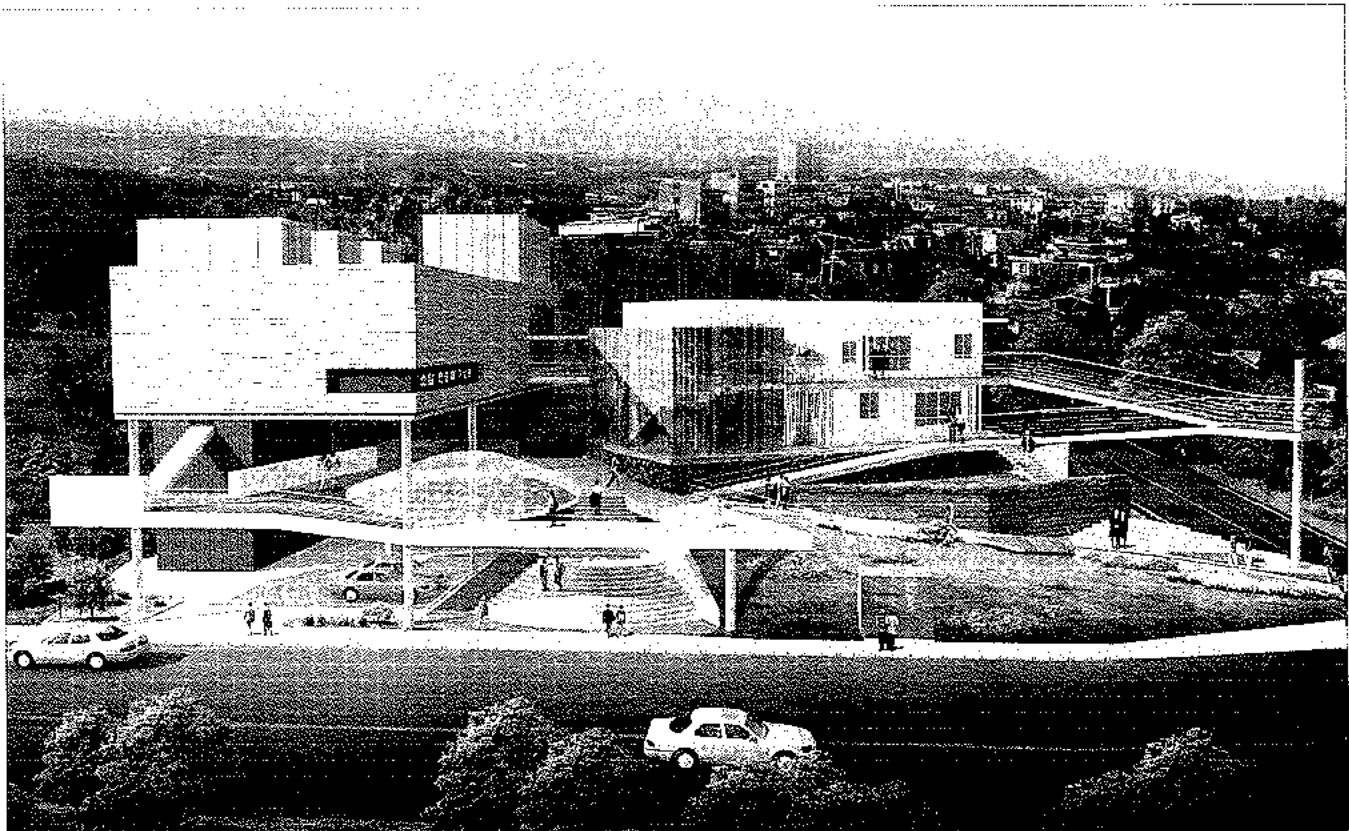
계획기본방향

- 소암정신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 + 시대성에
따른 소암정신의 지속성을 극대화
- 소암작품의 배경, 풍경으로서의 건축 + 사유
의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 시민문화예술공동체로서의 개방형 프로그램
+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의 길과 마당
- 건축적조경(Architectural Landscape) + 지
역문화예술관광벨트의 산책로
- 대지지형자체의 내재된 흐름 + 소암전시, 기
념공간의 기능적 관계의 흐름
- 기존 소암생가의 리노베이션 + 소암기념관의
현재와 과거의 적극적인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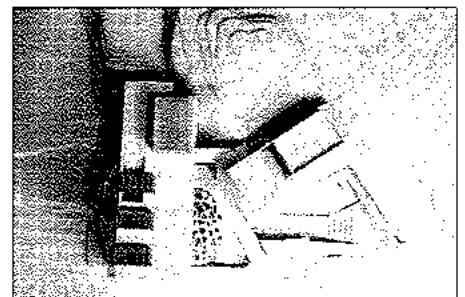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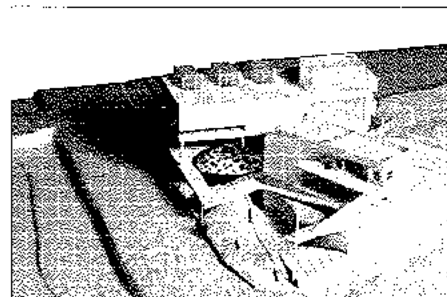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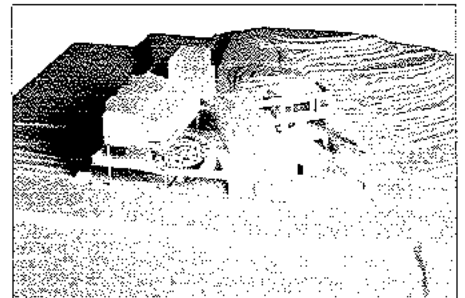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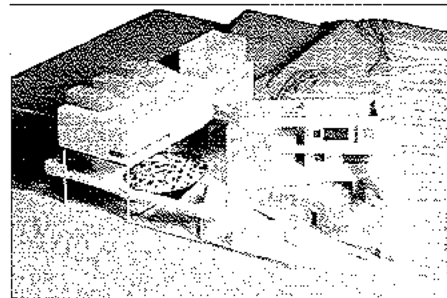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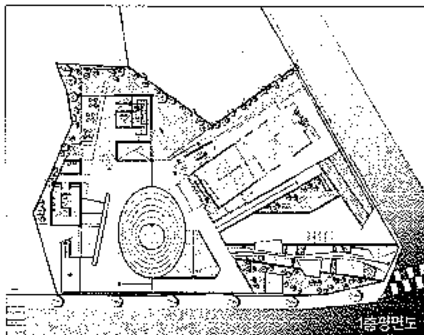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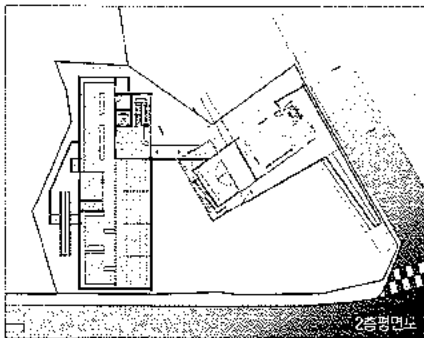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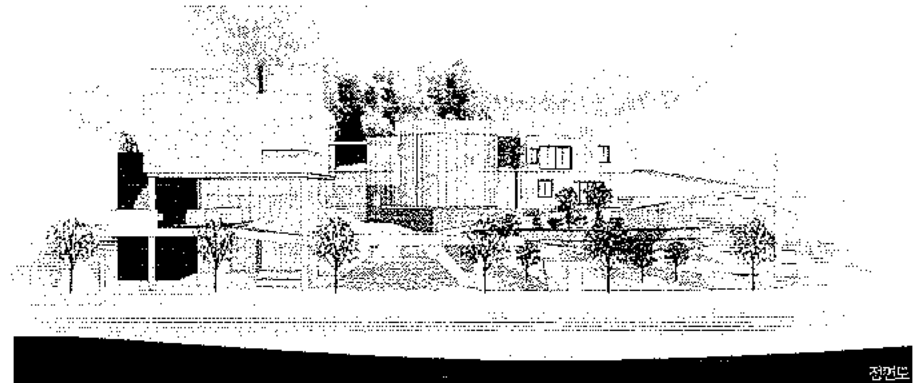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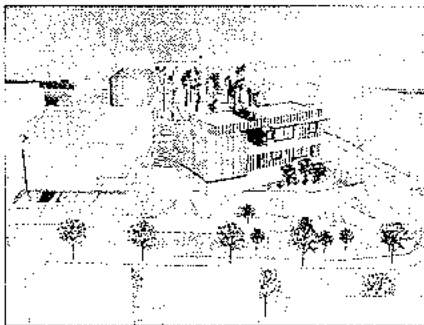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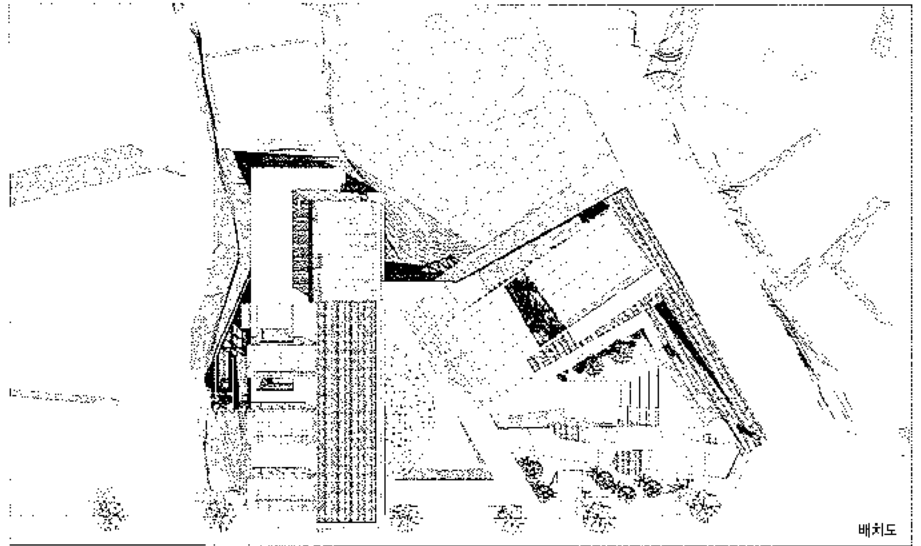
공간구성계획

- 기념관 부지 전체를 시민문화예술공동체의 장
으로 해석, 수평적인, 수직적인 동선의 연
결을 수용하는 여러 갈래의 길과 마당을 장치,
내외부 공간에 걸쳐 즐겁게 움직이는 사람들
로 인해 살아있는 입면을 형성, 기념관을 활성화
시켜 소암정신의 지속성을 구현
- 도시의 가로변에서 길의 연장으로서 자연스럽
게 소암기념관을 향한 압제적인 인공대지의
흐름을 구축, 진입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부여
하고, 깊이감을 최대한 부각, 도시와 건축이 서
로 소통 가능한 총체적인 랜드스케이프 개념
을 도입하여 공간적 흐름을 확장
- 대나무숲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대지의 원지



형이 기념관과 기존 소암생가의 사이공간을 거쳐 도로변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게 함으로써 대지 원지형의 흔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도시가로와 기념관과 기존 소암생가와 대나무숲(자연)의 시대성과 관계성을 인식

- 긴 경사로, 브릿지, 야외전시필로티홀, 프런팅 접합유리전시동산, 길과 마당, 사어공간, 대나무숲, 내외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 등 사공간 이동에 따라 동선의 흐름이 형성하는 건축적인 풍경들, 장소의 경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소암기념관의 새로운 장소성을 확보
-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열린 공동체를 위해 의도적으로 비운 다양한 성격, 다양한 크기의 내외부로 확장되는 여백의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이 새롭게 재해석됨에 따라 새롭게 진화하는 공간의 가능성을 부여.



소암 선생의 기념관 Kyunjonghwang Memorial Hall

가작 / 건축사사무소 신건축(양영진) + 반석건축
건축사사무소(문석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57-1
번지 일원

지역지구 1종 일반주거 주거 및 문화시설 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474.00㎡

건축면적 544.65㎡

연 면 적 1,136.44㎡

건 폐 율 36.10%

용 적 륜 59.76%

규 모 지하층, 지상2층

외부마감 THK30 압출성형시멘트판,
THK 칼라복층유리, THK30 제주석

설계담당 신건축- 윤승민, 김순표, 김창홍
반석건축- 안혜숙, 이승미

기본방향

- 소암선생의 겸약한 정신을 절제된 매스로 표현하고, 수평성을 강조하여 기념관적 특성을 충족시킨다.
- 경사지형을 살리고, 조범산방(眺帆山房)의 조망을 보존한다.
- 주변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적 연계를 고려해 서귀포의 문화네트워크를 극대화시키고, 인근의 사회, 교육 context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가변형공간의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에도 기여한다.
- 소암선생의 옛 자택을 보존하고, 추후 인접공원 예정지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다.

배치계획

- 대지, 도로, 경관축을 고려하고, 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배치를 유도
- 경사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레벨에서의 자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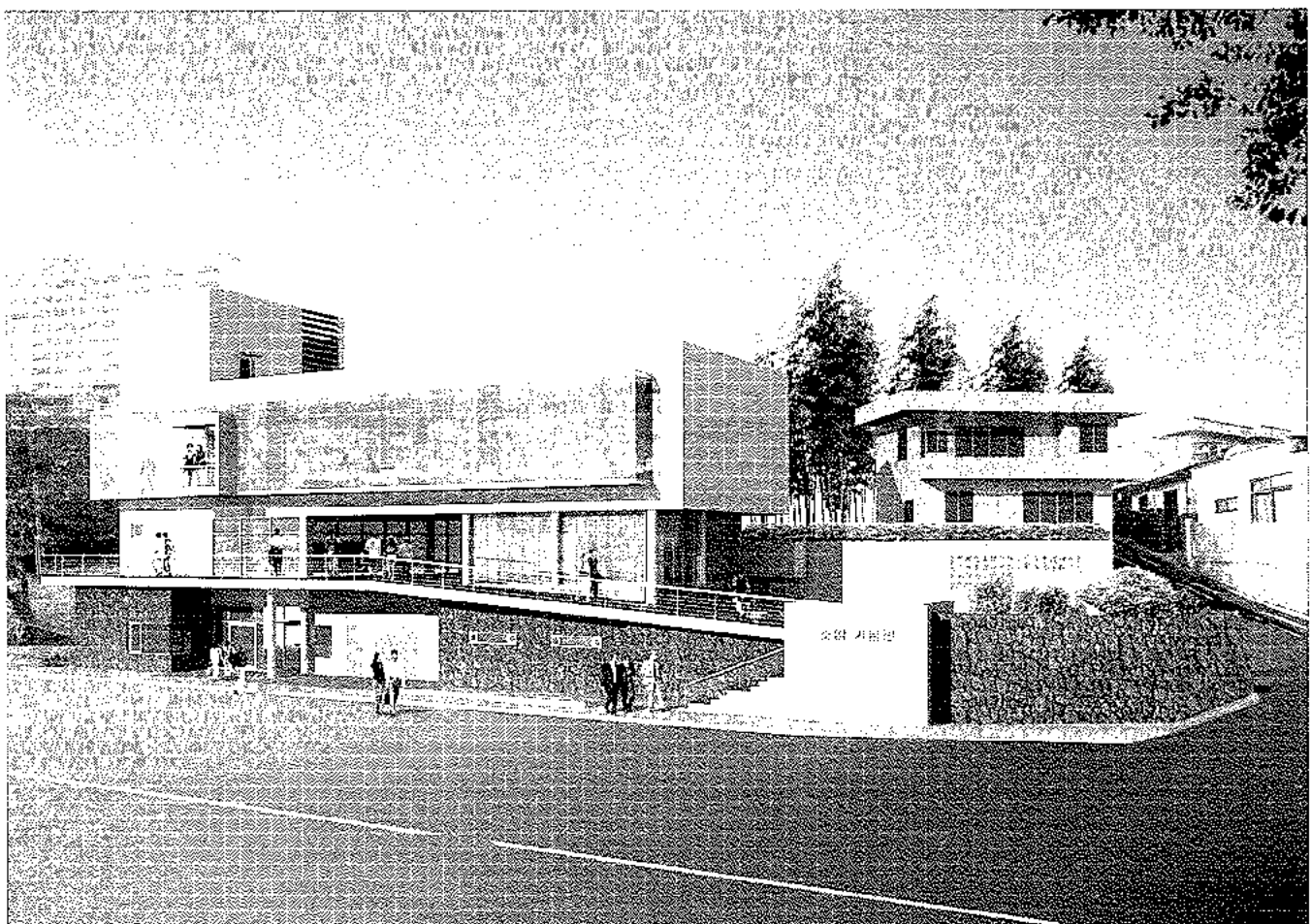
러운 진입을 유도시키고 소암 마당을 중심으로 내·외부간의 상호연계성을 확보

평면계획

- 기능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수평·수직의 조닝체계 확보
- 적절한 모듈 사용으로 각 공간의 특성에 원할히 대응하고 공간의 가변성에 부합
- 조범산방의 조망을 고려한 실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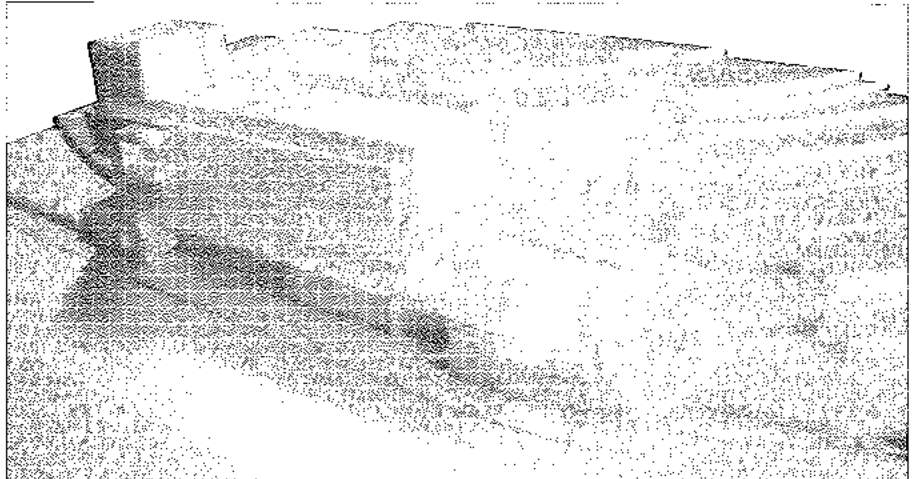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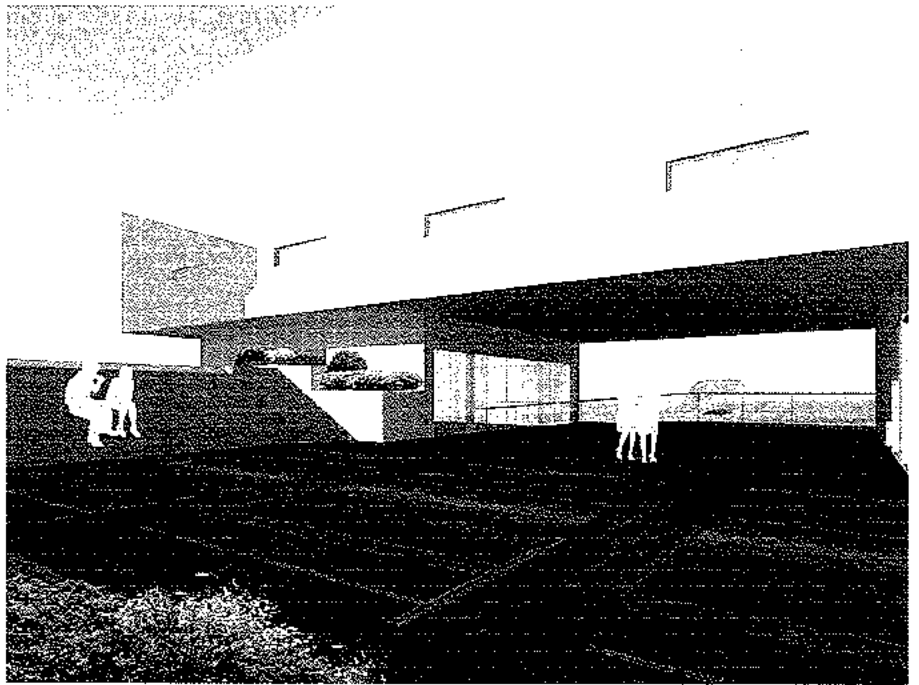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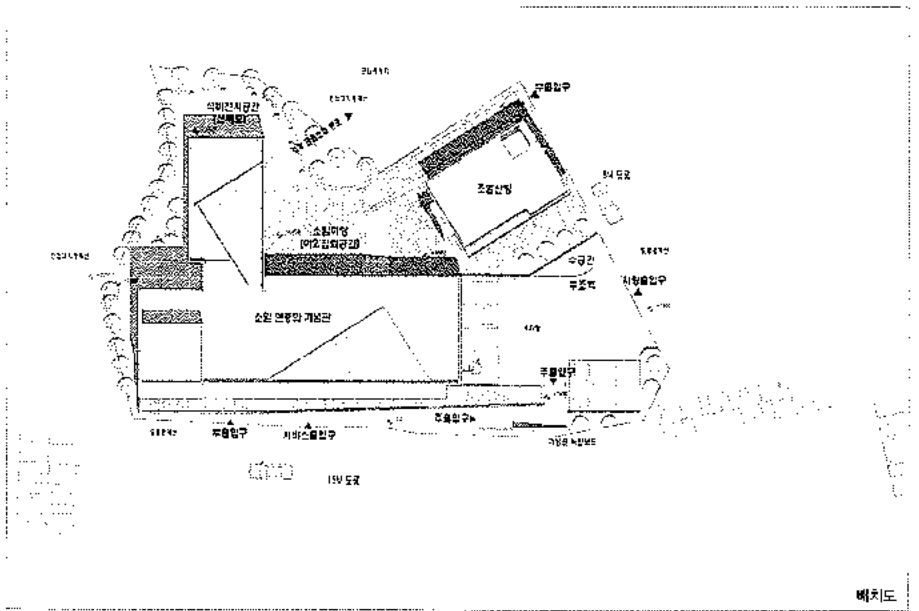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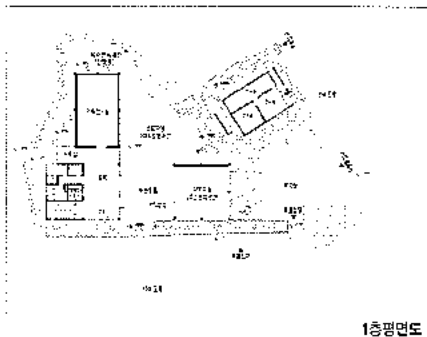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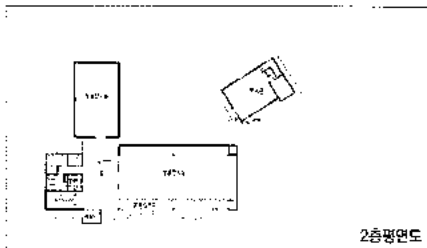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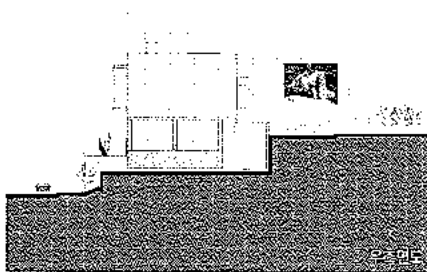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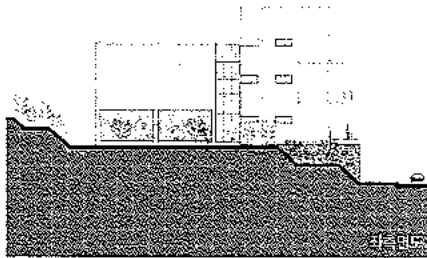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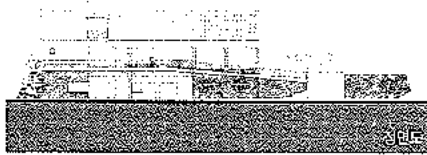
입면계획

- 상징성 : 소암선생의 인품을 담아 소박하고 겸약한 표현
- 조화 : 수평적 요소에 따른 형태적 안정감과 공간의 친밀감을 강조하고, 시설의 성격과 주변 경관(바다)을 고려한 절제된 외장 계획
- 비움과 채움을 통한 공간감 확보
- 질감의 대비를 통한 인지성 확보



단면계획

-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
- 지형에 대응하는 zone의 분리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킴
- 자연스러운 경관시야의 연속성을 확보함
- 시설위계와 단계로 구분되는 영역체계, 경관을 고려한 수평적 구성을 통해 skyline개선



설계경기 | Competition

양산시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Yangsan City National Sports Center & Municipal Library

양산시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높아져가는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 충족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시민 학습공간 제공 및 다양한 문화컨텐츠 확보를 위해 첨단 시설을 갖춘 전문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을 건립코자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 안을 가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안과 '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임장열, 최근호)

•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대지위치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90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7,069㎡
연 면 적 7,345.35㎡
건축면적 4,670.35㎡
건 폐 율 17.25%
용 적 율 26.16%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층 수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ACA복합판넬, 세라믹타일, 복층유리
주차개요 자상주차 145대(장애인주차 5대 포함)

• 양산시 시립도서관

대지면적 17,031㎡
연 면 적 6,978.30㎡
건축면적 2,069.18㎡
건 폐 율 12.27%
용 적 율 34.73%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층 수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ACA복합판넬, 세라믹타일, 복층유리
주차개요 자상주차 95대(장애인주차 3대 포함)
설계담당 이영근, 김 남, 조현덕, 김민수,
홍동연, 임지혁, 오동준, 민정환

•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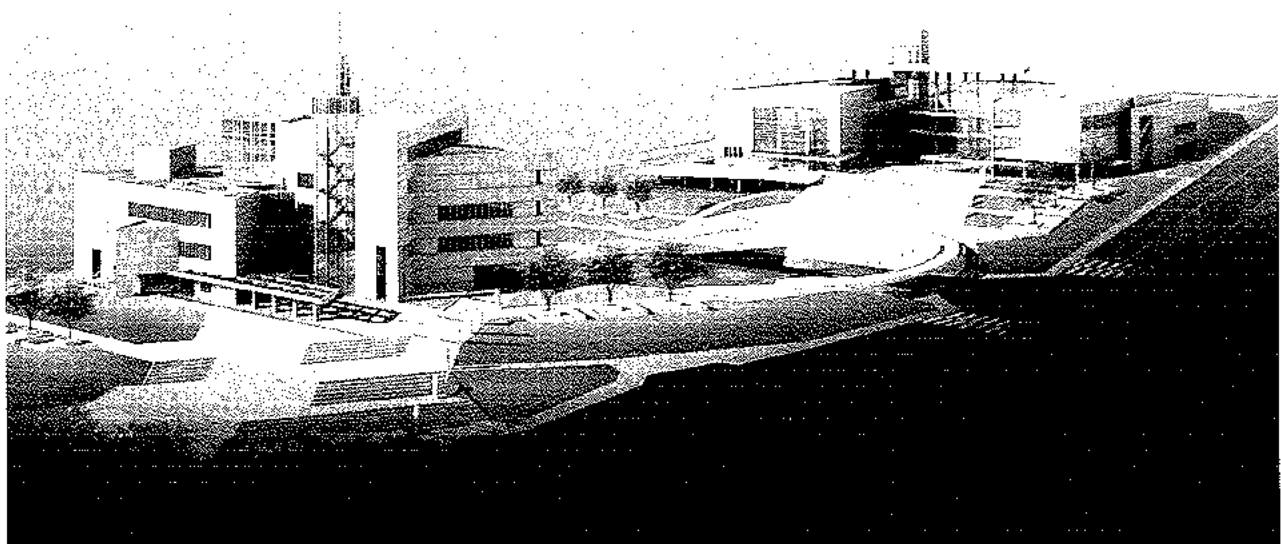
도시는 그 구성요소 안에 존재한다. 우리의 우주는 미지의 거대한 존재 내부의 아주 작은 부분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도 무한히 많은 소유주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도시속에서 잘 어울리는 건축이 되고 그 속에서 양산시를 발견하게 되는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의 작은 도시의 이미지인 것이다.

• 자연

논밭을 터전으로 하던 물금에 어제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니 땅은 흙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이고 하늘은 고층건물이 들어서 어디서든지 한눈에 시원스레 보이던 물금 읍의 옛 모습이 이제는 애써 오봉산을 올라야만 가능해졌다. 흙냄새 바람냄새가 가까운 원래의 물금을 오봉산 끝자락에서 신도시를 향해 신도시의 허파구실을 하는 문으로, 그 문을 향해 가는 길로 재생한다.

• 길(도시와 자연의 연결)

도시에서 길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을 말한다. 모든 건물은 길에 연결 되어 있고 모든 건축적 공간은 길 위에 연속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뛰어 놀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고 행사가 벌어지고 축제의 행렬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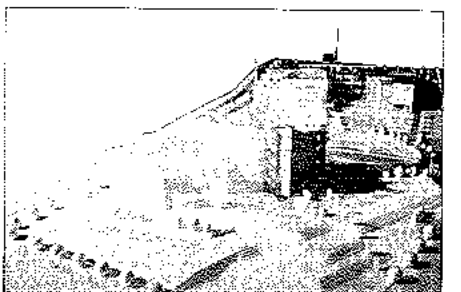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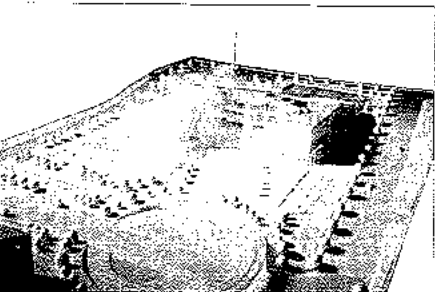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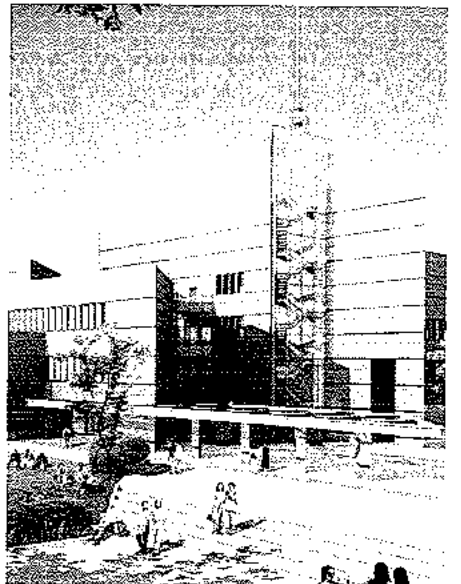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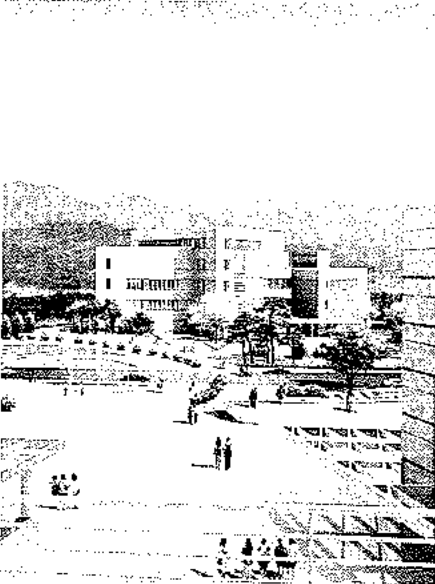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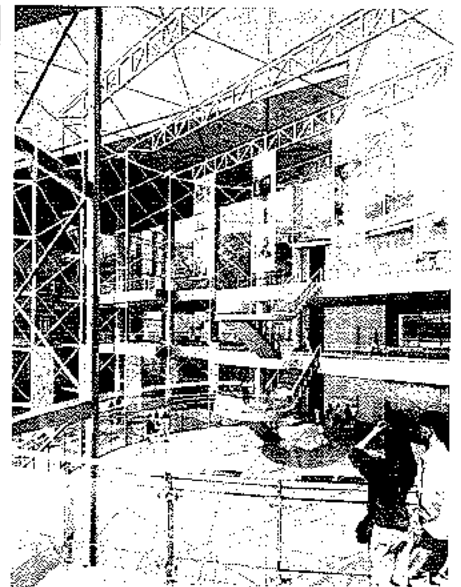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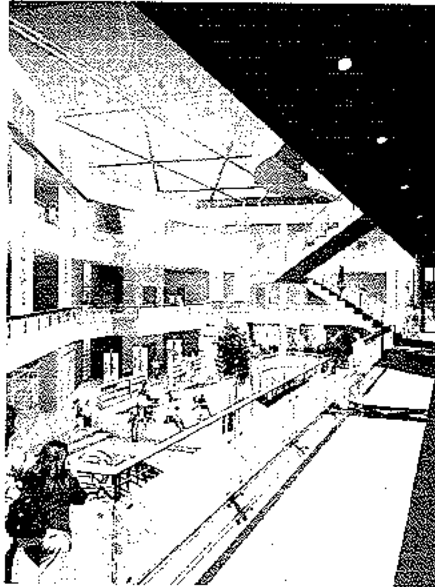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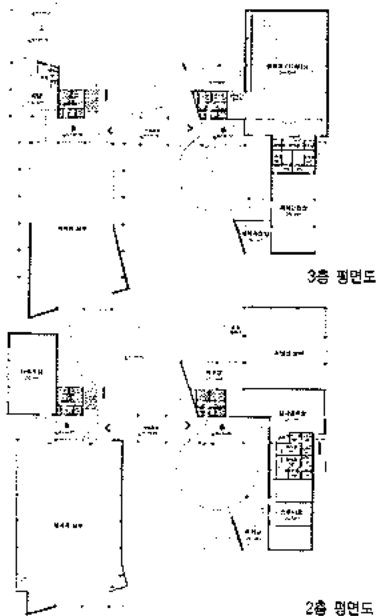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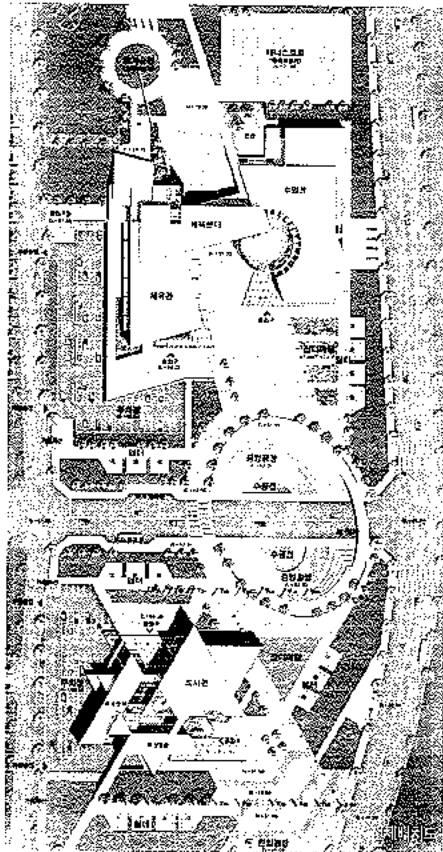


투어 지는 등 공적인 기능으로서의 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적인 추억과 감성이 담겨있는 곳이다. 또한 모두의 공통적인 공감요소를 가지는 곳이기도 하다. 공공시설로서의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길이라는 공통적인 공감요소를 통해 담아서 길이라는 매개공간을 통하여 도시와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 길 위의 오브제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은 신도시의 끝자락이자 오봉산과 만나는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양산의 도시 축, 물금신도시 축을 사용하여 배치·평면 공간에 도시적인 상징성을 부여하며 신도시 방향에서 진입시 길의 연속적인 흐름을 시설의 내부로 끌어들이고 그 길 위에 두

공공시설을 잇는 중앙광장, 수공간, 연결브릿지, 또 각각의 진입광장, 뒷마당 등 여러 이벤트를 수용할 다양한 외부공간들을 설치하여 양산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서 걷고 싶은 거리,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의 길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양산시국민체육센터 및 시민도서관 Yangsan City National Sports Center & Municipal Library

우수작 / (주)삼원종합건축사 사무소(윤철준)

•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대지위치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90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7,069㎡
건축면적 4,414.10㎡
연면적 7,339.52㎡
건폐율 16.31%
용적율 17.77%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양산시 시민도서관

대지면적 17,031㎡
건축면적 2,438.78㎡
연면적 6,965.87㎡
건폐율 14.32%
용적율 38.80%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설계담당 김진구, 김갑부, 김동희, 김찬기, 박중호,
박재영, 성모경, 이상영, 윤성식

● 기존 부지레벨을 이용한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

- 국민체육회관

남동측 20m 주진입도로로부터 북서측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기존 계단형 부지 레벨을 그대로 이용한 토지이용 계획.

- 시민도서관

계획도로와의 레벨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부지 레벨 계획.
도서관 부지 북서측에서 두 부지 사이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로부터의 시각적 개방감과 인지를 고려한 도로변 부지 레벨 조정(부지레벨을 이용한 데크주차 및 외부공간).

●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두 대지간의 연결성

을 고려한 외부공간의 소공원화 계획.

- 진입마당의 연결

- 두 대지간을 연결하는 진입공간 계획으로 단지 전체에 대한 진입 동선의 연계(상징적 보행축)

- 외부공간의 연결(소공원화)

진입도로변 소공원화된 외부공간, 패턴 및 각종 조형 요소를 통한 연결성 극대화

- 주차공간의 연결

주차출입구 연결 Zoning과 부지레벨을 이용한 주차장 계획

■ 국민체육센터

- 부지 전체에 대한 Master Plan 계획.

주변 여건(자연, 도시)과의 조화 추구, 시립도서관과의 조화, 버스 배치의 연계성, 보행 접근동선 및 차량 동선의 연계성, 외부 공간의 연계성, 기존 부지 레벨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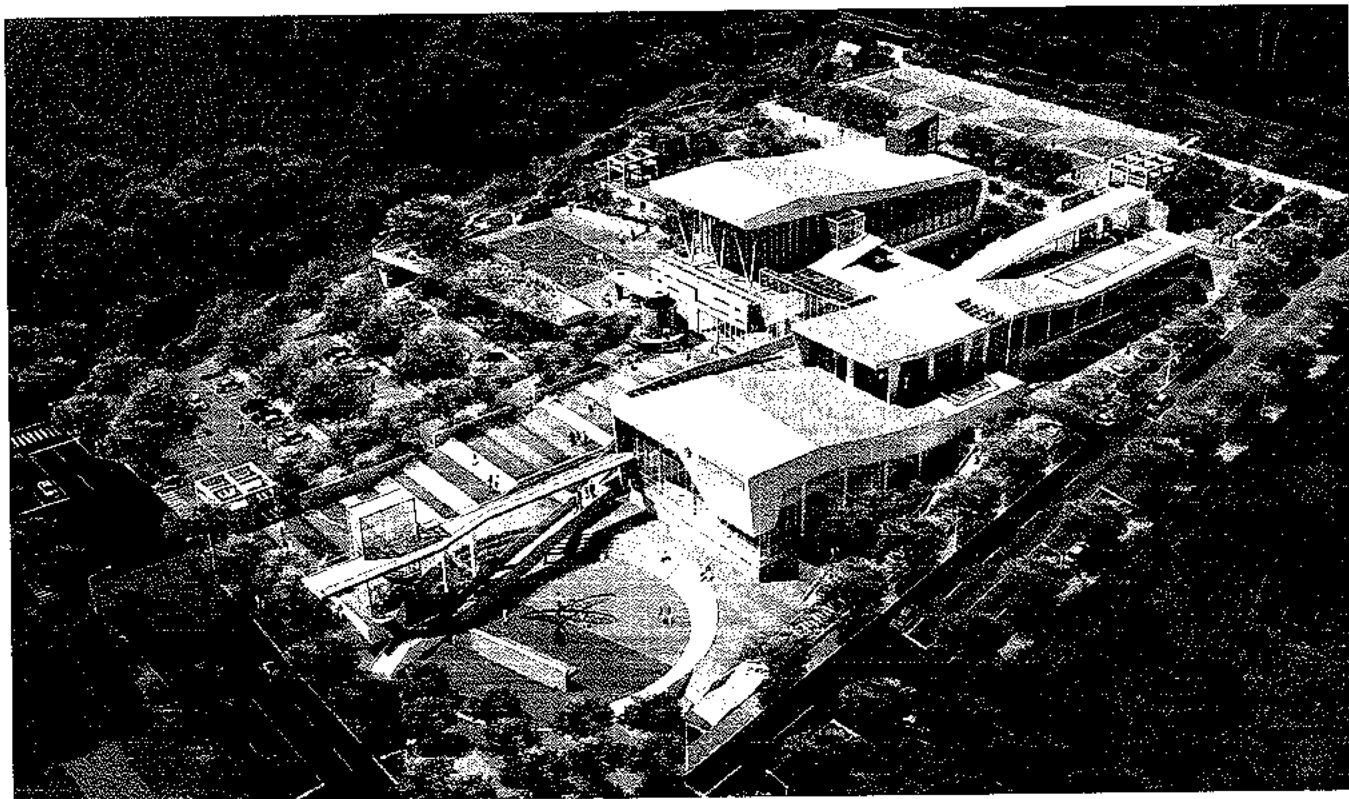
동쪽에서 서쪽으로 20m 이상의 지형변화가 (약 3.5m에서 7.7m 정도의 높이차이로 4단) 있는 기존 계단형 부지 레벨에 순응하는 버스, 레벨 차이를 자연스러운 외부공간으로 활용, 다양한 외부 휴게공간 및 옥외 체육시설 계획 하였다.

• 평면계획

- 지하1층 - 사무실, 수영장, 말의실, 기계, 전기실 국민체육센터의 주출입층으로 수영장 및 관리/지원시설 Zone이며,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로비에 근접하여 사무실을 계획하였다.

시각적으로 열린 수영장을 배스를 통해 주변을 향한 개방감있는 수영장을 계획하였다.

- 지상1층 - 볼링장, 스키시, 탁구장, 실내골프장 배스 중앙부 Main Core를 중심으로 각 내부 프로그램의 독립 Zoning.



Main Core에 연결되어 어린이 놀이방, 스포츠 용품점, 식당 다목적실 등의 공용시설을 배치
다목적실은 다양한 스포츠 관련 강좌 및 강습
실로 Zoning했다.

- 지상2층 -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핸드볼 경기장 규격이상 설치와 자연채광의 적
극적인 도입으로 다양한 실내 체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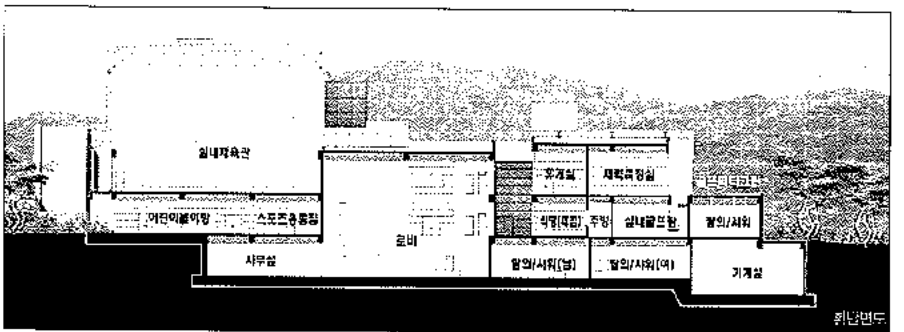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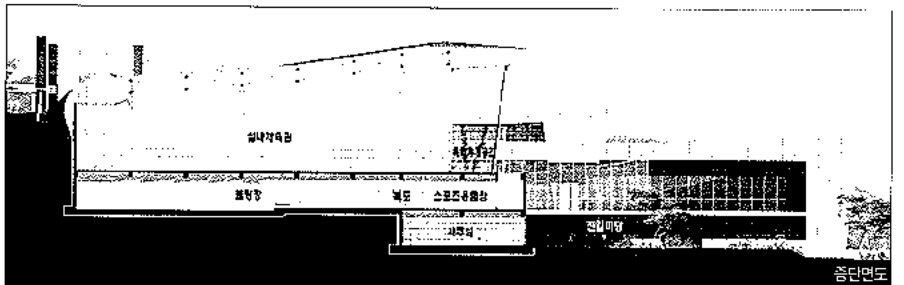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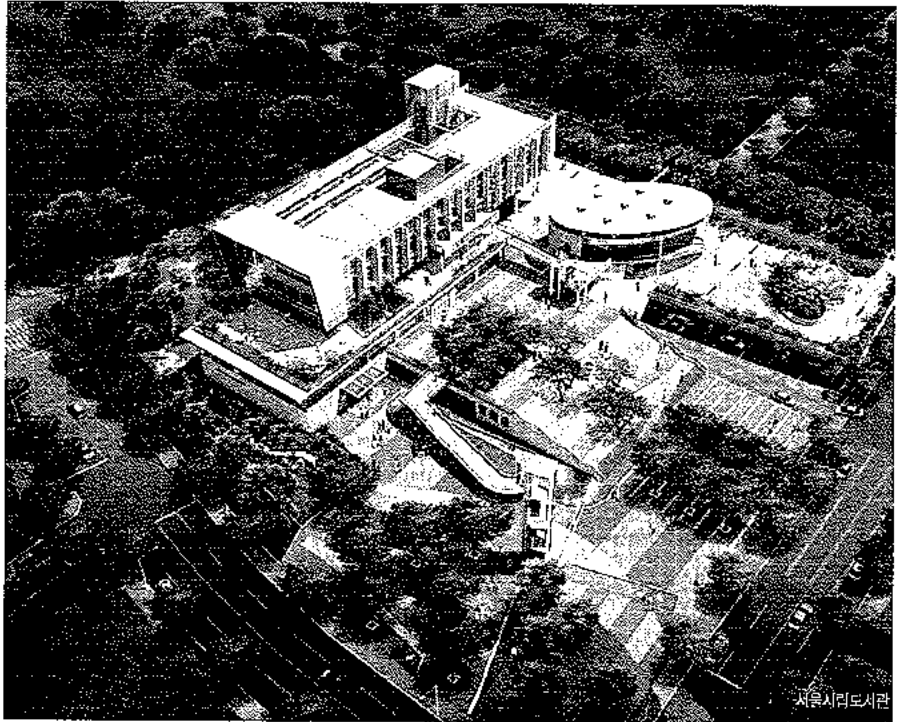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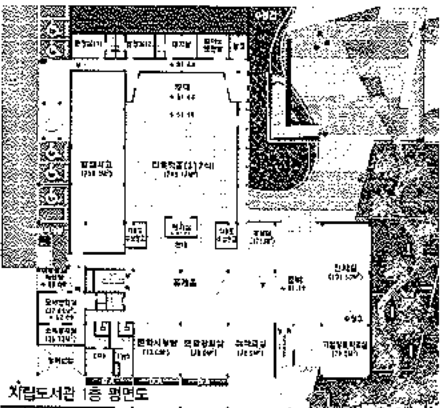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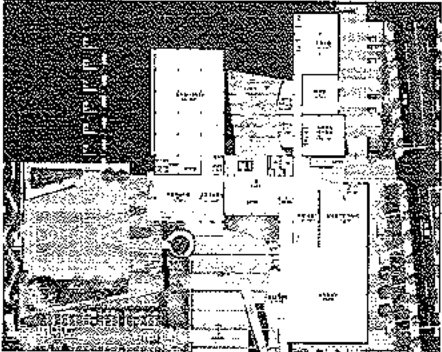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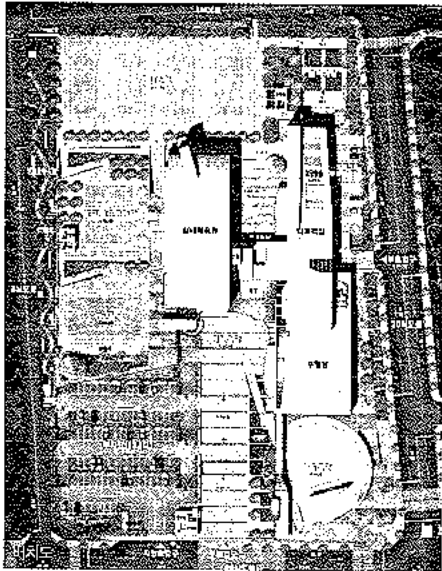
및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
다양한 데크 형태의 옥외 휴게공간연결 계획으
로 대규모 내부 공간에 공간의 개방감 및 확장
성과 실 사용상의 융통성 확보.

■ 시립도서관

- 체육센터와의 조화를 이룬 매스 배치의 연결

성, 보행 접근동선 및 차량동선의 연계성과 외
부공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 기존 부지 레벨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계획
높이 차이를 활용한 데크하부주차와 데크상부
외부휴게공간을 계획 하였다.



양산시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Yangsan City National Sports Center &
Municipal Library

가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심재호, 김영홍)

•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대지위치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90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7,065㎡

건축면적 4,776.40㎡

연면적 7,310.60㎡

건폐율 17.65%

용적율 23.42%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 양산시 시립도서관

대지면적 17,031㎡

건축면적 2,289.17㎡

연면적 6,881.24㎡

건폐율 13.43%

용적율 33.17%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설계담당 박현규, 권오상, 성태원, 한정훈, 이관형

둘이어야 하지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곳

- Oneness

양산시에 새로 들어서게 될 체육센터 및 도서관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프로젝트이다. 동적공간의 체육센터와 정적공간의 도서관은 Dynamic한 조화를 통해 양산시의 역동적인 미래상을 표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오봉산 자락에 놓이게 된다.

대지는 오봉산과 물금신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Eco Valley의 역할을 하게 되며, 기존 군시설 부지로서 자연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에 자연의 회복과 치유가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연의 흐름을 이용해 두 대지를 하나의 통합축으로 이어주고 신도시를 향해 열어줌으로, 설계 지침에 대한 충실한 대응과 두 프로그램 사이의 공간적 통합을 이루었다.

산 자락의 기운이 넘쳐나는 곳

-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Mass를 두개로 분절시켰다. 내부와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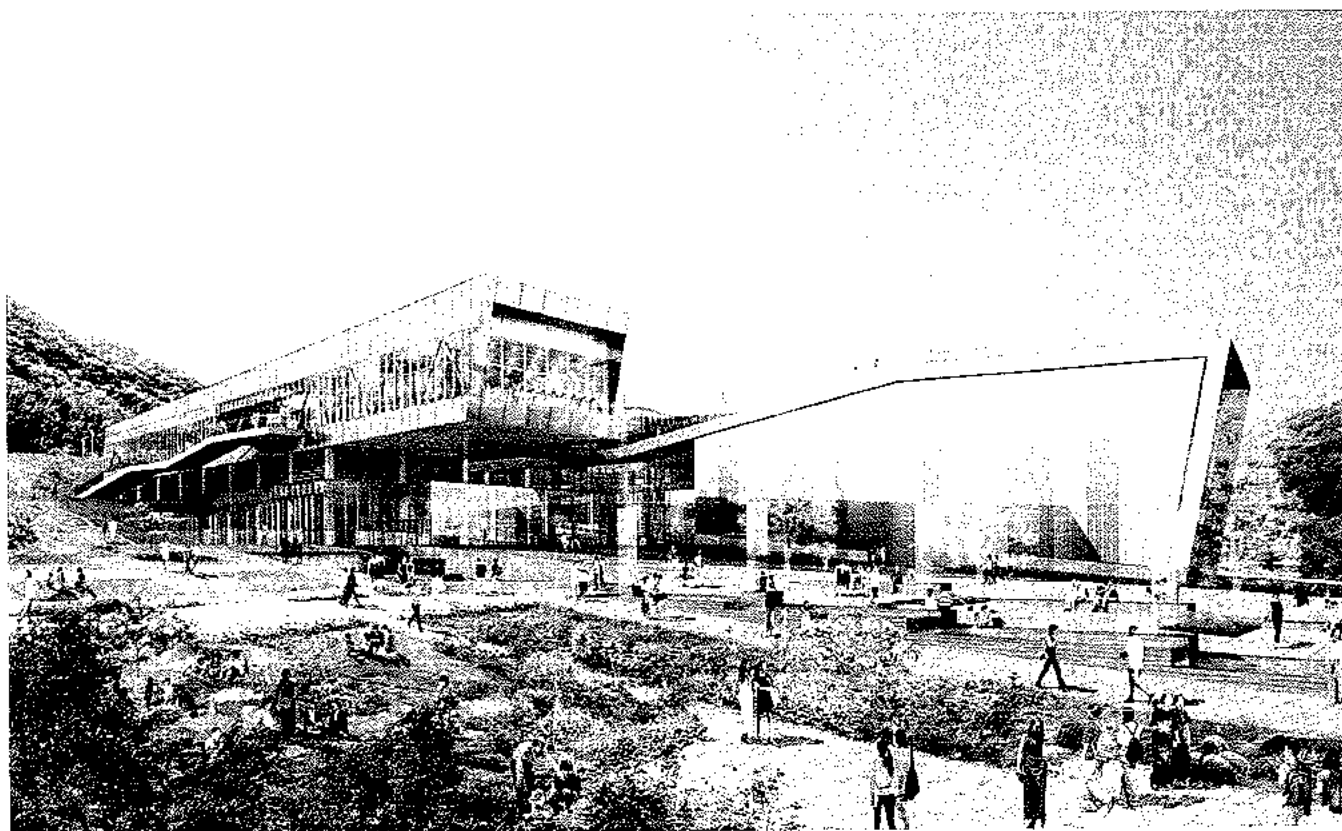
의 다양한 Level을 이어주는 'Multy Layer'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공간의 연계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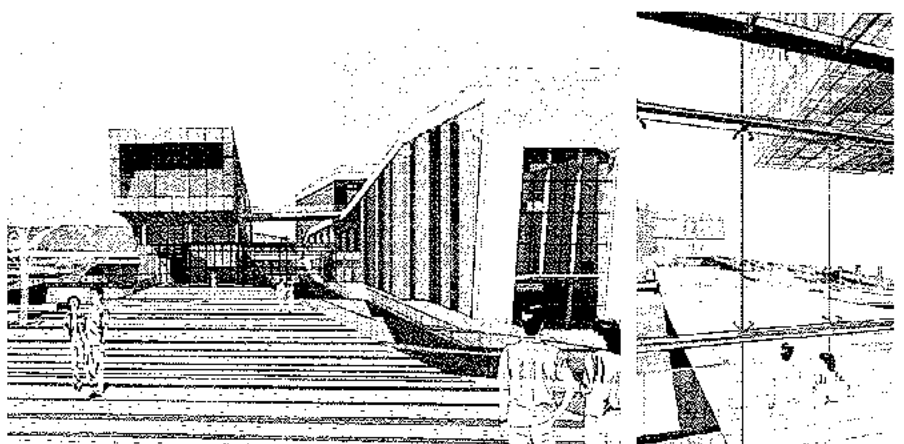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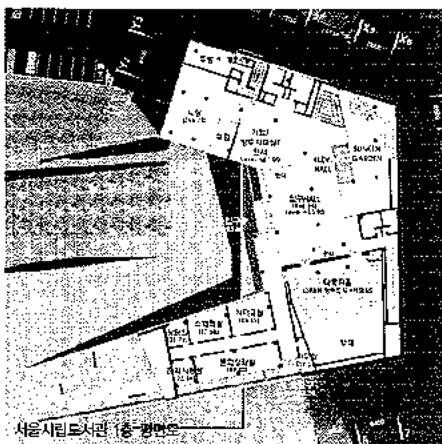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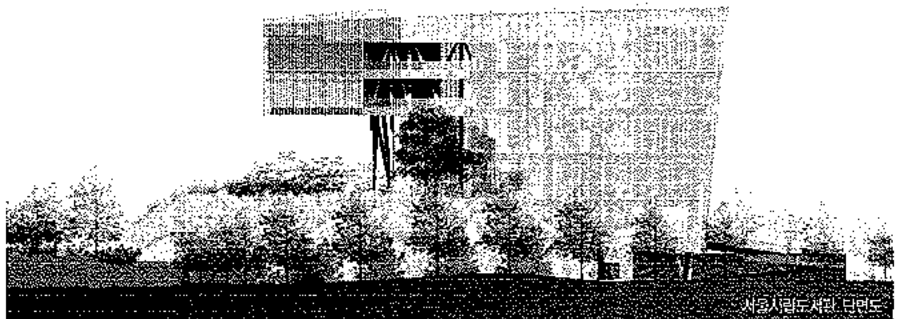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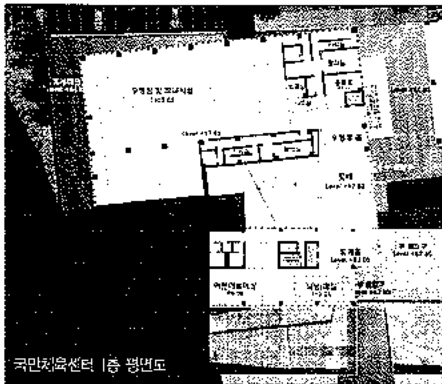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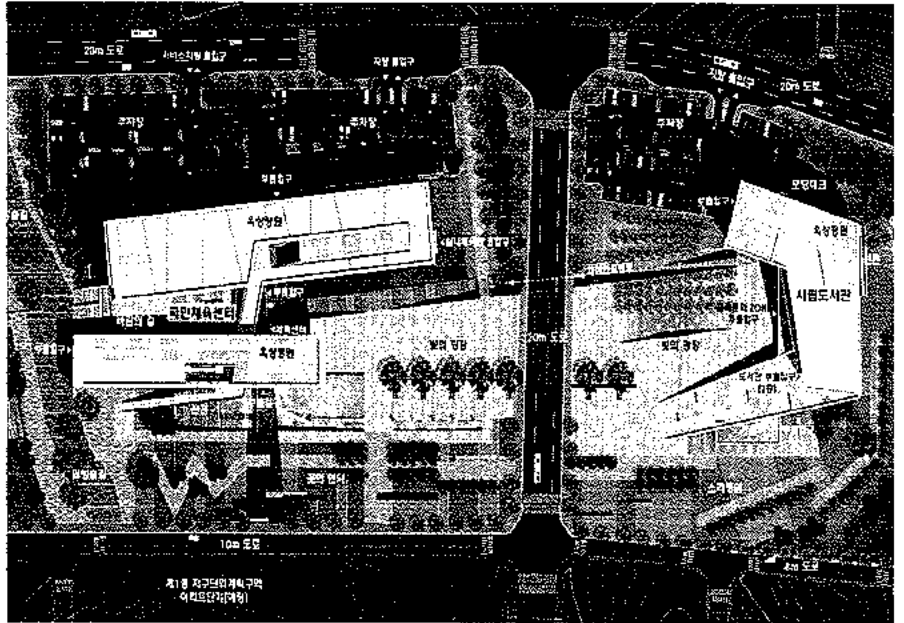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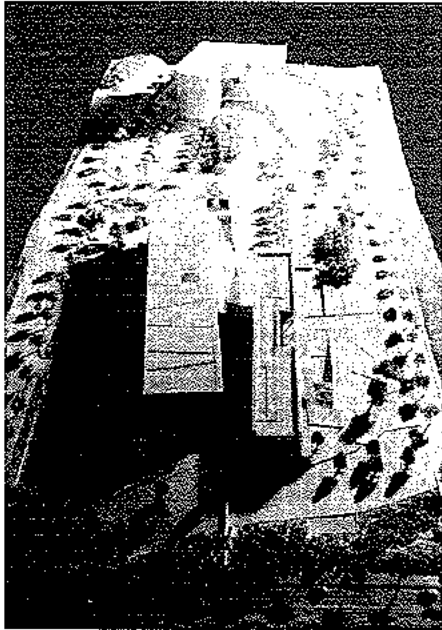
오봉산 - 체육센터 - 도서관 - 신도시로 이어지는 Green Network의 축 선상에, 스포츠 코어(Sports Core)를 두어 동선의 효율적인 분산과 기능별 조닝을 해결하였으며 대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센터 내외부로 자연을 관입시켰다.

현재의 지혜와 미래의 정보가 샘솟는 곳

-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부지는 체육센터와 연계되는 통합축 선상에 놓이게 된다. 신도시를 향해 자연의 흐름을 열어주기 위해 Under Path 및 경사지붕, 필로티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Lev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Tree Flow' 개념이 도입되었다. 대지로부터 이어지는 경사로와 옥상정원의 활용을 통한 자연의 적극적인 유입은 도서관이라는 정적 프로그램 기능에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요소들 간의 다채로운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





양산시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Yangsan City National Sports Center & Municipal Library

가작 / 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최재인)

•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대지위치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90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7,069㎡
건축면적 4,912.96㎡
연 면 적 7,301.68㎡
건 폐 율 18.15%
용 적 율 26.97%
규 모 지하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 양산시 시립도서관

대지면적 17,031㎡
건축면적 2,443.84㎡
연 면 적 6,944.32㎡
건 폐 율 14.35%
용 적 율 40.77%
규 모 지하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설계담당 조원형, 최은희, 이유복

기본계획방향

- 국민체육센터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대중적인 체육공간으로 계획하고, 향후 부지내 시설활용 계획을 예상하여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상징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 등 미적감각을 강조하고 내부공간의 가변성과 외부공간융통성 및 확장성(증축)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 시립도서관은 열린 도서관, 열린 공간으로 시민을 위한 생활 속의 공공도서관으로의 역할과 정보·학습·자연·교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평생교육의 장 및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환경과 조화 이루고 랜드마크적인 공공시설로 지식과 문화가 내재된 건축물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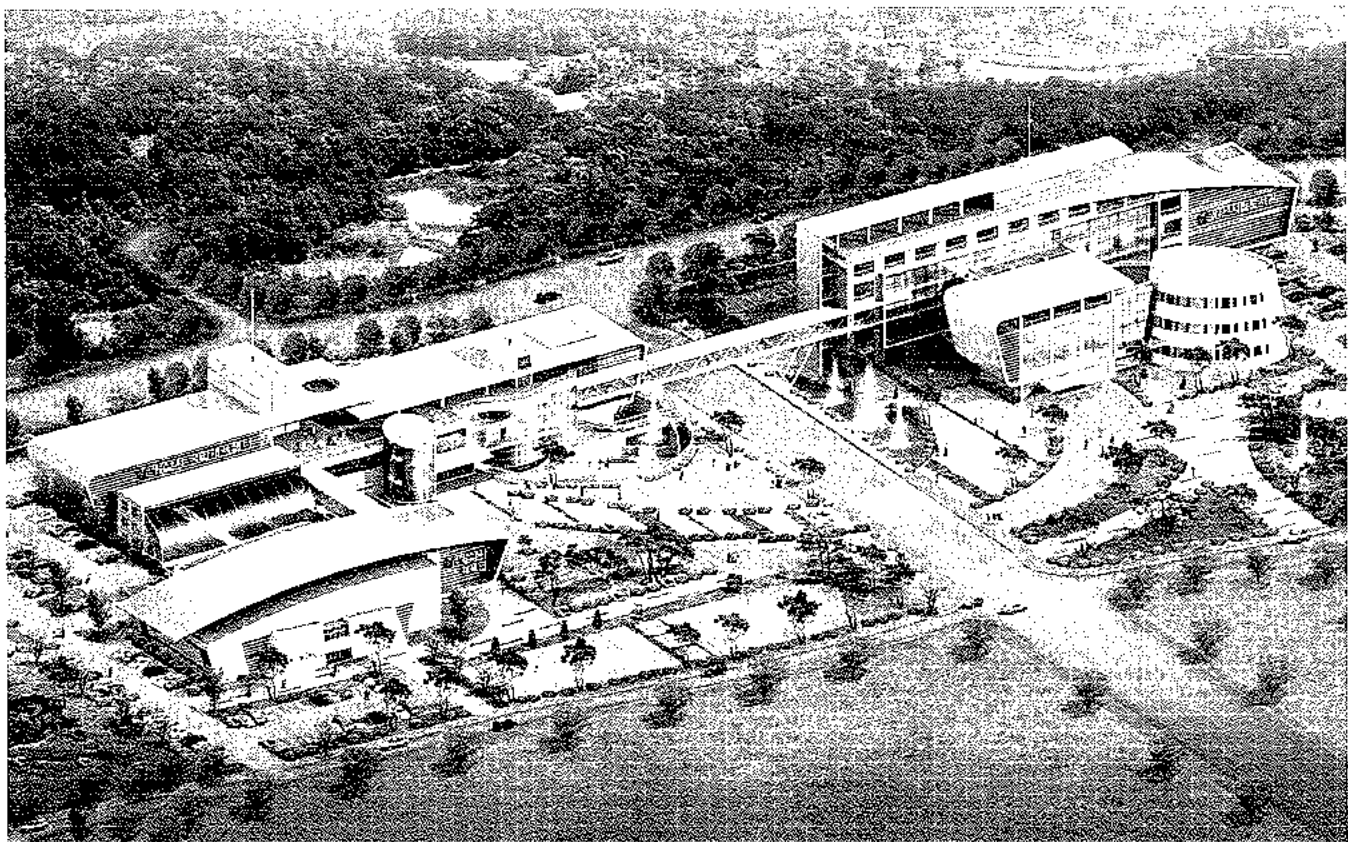
평면계획

- 국민체육센터
 - 체육관, 수영장등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층별 조닝을 고려하여 계획

-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이용 프로그램에 의거 상호 편리한 동선계획
- 운영관리에 편리성과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
- 시립도서관
 - Core 개념을 도입하여 로비 또는 홀에서 각 영역간의 시각적인 개방감을 가지며, 내부공간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계획
 - 용도와 기능별로 구분하여 명확한 Zoning 계획을 구상
 - 국민체육시설과 연계한 이용 프로그램에 의거 상호 편리한 동선 계획

입면계획

- 국민체육센터
 - 체육관의 유선형 지붕관이 다이내믹한 운동성을 강조함.
 - 국민체육센터의 수직, 수평적 안정감 확보함.
 - 커튼월, 알루미늄 그릴 등이 투명성을 강조함.
- 시립도서관
 - 지붕면의 곡선과 사선면에 의한 역동적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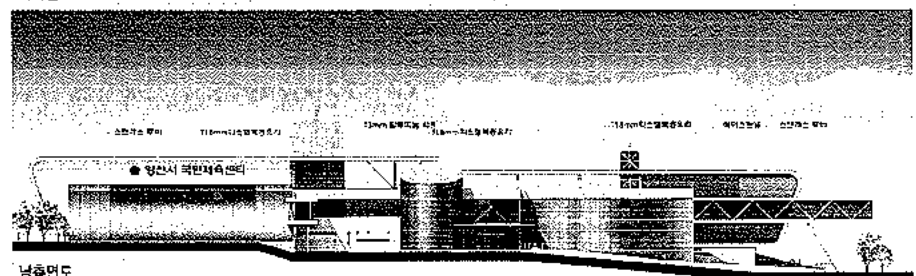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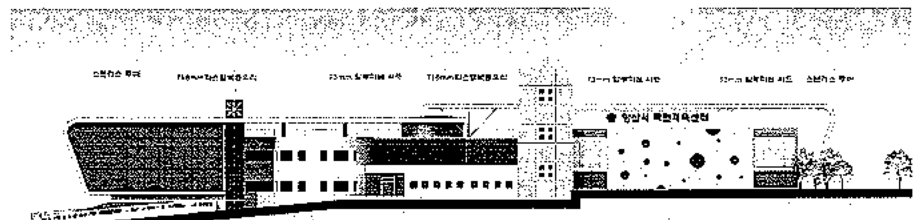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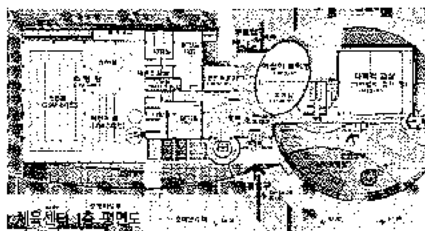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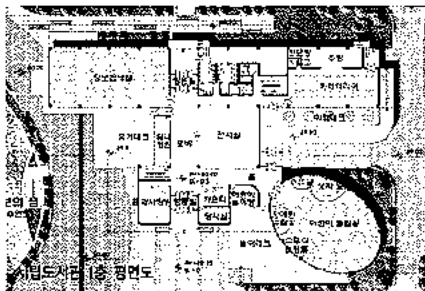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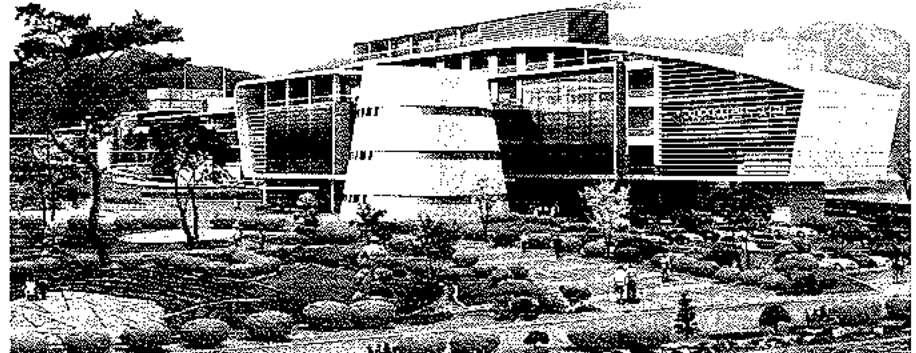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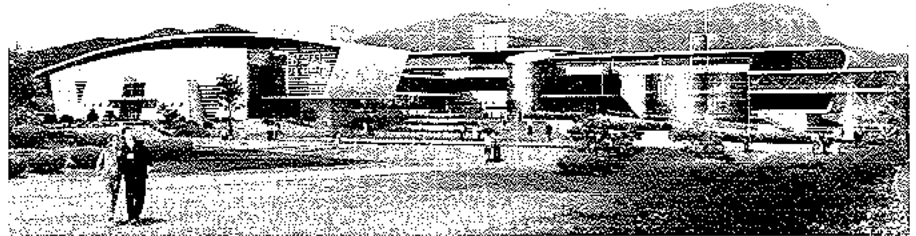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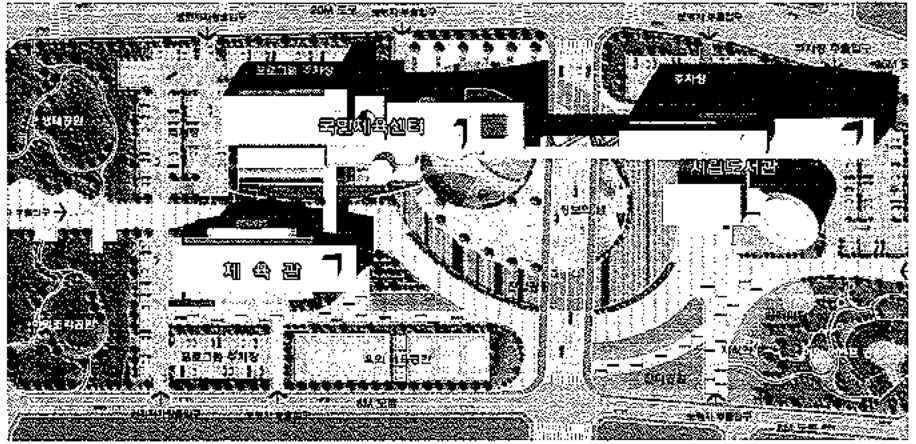


화감과 상승감으로 상징성 부여함.

- 입면의 투명성과 투시성으로 하이테크한 외관을 표현함.

단면계획

- 국민체육센터
 - 대지고저차를 이용한 선릉마당 제공으로 환기유입과 휴게공간 활용
 -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단면 계획.
- 시립도서관
 - 도서열람과 문화교육 사이에 열린공간이 완충역할을 하며 공간을 분할함.
 - 층별(수직적), 동별(수평적)기능의 분할과 유입



세계로 열린 창-올림픽과 도시·건축의 변화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Ahn Chang-mo

외국인을 의식한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축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외국인을 의식한 건축은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는 개별적 프로젝트 중심이었지만, 1980년대의 그것은 올림픽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년대 이전의 경우 주한미군을 위한 미군의 놀이 취향을 갖춘 종합레저트 콤플렉스인 위키힐호텔이 건설된 바 있고, 경제개발기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산수가 수려하고 조망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외국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외국인 주거단지와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외화벌이를 위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호텔과 관광지 개발 등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취향을 반영한 호텔설계와 그들에게 한국적인 풍취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 장소의 개발과 장소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콘크리트 한옥의 건설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1988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은 단기간에 개최되는 행사였지만 박람회와 달리 행사를 위한 시설이 행사 후 철거되는 될 수 없는 건축물들이라는 점과 규모 그리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문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림픽에 대비한 도시·건축프로젝트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림픽 개최는 서울을 비롯한 10여개의 전국 주요 도시를 단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의 경우 도시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 - 도시구조의 변화의 시작: 존슨대통령 방한과 남북대화

해방전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도시화와 6.25전쟁후 복구과정에서 역사도시 서울의 구조변화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도시의 현대도시화 문제가 올림픽 개최이전에 현안으로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노후된 도시의 문제와 현대도시화의 과제의 배경에는 미국대통령의 방한과 남북대화가 있었다.

1966년 10월 31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가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이 행사는 방송을 통해 세계 각국에 중계되었는데, 이 때 낙후된 시청 주변과 산골 등에 산재한 불량주택 등이 TV로 중계되면서 도심지와 불량주거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도심재개발이 시

작되면서 소공동이 첫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며, 당시 전체 지구를 재개발할 여유가 없었던 현실에서 병풍과 같은 플라자호텔을 지어 낙후된 도시미관을 가리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 다른 요인은 남북적십자회담이었다. 1972년 8월 평양의 제1차 회담과 9월의 제2차 회담이 개최되면서,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남과 북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대도시의 면모를 갖춘 평양에 비해 서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 문제였다. 남북사이의 체제 우위 경쟁이 서울 도심부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킨 계기가 된 셈이다.(그림 1)

도심재개발은 1973년 소공동재개발구역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에는 2개 구역, 1976년 1개 구역, 1977년 5개 구역, 1978년 10개 구역, 1979년 2개 구역 등 총 32개 구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성과는 미비하였다. 재개발지구의 지정은 80년대들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 7개, 1981년 7개, 1982년 8개, 1983년 21개, 1984년 35개, 1985년 11개, 1986년 10개 지구로 총 80년대 이후부터 86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시점까지 총 93개 지구가 새로 지정되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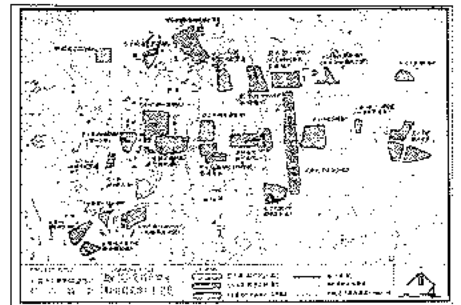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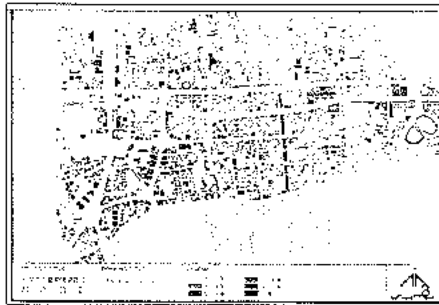
1. 도심재개발 이전의 서울 도심 모습

올림픽과 도시구조의 변화

88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개최되었으나, 올림픽을 개최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7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다. 1981년 9월 30일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정쟁도시 나고야를 물리치고 올림픽 개최권을 따는 순간 도심재개발프로젝트의 가속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올림픽 행사는 일정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규모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여름에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은 물과 땅 모든 곳에서 개최되는 광역적 성격을

1) 한국상부가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1979년 10월이었다. 고 박정희대통령이 의해 시정된 올림픽유치계획이 10.28사대로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무산되는 듯했으나, 1980년 9월 새로 정권은 잡은 전두환대통령에 의해 재개되었다. 당시 올림픽유치는 집권과 함께 3S(Screen, Sports, Sex)정책을 전개했던 정부가 스포츠를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삼은 전략적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올림픽 유치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매바질 3저원상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소비심리가 확대되면서 경제규모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전후적에 미증유의 호황을 가져왔다.



2. 도심 재개발구역 3.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설계-도심 층수 분포도 4.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설계-울진전학과 전술 대상지구

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규모의 체육행사가 아닌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행사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올림픽개최는 5.18로 집권한 군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을 향해서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한국의 총체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대적인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을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현대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1973년에 처음 시작되었던 도심재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강종합개발계획의 확대 추진이 그 핵심이었다.

올림픽의 많은 부분을 서울이 담당했지만, 일부 행사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었기에 제주도를 시발로 한 성화봉송로 주변의 많은 크고 작은 도시에서 변화가 불가피했다. 우리보다 4년 앞서 올림픽을 유치했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와 같이 도시개발 수준이 일정한 궤도에 이른 올림픽 개최도시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었던 탓에 올림픽이 도시변화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지만, 1964년에 올림픽을 개최했던 동경의 경우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올림픽이 새로운 이정표가 된 바 있다. 올림픽이 서울의 도시개발과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은 동경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 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과 불량주거지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과 불량주거지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도심재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심지를 현대도시로 개조하는 프로젝트였고, 불량주거지재개발사업은 경제개발기에 시 외곽으로 확산된 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재개발사업은 현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의욕적인 사업이었지만, 불행히도 역사도시의 경관은 물론이고 도시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도심재개발사업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이를 수행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서울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연구책임자: 강병기)를 내놓았다. 이 계획은 73년에 설정된 도심재개발사업지구가 지구지정의 단순 집합체였던 대 반해, 도심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가로별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도심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하였다.(그림 3, 4)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의 목적은

- 서울4대문 내 고층전통물 통제조치 개선방안 수립,
 - 둘째 문화재, 고궁주변, 한옥보존지구 등 서울의 역사성 및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도시설계의 기본방향 제시
 - 인구소산, 교통문제 해소 등 도심고밀화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제한, 도시스카이라인 변화성 부여, 도시미관의 확보연구,
 - 토지이용도 제고, 도시공간의 확대 및 재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고층전통물과의 관계 연구
 - 수도서울의 상징가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규모있고 정돈된 가로를 유도, 서울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보존 육성,
 - 민간자본의 투자효율성 제고,
- 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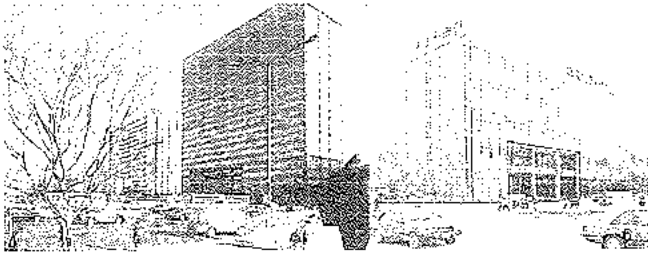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1988년, 중장기적으로 2001년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본 용역이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였다는 사실과 단기 목표연도가 1988년이었다는 사실은 본 사업의 시행목적이 88올림픽에 대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정부의 적극 지원 하에 1981년 12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면서 불량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물지구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의 특혜가 주어졌으며 세제상의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세종로와 태평로는 중앙청-시청-남대문-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 가로로 성격지워졌고, 경희궁-광화문네거리-화신-과고다공원-종묘-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종로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거리, 을지로는 유흥 근대화의 전이지구로 가로경관 및 기능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가로로 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서울 도심의 경우 올림픽이 개최되는 작전 해인 1987년 말 기준으로 62개지구 241,738㎡가 시행되었고, 56개지구 313,792㎡가 진행되고 있었다.²⁾

2) 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230쪽



5. 63빌딩과 국제센터 6. 교보빌딩과 자정사육

도심재개발사업지구의 건축물들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설계에 따라 그 곳에는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을까?

교보빌딩(지상22층)은 초기 재개발사업으로 올림피아 개최되기 전에 대한교육보험 신사옥 신축이 결정되어 미국의 서저 펠리에 의해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용산에는 미국의 CRS에 의해 설계된 국제센터빌딩(지상 28층)이 지어졌다. 서울의 맨하탄을 꿈꾸며 개발되기 시작한 여의도에는 동양 최고의 빌딩인 대한생명의 63빌딩이 건축되었다. 63빌딩의 경우 사옥 신축 계획은 올림피아 개최 결정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제5공화국 출범 시기에 일본에서 63층 고층빌딩이 신축되자,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한 신군부에서 63층이라는 동양 최고 빌딩의 신축을 건축주에게 권유하여 완성된 프로젝트였다.(그림 5, 6)

세 개의 건물은 한국의 80년대를 여는 상징적 빌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외국건축사의 설계로 신축되었다. 그러나 3개의 건축물이 이후 한국건축계에 미친 영향은 사뭇 달랐다. 교보빌딩과 국제센터빌딩의 경우 서울 도심의 상징적인 고층사무소건축 설계를 위해 외국의 우수한 건축사사무소의 디자인을 수입한 경우라면, 63빌딩(박춘명 작, 지상 60층, 지하 3층)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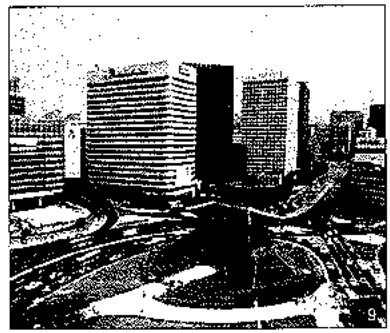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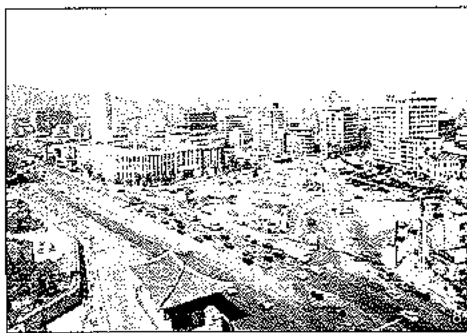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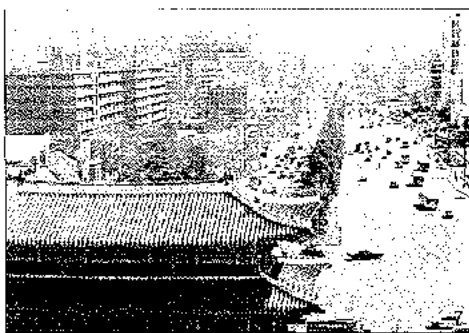
디자인의 수입이라는 측면보다는 동양최고빌딩 건설을 통한 국력과시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지어졌고, 이를 짓기 위한 선진 건축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사무소건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건축물이다.

63빌딩은 건축이 단지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공학의 문제임을 실감케한 건축물이다. 건축설계 전반은 박춘명이 주관하였지만, 국내 건축계가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초고층건물이라는 점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 디자인과 건축기술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토목, 구조 및 설비공학적 측면의 기술은 일본에 의지하였고, 일반 사무소건축에서는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외장 커튼월 역시 국내 기술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기술(Unit & Mullion system)을 도입하여 완성했다.

럭키금융 트윈타워(지상 35층, 지하 4층)의 경우 인텔리전트빌딩 추세에 따라 사무자동화가 사무소건축의 주요 이슈가 되던 시기에 지어진 탓에 사무자동화에 용이한 Composite Tubular Structural System이 채택되었으며, 여의도 진입부에 위치한 입지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외관을 탈피하여 Ray Window에 의한 입면구성과 모서리를 접는 처리의 쌍둥이 빌딩으로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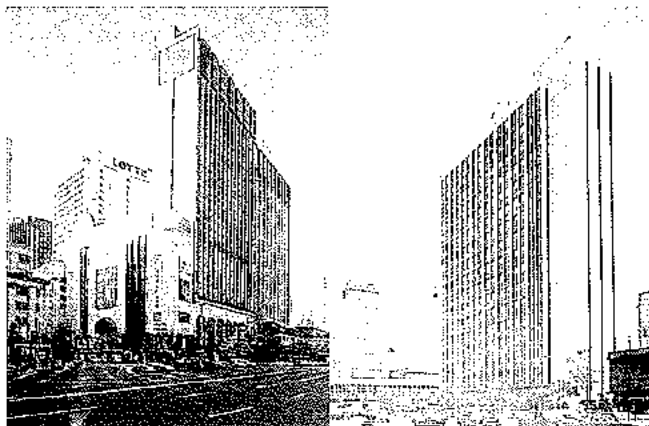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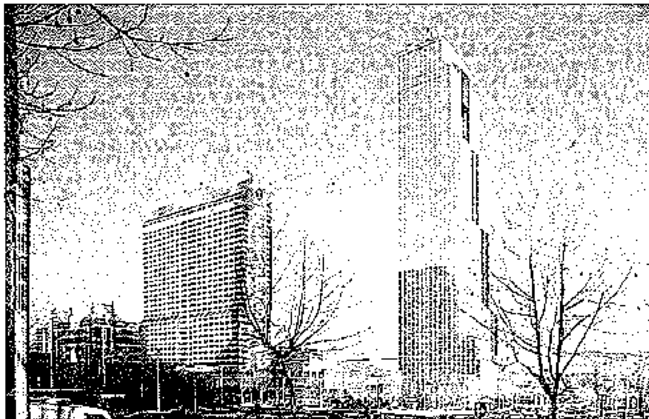
재개발사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세종로와 남대문로 주변이었다. 이는 국가 상징로로 설정된 세종로-태평로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심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그림 7, 8) 구 동방생명(현 삼성생명빌딩(1982+1984)과 안국국제빌딩(현 삼성화재빌딩, 지상 21층, 지하 6층) 그리고 중앙일보 신사옥(지상 21층, 지하 3층)이 미국의 엘리베 벤텍사와 삼우설계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 이들 빌딩은 경제성장기에 급성장한 재벌회사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사옥을 외국 건축사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규모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태평로동의 주요 가로변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지구에는 국내 건축사에 의한 사무소 건축³⁾도 활발하게 건축되었다. 이밖에 강남에도 대형사무소 건축이 줄을 이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종합무역센터 사무동(니켈센세이작, 지상 54층)와 인터콘티넨탈호텔(김병현·찰스코버 작, 지상 33층)이다.

강북의 고층사무소 건축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재개발지구사업의 결과라면, 강남의 고층사무소 건축은 불모지였던 강남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방편이었다는 차이가 있다.(그림 9, 10)



7. 재개발 사업이전의 세종로 모습 8. 재개발 사업이전의 서울시청과 태평로 모습 9. 남대문 주변 삼성생명·재개발로 신축된 사무소군

3)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내외빌딩(김문규 작, 지상 15층 지하 3층), 대우투자금융사옥(김동성 작, 지상 17층, 지하 4층), 두산빌딩(김영일, 어규장 작, 지상 20층, 지하 4층), 산천리본사사옥(원도시 작, 지상 10층 지하 2층), 대한상공회의소(정달, 지상 12층 지하 3층), 서울신문사사옥(민경재, 민현연 작, 지상 20층, 지하 4층), 서울투자금융 사옥(이상수 작, 지상 20층, 지하 4층), 신용보증기금빌딩(박영호 작, 지상 20층, 지하 5층), 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사업(강교필/최병현 작, 지상 27층, 중소기업은행본점/김중연 작, 현대빌딩/김우성 작, 지상 28층), 유원건설사옥(이영희 작, 지상 17층), 제일은행본점(원도시 작, 지상 22층), 태화빌딩(정시은 작, 지상 12층), 하나로빌딩(차동명 작), 한국은행은행 본점(정명 작, 지상 24층), 한국은행 본점(원정수·재순 작, 지상 16층), 한일은행 본점(원도시 작, 지상 25층), 현대개발(김성재 외, 지상 18층) 등



10_ 한국무역센터와 인터콘티넨탈호텔 11_ 롯데호텔과 롯데빌딩

설계사무소의 재벌회사 계열화와 디자인의 수직계열화

이 시기에 건축된 재개발사업지구의 고층사무소 건축을 살펴보면⁴⁾ 주목할만한 사실이 몇 가지 눈에 띈다. 하나는 은행과 재벌회사의 사옥이 재개발지구에서 두드러지게 건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의 수직계열화가 이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은행과 재벌회사의 사옥건축이 두드러지는 것은 재개발사업이라는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건축주 그룹이 은행과 재벌회사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로 한국경제구조의 특징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건축디자인 측면에서는 디자인의 수직계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보생명과 럭키금성 및 삼성그룹의 계열사 및 지방사옥 건축

물들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사옥들이 서울 본사 건물의 축소판으로 지어졌으며(그림 6), 여의도 트윈타워의 럭키금성 계열회사사옥 및 동방생명 사옥들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서울과 지방 곳곳에 지어졌다. 이러한 디자인의 수직계열화는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나, 외국건축사의 원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문제도 함께 낳았다.(그림 11)

한편, 재벌회사가 건설회사의 소유를 넘어 중소기업보다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던 설계사무소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건축사무소를 실질적인 계열사군에 포함시키는 현상도 일어났다. 이들 건축사무소는 재벌이라는 안정적 건축주를 배경으로 국내 건축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정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형사무소 건축이 붐이 일던 시절에 대형사무소건축을 발주할 수 있는 건축주에 예측된 건축사무소의 존재는 디자인보다는 신뢰도 높은 사무소건축의 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건축설계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외국건축사가 국내 대규모 빌딩 설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부정적 역할도 가져왔다.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구조의 재조직화와 부작용

도심재개발사업은 구도심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영세필지의 통합조절, 연속적 도시건축의 공간화, 도로와 하부구조의 합리화, 용도제한 및 기능 재편 등을 목표로 한 것인데, 도심 내 주요 가로변 외에도 도심, 신촌, 마포, 잠실, 테헤란로, 목동, 영등포, 한강로 등에 대한 도시설계가 입안되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는 목동지구, 잠실지구, 고덕지구, 아시아공원 및 선수촌, 올림픽공원, 을지로 2가 재개발지구, 신촌·마포지구, 감포가로지구, 을곡로지구 등에 대한 도시설계도 이루어졌다.

도심재개발사업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사업이 있다. 이곳은 1983년 현상설계에 당선된 3개 건축사무소⁴⁾의 계획안에 따라 84년 6월에 착공되어 1987년 9월에 완공되었다.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지 22,000㎡에 달하는 슈퍼블록 재개발사업이었다. 을지로16/17지구 재개발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동 시기의 여타 도심재개발과 구분된다. 첫째 개발 주체가 민간이 아닌 대한주택공사였다는 점, 둘째 재개발계획안이 현상설계에 의해 결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사업지구의 규모가 이전의 재개발사업에 비해 3~4배 규모의 슈퍼블록으로 재개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슈퍼블록 규모의 재개발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심재개발의 외부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재개발의 경우 한 블록에 한 개



12-1_ 도심재개발 12-2_ 도심재개발과 주변 12-3_ 도심재개발의 결과

4) 남선한 : 화신건축, 김웅업건축, 천일건축가연합

의 대형오피스 빌딩을 건축하는 관계로 집중형 평면을 갖는 오피스 빌딩의 주변부가 공개 공간이 되지만, 오히려 16/17지구의 경우 3개의 사무소건축으로 구성됨에 따라 특별한 용도를 가지기 어려웠던 대형오피스 주변의 공개공간이 중앙의 광장으로 모여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탄생했기 때문이다.(그림 12-1, 12-2)

이와 같은 콤플렉스를 이루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88올림픽에 대비한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입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입장에서 반드시 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사 중심의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갖지 않아,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개입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몇 개의 재개발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슈퍼블럭 재개발로 진행되었고, 기존 재개발과는 다른 도시공간과 조직을 갖는 재개발 사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민간주택 공급을 본의로 하는 대한주택공사의 도심재개발사업 참여는 주택공사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나 국책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예다.

도심정비사업으로 고층사무소건축만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6.25전쟁이후 급속하게 슬럼화되면서 4대문 안에 유일한 사창가를 형성하고 있던 종로 앞의 사창가 종삼의 처리도 현안으로 등장했다. 외국인에게 내 세울 수 있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자부하는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유산 앞에 위치한 사창가는 당연히 소멸될 대상이었고, 그 해법으로 공원이 선택되었다.

1986년까지 50개에 달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가장 중심이 주어졌던 세종로-태평로 주변의 재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역사도시의 조각이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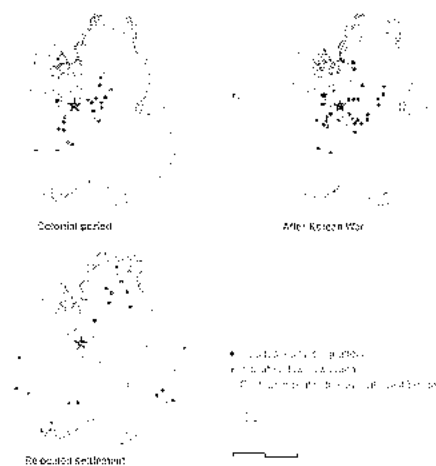
불량주거지재개발사업

불량주거지재개발사업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불량주택재개발과 신시가지 조성(목동 신시가지와 상계동 신시가지)사업으로 구분된다.

불량주거지사업은 해방과 6.25전쟁이후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과밀화된 인구집중으로 서울시 외곽에 확산된 구릉지의 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슬럼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었다. 그 해법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진방법으로 인해 불량주거에 의한 주거지로 탈바꿈한 서울 주변의 야트막한 구릉지 스카이라인이 4~50미터씩 부분적으로 높아져 버렸다. 과거의 구릉지는 1~2층 정도로 슬럼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지형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지만, 고층아파트 단지 건설로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금도 서울시 주변 곳곳에 불쑥 불쑥 솟아있는 고층아파트 군은 대부분 불량주거지역이었던 곳이 이 시기 이후 아파트 단지로 변화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문제 등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했다.(그림 13)

불량주거지는 서울시의 시역 확장과 함께 도시 외곽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시행된 사업지구는 도심으로 연결되는 주요 가로변의 슬럼가와 한강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 가시권에 들어온 한강변 구릉지의 불량주거지가 그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선택된 지역이 도심에서는 공원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인 마포로(구 귀빈로) 주변에 위치한 도화동 일대와 한강변 유람선에서 눈에 쉽게 띄는 한남동과 금호동 및 응봉동 일대의 구릉지에 위치한 불량주거지였다.

한편, 주거정비 사업중 주목할만한 사업으로 목동 신시가지와 상계동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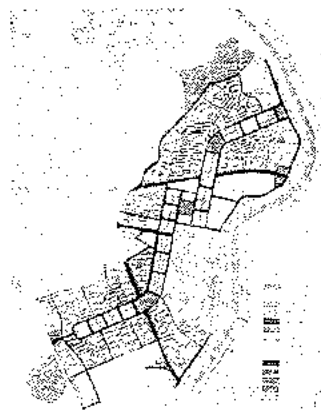
13-1. 불량주거지 위치도(출처 서울20세기 공간)



13-2. 봉천동 재개발지(출처 플라잉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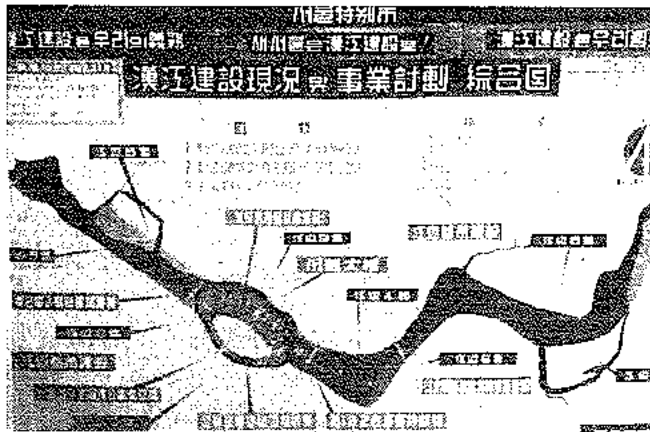
14-1. 목동 신시가지-개발전



14-2. 목동 신시가지-종합개발계획도

시가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지구는 도시 지역 내에 잔존해 있던 미개발지이다. 이전 시기에 도심정비과정에서 도시외곽으로 밀려났던 신흥 불량주거지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개발에서는 도시 내 도시의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신시가지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그 규모와 도심과의 거리로 인해 독립된 시가지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시가지 개발도 결과적으로 주거공급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울외곽으로 확산되는 주거지가 무계획적 저층주거지에서 계획적 고층주거지로 바뀌었다.(그림 14-1, 14-2)

주택개발사업은 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 해인 1987년 말 기준으로 60개지구 1,883,922㎡이 완료되고, 52개 지구 3,036,802㎡가 진행되고 있었다.



15. 한강종합개발계획

■ 한강종합개발계획

한강을 정비하는 계획의 첫 시발점은 1960년대 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수립한 '한강연안개발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한강변까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만성화되어 있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제방을 만드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한강제방공사를 통해 확보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한강변 제방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강연안개발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확보와 교통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택지분양을 통해 개발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로써 한강제방 건설과 강변도로 건설은 1963년 한강중심의 강남북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지만, 강남의 시가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남쪽 경계가 되었다.(그림 15)

70년대 이후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강이 서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정비할 여유가 없어 방치되었던 한강 주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계획이 한강종합개발계획이다.

이 계획은 1981년 10월 23일 전전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었고, 다음해 9월

28일 착공되어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1986년 9월 10일 준공되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상류부의 소양강댐 및 충주댐이 지닌 홍수조절 효과를 전제로 하여, 한강연안의 홍수피해를 극소화하는 한편 한강이 지닌 개발가능성은 극대화하여 광활한 하천공간을 종합적 다목적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사업내용은 크게 저수로 정비, 고수부지 조성, 율리피대로 건설, 분류하수관 공사로 구분되는데, 도시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한강유역 정비와 문화유적 복원사업 그리고 녹지 및 공원시설 확충이다.(그림 16-1, 16-2, 16-3, 16-4,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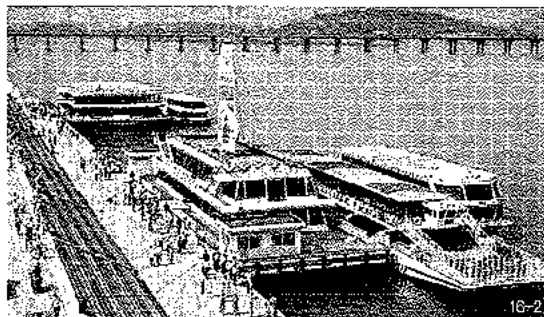
• 한강개발 : 한강은 유역이 정비되기전 홍수 대비 능력의 문제, 수질 오염, 골재 채취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한강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강남 개발과 함께 한강이 본격적으로 서울의 주요한 행정범위에 들어왔고, 한강이 서울의 공간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수로 정비와 수로의 고정화 및 안정화 작업, 고수부지 조성 및 공원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강변 유원지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고수부지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롭게 정비한 한강변에 동서교통망 확보를 위해 한강북측에는 강변도로를 확장하고, 남측에는 88고속도로를 건설한 점이다. 그러나 한강을 도시기능의 효율성으로 인식한 탓에 교통중심으로 정비함에 따라 시민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 문화유적 복원사업 : 한강변 유역지 발굴과 복원사업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도심 내 역사유적지 중심에서 한강개발로 한강변 역사유적지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한강의 개발하면서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등 한강개발의 활용적 측면을 감안한 탓이기도 하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풍납토성, 아차산성, 몽촌토성, 석촌(石村)고분, 방이동고분 등이 대표적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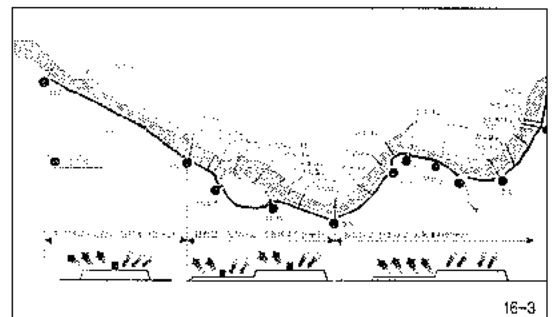
• 녹지 및 공원시설 확충 :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한강변 고지대를 정비하면서 고수부지를 조성한 후 녹지와 시민공원을 조성하였다.(그림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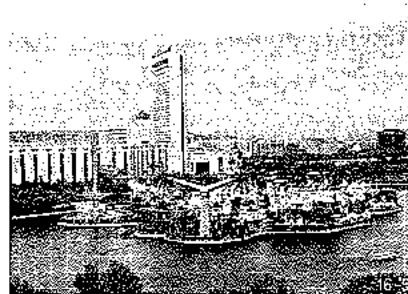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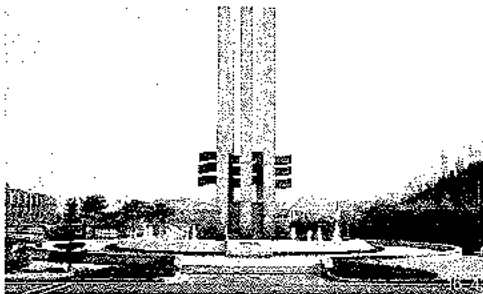
16-1



16-2



16-3



16-1. 한강종합개발-제방도로 분류하수관공사 현장 16-2. 한강종합개발-유람선 16-3. 한강다리과 한강변도로
16-4. 한강종합개발-준공기념비 16-5.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유산-석촌호수와 롯데월드 16-6. 한강종합개발-잠실지구

올림픽건축물과 외국건축사의 작업

많은 건축물에 외국건축사들의 참여가 예상되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작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주요 공공프로젝트가 국제설계경기의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외국 건축사의 참여는 저조했다.

올림픽경기시설

강남개발과 함께 스포츠단지로 조성되었던 남서울운동장(김수근 작)이 올림픽 개최로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탈바꿈했지만, 부족한 경기시설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경기를 지방에 분산 개최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방도시의 경기시설 확충과 지방도시환경의 정비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많은 경기를 수행해야하는 서울에서는 몽촌토성일대에 새롭게 올림픽 경기단지와 선수촌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었다.(그림 17, 18)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체조경기장이 있다. 체조경기장은 몽촌토성 내에 위치한 입지 특성으로 인해 건물 높이가 주변 경관에 의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David H. Geiger 박사가 개발한 케이블 돔 구법이었다. (그림 19-1, 19-2) 이 공법은 120m에 달하는 실내공간을 실리콘이 도장된 유리섬유막을 원형인장구조(round-tension structure)위에 얹은 것으로 철골트러스보다 가볍고 공기단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붕을 통해 자연광이 투사되어 에너지 관리에도 유리했으며, 가장 중요한 몽촌토성과의 조화에도 성공적이었다.

체조경기장에 사용된 케이블 돔 공법은 한국건축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최신 공법이었다. 케이블 돔의 지붕은 주물제 복합의 중앙 링을 중심으로 방사형 케이블을 깔고, 중간에 마스트를 두어 케이블로 단계적인 인장력을 가하여 케이블 망을 끌어올려 만들어졌는데,

이 공법이 세계최초로 적용된 김수근의 체조경기장은 1988년 9월 미국의 Architectural Record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올림픽 지원시설

올림픽을 위해 지어졌지만 올림픽이후 주거단지로 전용하기 위한 선수촌 아파트도 지어졌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공모전이 국제설계경기로 진행되었다.

• 아시아선수촌 및 공원 기본계획 국제현상공모(1983.4): 최초로 심사과정과 심사결과가 공표된 국제설계경기에 내국인 26점, 내외국인 합작 3점, 해외동포 2점 등 33점이 출품되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 설계경기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의 안으로 2차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조성룡, 문정일, 강기효의 안이 당선되었다. 아시아선수촌은 아파트 단지계획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와 길을 담아낸 작품으로 과거 성남곽과 같다는 비난을 받았던 획일적인 아파트단지 설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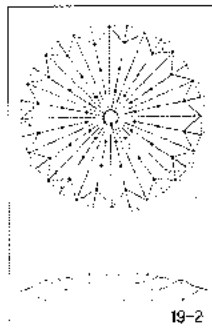
• 88올림픽선수, 기자촌 국제설계경기(1984.11):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인 올림픽 공원 동남단 인접지에 선수촌과 식당, 쇼핑센터, 문화센터, 리셉션센터 등과 기자촌 및 부대시설 계획으로 황일인+유구승 안이 당선되었다. 대지 외곽은 주위 광역질서와 연계하여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단지 내부는 국립경기장 축을 이어 받는 점을 구심점으로 방사형으로 배치하면서 외곽으로 점차 충고를 높여(6층에서 24층)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들 2건의 현상설계가 모두 국제설계경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외국 건축사의 참여가 극히 부진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 현상설계의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올림픽 행사를 위한 시설 중 눈에 띄는 것으로 쿤스트 디스코(Peter & Julia Bohn 작)가 있다. 이 건물은 독일정부가 괴테문화원을 주관처로 하여 올림픽 문화행사로 참여하면서 건축한 것이었는데, 독일의 이지성과 표현성을 담은 다목적 공연시설이었다. 1988년 8월에 개관한 이 건물을 통해, 독일은 음악, 무용, 레이저 조명, 비디오가 총체화된 헤프닝예술을 소개하였다. 이 건물은 독일에서 제작된 부품을 서울에서 조립하여 건축한 후 서울시에 기증되었으나, 지금은 보라매공원으로 옮겨져 한국체육진흥회 체육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다.(사진 20)

올림픽 경기장이 강남에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강남

17. 한강종합개발-올림픽주경기장 아시아선수촌 및 한강
18. 서울회보-몽촌토성과 올림픽 체육시설
19-1. 체조경기장-케이블돔 19-2. 체조경기장-케이블돔 자용평면도
20. 쿤스트 디스코



복을 잇는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올림픽대교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1985년 3월 20일 공모하여 당선된 현수교의 올림픽대교는 국내기술의 한계와 공사중 사고 등으로 올림픽 개최 일을 맞추지 못하고 다음해에 완공되었다.

건축자본의 변화와 건축주의 변화

■ 건축자본의 성격변화와 디자인의 수직계열화

통금해제 등의 사회적 변화는 있었지만 80년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군사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경제여건의 변화였다. 정치적 압축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이어졌는데, 이는 세계적 3저(금리, 유가, 환율)현상 때문이었다. 그 덕에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갖는 한국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기업이 주요 건축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부를 축적한 대기업은 도심재개발 구역에 하나 둘씩 자신의 사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주요 건축자본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 공사를 주도하던 70년대와는 달랐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보빌딩의 건축이었다. 도심재개발지구의 땅을 사들인 교보보험 측은 설계를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시저 펠리에게 의뢰했다. 과거 70년대까지 정부와 정책적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수행시에 정부에 의해서 수입되었던 외국건축사가 이제는 민간기업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사옥, 중앙일보사옥, 삼성화재사옥, 럭키금성의 여의도 트윈타워, 대한생명의 63빌딩 등도 민간기업체 중심으로 외국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한 대표적인 예다. 이들 개발기업의 외국건축사사무소 의존은 고층사무소건축에 대한 설계노하우가 부족했던 국내건축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외국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하는 것은 초기 설계투자비는 크지만 이후 원 디자인을 모방한 중소규모의 건물을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복제함으로써 비싼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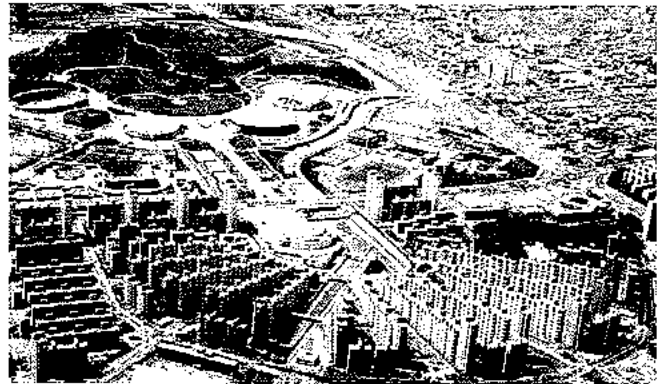
한편, 건설업체를 소유하여 그룹사의 건축공사를 맡겨온 국내 재벌회사의 관행이 설계부분으로 확산된 것도 이 시점이다. 설계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개발기업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일부 설계사무소와 특수한 관계를 갖는 밀월 단계로 이어졌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대우그룹과 서울건축, 삼성그룹과 삼우건축, 럭키금성과 창조건축, 한화그룹과 아키텍플랜 건축사무소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재외 한인건축인의 귀국

경제성장으로 변화된 국내 건축환경은 일찍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활동하던 재외한인건축인들의 귀국을 촉진시켰다. 197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외국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활동하던 국내건축인들의 국내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김충성, 강석원, 광영훈, 김병현 등이 귀국하여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참여한 대표적인 예이고, 김태수와 유규승은 활동



21. 삼성화재와 두산빌딩



22. 올림픽선수촌 전경. 유규승·황일인 작

근거는 미국에 둔 채 프로젝트별로 국내 건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그림 22)

특히, 일리노이즈공과대학(IIT)에서 미스 반 데 로에에게 수학하고 IIT교수를 역임한 김충성은 경제개발의 성과로 수요가 급증한 오피스건축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서소문의 효상계2빌딩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의 우당도서관, 서울역앞 양동재개발사업지에 건축된 힐튼호텔 등이 대표적인 작업으로 잡지를 통해 외국의 앞선 디자인을 접했던 국내건축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가 설립한 서울건축은 국내건축설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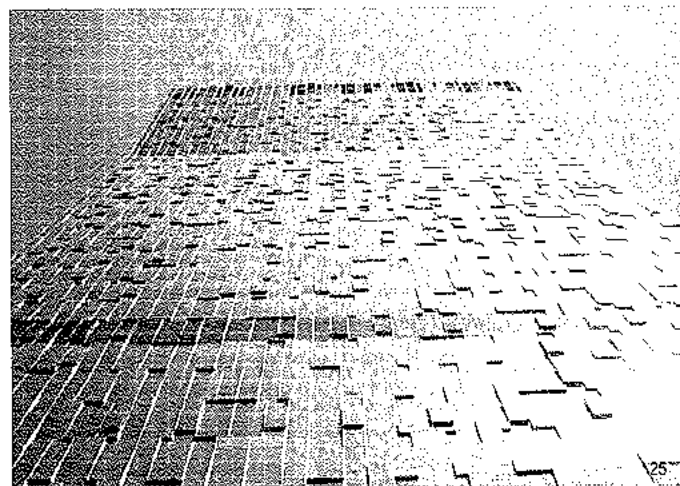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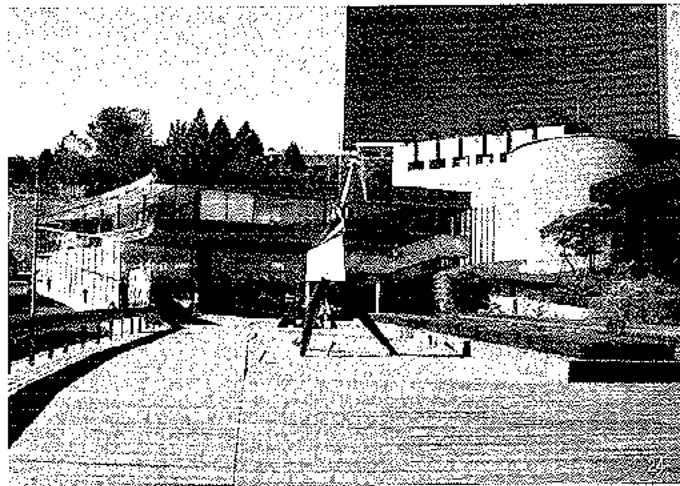
재미건축사 김태수는 과천 현대미술관과 대한교육보험 천안연수원(1988, 김태수), 유규승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유규승 Woo & Williams)에서 일등 당선하면서 국내에 선보였다.

■ 국제현상공모 속의 외국건축사

88올림픽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 되던 1983년을 기점으로 설계경기 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공공프로젝트에서 국제설계경기를 본격적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국제설계경기로 예술의전당 국제지명현상공모(1983.12.31: 김석철, 김수근, 김중업, 미국T.A.C, 영국C.P.B 참여), 한국중화무역센터 국제지명현상공모(1984.8.24: 국내지명자 5팀-박춘명, 임이진숙, 황일인, 정림, 원도시, 외국 지명자 3팀-SOM, 웰튼 비케트 인터내셔널, 니켈 세케이), 국제방송센터국제설계경기(IBC, 1985) 등이 있다.(그림 23)



23_ 코엑스 무역센터 24_ Leelum 25_ T-Tower



자유경쟁을 통해 최고의 안을 뽑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설계경기가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었지만, 주목할만한 경제성장과 함께 88올림픽 개최 등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건축사의 참여는 매우 미미했다. 이는 UIA회원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UIA에서 인정할만한 설계경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내 건축계가 60년대 이후 많은 설계경기를 치러왔지만 국회의사당, 국립종합박물관, 정부종합청사, 부산시민회관 등의 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일정, 저작권, 상금, 심의의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뢰를 갖추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설계경기의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외국건축사의 참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특히 영종도 신공항 영캐터미널 국제현상설계(정림, 원도시, 화람, 범건축, 맥클리어 C.W.켄트레스 당선작)와 용산 국립박물관(당선작 정림건축, 46개국 341 작품-국내 78, 외국 263) 등을 통해서 한국의 국제설계경기의 운영능력과 공정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내 국제설계공모에 대한 외국건축사의 참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제설계경기가 행정복합도시국제현상공모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뿐 아니라 민간(이화캐퍼스센터 국제설계공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설계경기가 지방도시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예가 낙동강 에코센터(The Eco-center at the Nakdong River),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설계경기, 광주문화도시 국제설계경기 등이다.

■ 재벌의 2세 경영체제와 건축디자인의 변화

재벌그룹의 세대교체가 건축계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타워와 Park Hyatt 그리고 SK의 T-Tower 및 W-Hotel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축계의 변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건축사무소의 세대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개발을 주도하던 창업주와 달리 재벌 2세 또는 3세는 일

찍이 외국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벌 1세대가 일본을 발전모델로 했다면, 2세의 발전모델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2세로 교체된 재벌가의 건축취향에도 변화가 생겼다.(그림 24, 25)

그 첫 주자는 삼성그룹이다. 삼성가의 2세인 이진희회장은 '건축가 쇼팽'이라는 속어가 생길 정도로 국내 각종 사옥은 물론 삼성문화재단 관련 문화시설에 외국건축사를 적극적으로 초빙했다. 1980년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회장이 삼성그룹 사옥 디자인을 외국 건축사에 의뢰한 경우가 삼상생명, 삼성화재, 중앙일보사옥 등이었는데 반해, 이진희회장은 로딩갤러리(KPF작), 삼성라움미술관(렘 쿨 하스, 장 누벨, 마리오 보타), 서울대현대미술관(렘 쿨 하스), 삼성현대미술관계획(프랑크 게리) 등 문화관련 시설에 적극적으로 외국건축사를 초빙하여 세계건축의 흐름을 빠르게 수용하는 면모를 보였다.

삼성에 비해 2세 체제가 늦게 갖추어져 보다 젊은 2세 경영체제를 갖춘 SK그룹(최태원회장)이나 현대산업개발(정몽규회장)의 경우 삼성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건축을 도입할 뿐 아니라 비교적 디자인의 보수성이 강한 사옥(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타워/ 다니엘 리베스킨트, SK T-Tower, RAD의 아론 탄)의 디자인에 외국의 젊은 건축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차

이를 보인다. 대기업의 외국건축사 선택에서 이와 같은 빠른 변화는 재벌그룹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창업세대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디자인은 선진국의 앞선 디자인 감각과 기술로 동시대 국내 건축계의 디자인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은 있었지만, 그들이 설계한 건축물이 대규모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요 작업목록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건축주의 요구가 세계적인 건축사에게 작품을 의뢰하는 태도에 기인한다. 창업세대는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작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장모델로 삼았던 선진국의 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줄 디자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교보빌딩이나 기쇼 쿠로가와외 롯데월드 프로젝트에서 외국건축사들이 이전 작업의 재생산 또는 작품이 아닌 논벌이 수단으로서의 설계라는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그러나 2, 3세대 경영진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디자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외국건축사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독창적인 작업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국내 건축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대형건축물설계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대기업 2세경영체제가 가져온 변화는 디자인의 변화는 물론 설계사무소의 건축사 세대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건축사의 디자인 수입구조 변화와 의미

너무 활짝 열린 탓일까? 그리고 빠르게 열린 탓일까? 그동안 닫혔던 문호가 88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활짝 열렸지만, 그 문은 나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오는 문이었다. 그 문으로 외국 건축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한국 건축사를 위한 문은 좀 더 천천히 열렸다.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은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88올림픽에 대비해서 한국의 도시가 달라진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일 것이다.

우선 서울이 가장 크게 변했다. 수도인 서울을 60, 70년대의 모습으로 내보일 수 없다고 생각한 정부는 서울의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재개발과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정도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올림픽을 분산 개최하는 지방도시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그 면모가 일신되었다.

그렇게 판을 짜놓고 외국의 건축사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설계관행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건축사들의 작업은 공공프로젝트의 설계경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대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70년대에 정부를 통해서 수입되던 외국건축사들의 국내 진출이 정부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외국건축사와 디자인 선택의 기준도 재벌회사의 2세 경영체제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후반들어 국내 건축설계에 참여하는 외국건축사 디자인의 수입루트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대규모 건축프로젝트에 국한되었던 외국건축사

의 초청이 중소규모의 건축건축물로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대형설계사무소가 전략적으로 섭외하는 외국건축사가 아닌, 아틀리에 중심의 젊은 건축가그룹이 외국에서의 수학이나 국내의 건축행사에서의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외국의 신진건축사들 중 생각을 공유하는 젊은 건축사를 적극적으로 국내 건축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규모의 미술관 설계와 파주출판단지의 외국 건축사 참여가 그 예다.

외국건축사의 수입은 항상 국내에서 부족한 무엇을 메우기 위해 필요했다. 단 시기에 따라 부족한 내용이 달랐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었을까? 전후 외국건축사에 의한 원조건축물은 총체적인 부족을 메우는 total service 개념에 가까웠고 우리에게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1970년대는 부족한 프로그램능력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신뢰를 수입에 의존했고, 1980년대에는 63빌딩과 같이 초고층 건축물의 기술을 수입했다. 2000년대 들어 기술도, 프로그램도 아닌 외국건축사의 브랜드 가치를 수입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건축주의 층이 두터워지고 국내 건축사의 역량이 축적되면서, 외국건축사의 선택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 과거 대규모건축에 있어 외국건축사의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으로 중소규모의 건축주도 외국건축사 고용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아틀리에 건축가를 중심으로 종속이나 맹목적 의존이 아닌 동시대의 다양한 건축적 사고를 공유하고 실험하는 외국건축사와의 교류와 공동 작업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세월동안 학습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외국건축사의 참여에는 국내건축사의 작업에 자극제가 되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동인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가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국건축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한국건축사를 외국건축사의 하청업자로 전락시키는 행위(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국제현상 공모)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제도화되는 경향까지 있다. 이는 1960년대말 정부종합청사 설계에서 우리 건축사를 불신하고 외국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겼던 선택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마땅히 분개해야 할 일이지만 건축계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무엇을 어떻게 채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는 항상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다. ■

전 한 중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Jun Han-jong

서론

최근 들어 주거건축의 관심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파트에서도 단순한 양적 공급차원보다는 질적 공급으로의 전환과 차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차별화는 건설사, 건축사, 입주자 모두에게 공통된 것으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파트 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차별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입면의 차별화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¹⁾

국내 아파트의 입면 디자인경향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단순한 형태의 입면에 외벽 마감면의 무늬장식, 새로운 재료 등이 적용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단지배치와 내부공간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나 입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획일적인 박스형태의 메스에 서 계단실 층고 변화를 이용한 디자인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복층형 아파트의 창문 모양과 벽면 가운데의 보이드 공간에 의한 입면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1층 부분의 필로타를 이용하는 등의 입면디자인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1990년에는 층고변화, 테라스하우스 개념의 도입, 창문의 형태 변화 등을 이용하여 입면디자인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초고층 아파트의 출현 등으로 아파트의 입면 디자인은 디자인 차별화 및 디자인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 권석범, 김현철, "고층아파트 입면분석을 통한 입면다양화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1.4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차별화된 아파트 입면 디자인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디자인 요소들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파트 입면계획에 관여하게 되는 건축전문가들 특히 건축사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파트 건축 설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과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로 칭함) 기법을 분석도구로 선정하여 아파트 입면 디자인요소를 결정하여 디자인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분석도구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의사 결정자가 추구하는 목표 또는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들 간의 체계적인 비교는 의사결정기준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고 선호되는 정도를 계량화하여, 이를 종합화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다 기준 하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선호도 측정과 그에 따른 평가는 의사결정자가 고려해야 할 속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척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 기준 의사결정은 일련의 활동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거해서 판단되고 종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자 또는 의사결정자 집단의 인지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는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들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속성이 다르고 그 측정 척도 또한 다른 의사결정요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종합화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Delphi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작성된 질의서를 해당과 이유를 들고 이를 통계적으로 집계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결론을 얻는다.

AHP

요소 간 상호 연관 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계층적 구조로 표상화 하고, 각 요소간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주관적인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행함으로써 요소의 상대적 비중,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대안의 선정 등의 결정지침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다.

아파트의 입면 디자인 요소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AHP기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특성상 디자인 요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건물 외관의 심미성, 예측할 수 있는 만족도 등과 같은 정성적인 가치와 건물의 성능에 대한 수치적인 값, 유지비나 건축비와 같은 비용문제 등과 같은 정량적인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AHP기법은 분석에 대한 척도가 비교적 명확하고 다목적, 다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상호교차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AHP기법은 의사결정요소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 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Saaty, 1980).

AHP기법의 문제해결 접근방식

AHP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의사결정문제를 계층구조(hierarchy)로 분해하는 단계이다. AHP를 다기준 하에서의 대안 선택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 상황을 전반적인 목표(overall goal), 기준(criteria), 하부기준(subcriteria), 대안(alternatives) 등으로 계층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계층구조로 만든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계층화 작업은 복잡한 문제 상황을 단순화시켜 인간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부분화하고 이를 다시 종합화할 수 있는 구성적 시스템 접근방식의 형태를 취한다(Muller-Merbach, 1994).

이러한 계층화 작업은 관련성 있는 평가기준들을 군집화, 단계화 함으로써 인간의 단기 기억능력(short-term memory)과 판별능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Dyer and Forma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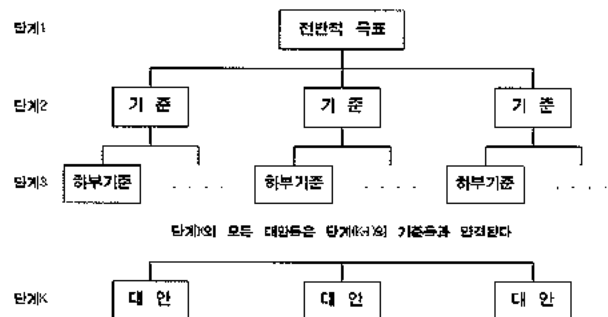


그림 1. 의사결정 계층구조

두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요소들 간의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상대적 선호도를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즉, 전반적인 목표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기준들 간의 가중치, 그리고 하위기준이 바로 전단계의 기준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의사결정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이원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세번째 단계는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경험적 자료로 얻어진 평균무작위지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e, CR)로 검정 할 수 있다. 일관성 비율(CR=CI/RI)의 값이 10% 이내인 경우에만 서수적 순위에 무리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서 사용할 수 있다. AHP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수집 및 평가단계에서 의사결정자가 내리는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계층구조의 종합화(synthesis)를 통해 대안들의 종합적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계층구조를 이루는 모든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상대적 선호도를 종합하여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다.

델파이(Delphi) 기법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는 예측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 델파이기법이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이나 우편조사방법으로 표준화와 비교준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회에 걸쳐 피드백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내용을 얻는, 소위 집단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이다(김진웅, 1999).

기존의 집단 의견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우선 소수의 의견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고, 합의를 요하는 그룹의 응력은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 내의 지배적인 인사가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의된 안이 되기보다는 타협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델파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앞에서 지적된 의사결정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참가자들 간의 서면 질의응답방식을 사용하여, 구성원인 전문가들의 집단을 공식적으로 소집해 한 장소에 모이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feed-back을 통한 반복설문 실시로 본 목적적인 의견 일치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다. 또한 그룹 반응의 통계적인 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수의 의견까지도 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1차 계층구조모형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델파이 기법을 통해 아파트 설계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계층구조모형을 제시하도록 델파이기법을 채택하였다.

아파트 주동입면 디자인 요소의 계층구조모형

아파트 주동입면 디자인 요소 추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입면 디자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추출하고 있다. 첫째는 아파트 거주자들과 아파트를 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의 인지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아파트 외관에 대해 사용자들의 시지각 차원을 분석한 방법이다.

인지특성에 관한 분석

인지특성 분석은 전문가와 거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시각 환경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각 인자로 분류된 변인들의 특성과 각 인자간의 관계를 참고로 하여 아파트 입면디자인에 관한 인지특성을 '단시군집형상', '주거동형상', '단위주호형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및 거주자의 인지 분석 결과를 각 사례 유형별로 정리하면 '단시군집형상'은 단지의 배치형태, 녹지 및 외부공간, 주위 경치와의 조화, 건물간 인동간격, 건물의 높이와 길이, '주거동형상'은 건물 전체의 모양, 건물 출입 방식, 건물 출입

구 모양, 지붕 모양, 건물 색채, 외장 재료, '단위주호형상'은 창문 크기, 개폐 방식, 창문 모양, 발코니 형태 등의 건축계획요소로 분류되었다(이정수, 심우갑, 1993).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개념과 건축계획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선호되는 건축계획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단시군집형상'에서는 건물지붕모양, 건물의 높이변화, 주위 경관과의 조화, 건물 색채가, '주거동형상'에서는 건물 전체의 모양, 건물 색채, 외장 재료가, '단위주호형상'에서는 발코니 형태, 창문 개폐방식, 창문 모양, 건물 색채, 건물 재료 등이 선호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인지 특성에 의한 변인 추출(이정수, 심우갑, 1993)

	인지 특성	선호 특성
단시군집 형상	단지의 배치형태 외부 공간 주위 경관과의 조화 건물간의 인동간격 건물의 높이와 길이	건물지붕모양 건물의 높이변화 주위 경관과의 조화 건물 색채
주거동 형상	출입구모양 출입방식 주도적 외장재료 국부적 색채	건물 전체의 모양 외장 재료 건물 색채
단위주호 형상	발코니크기 발코니모양 창문형태 창문 개폐방식	발코니 형태 창문 개폐 방식 창문 모양 건물 색채 건물 재료

시지각적 차원에 관한 분석

아파트와 같이 하나의 주거단위를 모듈로 하는 건물은 어느 한 주거단위의 발코니나 창고의 형상이 개별적으로 지각되기 보다는 발코니나 창고의 패턴과 같은 원형 요소들의 집합적인 패턴으로 지각된다. 따라서 발코니나 창고의 어느 한 형상만을 시지각 대상으로 할 수 없고 2차원적인 면에서 발코니나 창고의 형상들이 이루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성질들을 시지각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많은 행태 및 지각 연구자들, 건축 이론가들에 의해서 고층 아파트의 주 입면 디자인 요소와 그 차원이 설정되었는데, 크랙렌, 브로린, 크리에, 베이콘 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고층 아파트의 주동 입면에서 지각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 및 그 지각차원을 그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 매스 윤곽형상 2) 마감재료 및 세부적 요소 3) 입면의 패턴 및 형태 4) 색채로 구분할 수 있다(이광영, 김정재, 1995).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입면 디자인 요소들이 인간에게 시지각될 때 그 디자인 요소들이 시지각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이것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그룹화 되어 나타나고, 또한 각 그룹들은 어떤 유형과 속성들로 패턴화 되는지 조사해본 결과, 거주자들이 아파트 외관을 지각할 때 시지각 디자인 요소들을 그 대상의 속성, 유기체의 상태 및 지각적 속성의 영향 속에서 외관전체, 부분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지각 메커니즘인 특정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4개의 시지각 차원으로 이들의 관계를 식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출된 변인들을 토대로 선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변인들은 '표 3'과 같다.

표 2. 건축물 주동 입면 디자인 요소의 종류

주입면 디자인 요소	M. Kraampen	B. Broijn	E. Bacon	R. Krier
매스유평형상	건물 윤곽 건물 층수	윤곽선 형태	전체 높이	스케일 건축물 높이
마감재료 및 세부적 요소	건물 더테일	재료	시공 재료	재료 표면 질감
입면의 패턴 및 형태	창문	창문 및 문 배열 방향성 형태	형태의 특성 패턴 창문대기	파사드
색채		색채	색채	색채

표 3. 시지각 차원에 의한 변인 추출(이광영, 김정재, 1995)

차 원	시지각 차원	선호 특성
1차원 시지각요소 (구조적 요소)	건물 전체의 모양 매스유평형상 층수변화 건물 지붕 모양 주도적 색채	건물윤곽형상 주도적 색채 지붕모양
2차원 시지각요소 (색채 및 강조요소)	출입구모양 출입방식 주도적 외장재료 국부적 색채	주도적 외장재료 출입구 모양 벽면의 국부적 색채
3차원 시지각요소 (외관적 요소)	발코니크기 및 모양 창문형태 창문 개폐방식	발코니 모양 벽면 모양 창 모양
4차원 시지각요소 (마감 및 세부요소)	발코니 난간 재료 및 색채 및 형태 발코니 형태 창문 재료 및 색채 창문 형태	발코니 난간 출입구 색채 지붕 색채 창문 색채 발코니 난간 색채

1차 계층구조모델

계층구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인지 특성과 시지각 차원에 의해 추출된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의미가 다른 요소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삭제함으로써 변인들을 추출하였고 그것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인자들로 분류하였다.

건물 형태는 인지특성에서의 단지군집형태, 주거동 형태의 변인들을 포함하고, 시지각 차원에서는 1차 시지각 요소인 주동 매스와 관련된 구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색채 및 재료는 인지특성과 시지각 차원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 중에서 벽면의 국부적 색채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

표 4. 각 특장별 변인 비교

	인지특성	시지각 차원
건물형태	주위 경관과의 조화 건물의 높이, 길이 건물간 인동간격 지붕모양 건물 전체의 모양 건물 출입구 모양	건물의 전체모양 지붕모양 출입구 모양 벽면의 형상(凹凸)
색채 및 재료	건물색채 외관재료 발코니 및 창문 색채 발코니 및 창문 재료 발코니 난간 및 창문 색채	건물의 주도적 색채 주도적 외장재료 출입구 색채 지붕 색채
세부요소	발코니 형태 창문 모양(크기 및 비례) 창문개폐방식	발코니 모양 발코니 난간모양 창문 모양

을 변인에 포함하였다.

세부요소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건물 전반에 걸쳐서 비례감, 리듬감등을 조성하는 인자로서, 단위 주호 형상과 4차 시지각 요소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너무 많은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인들만 포함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자에 알맞은 변인들을 추출한 내용을 보면 '표 4'와 같다.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추출된 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변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변인들은 아파트 입면과 관련 없는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그림 2'에서와 같이 1차 계층구조모델로 제시하였다. 주위 경관과의 조화, 건물의 인동간격 등은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주동의 입면 요소라기보다는 단지배치적인 요소이고, 건물의 높이와 길이는 건물 전체의 모양에 포함시켰다.

델파이 기법에 의한 계층구조모델의 결정

조사의 개요

델파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4라운드로 이루어져있지만 최근에는 2라운드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2라운드로 축소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아파트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 하였고, 주요 설계 사무실과 건설회사 설계실 근무자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80부를 보내고 58부를 회수하여 72.5%의 회수율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는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였으며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아파트 디자인 관련 경력으로는 5년 이하(56%)와 6~10년(39%)의 분포가 전체의 95%가량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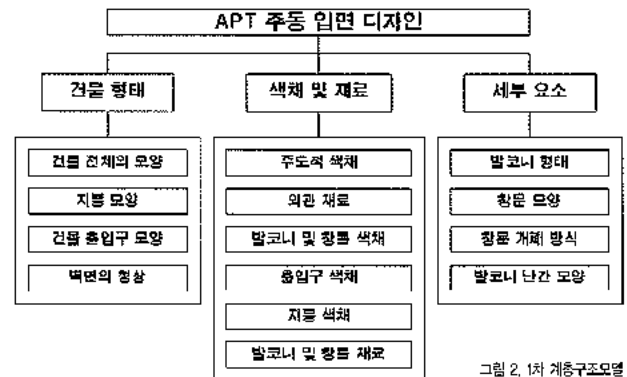


그림 2. 1차 계층구조모델

조사의 방법

우선 인지특성에 의한 분석과 시지각차원에 의한 분석에서 추출된 모든 요소들의 타당성을 묻는 항목과 1차 계층구조모델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소들의 타당성을 묻는 항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아파트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들의 결과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첫째로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경향을 분석하였고, 둘째로 전체 응답자의 95%가량을 차지한 경력 5년 이하인 전문가와 경력 6~10년인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빈도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도표화 작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추출함으로써 최종 계층구조모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계층구조모델에서 제시한 요소들에 대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들의 1차 계층구조모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입구 색채, 발코니 및 창틀 재료, 창문 개폐 방식 등의 항목에서 '별로 타당하지 않다'에 각각 24.6%, 26.3%, 43.9%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델파이 기법의 분석방법 중 그룹반응의 통계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분위수, 즉 전체 요소들 중 25%이상의 빈도를 가지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특성 및 시기각차원에 의한 요소들에 의한 결과와 기타 의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건물 출입구 모양, 발코니 및 창틀 색채, 창문모양의 항목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옥탑디자인, 코어의 창문형태의 항목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빈도분석은 앞서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였고, 기타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5. 델파이 기법 설문조사 빈도분석 결과
(단위: % / 명)

상위기준	하위기준	1	2	3	4	5
건물 형태	건물 전체의 모양	61.4 / 35	35.1 / 20	1.8 / 1	1.8 / 1	0 / 0
	지붕 모양	14.0 / 8	64.9 / 37	10.5 / 6	10.5 / 6	0 / 0
	건물 출입구 모양	14.0 / 8	45.6 / 26	21.1 / 12	19.3 / 11	0 / 0
	벽면의 형상	19.3 / 11	57.9 / 33	14.0 / 8	7.0 / 4	1.8 / 1
색채 및 재료	주도적 색채	35.1 / 20	57.9 / 33	5.3 / 3	1.8 / 1	0 / 0
	외관 재료	24.6 / 14	64.9 / 37	5.3 / 3	5.3 / 3	0 / 0
	발코니 및 창틀 색채	10.5 / 6	47.4 / 27	22.8 / 13	19.3 / 11	0 / 0
	출입구 색채	10.5 / 6	43.9 / 25	21.1 / 12	24.6 / 14	0 / 0
	지붕 색채	9.1 / 5	60.0 / 33	16.4 / 9	14.5 / 8	0 / 0
	발코니 및 창틀 재료	1.6 / 1	49.1 / 28	19.3 / 11	26.3 / 15	3.5 / 2
	창문 개폐 방식	3.5 / 2	36.8 / 21	10.5 / 6	43.9 / 25	5.3 / 3
세부 요소	발코니 형태	17.5 / 10	61.4 / 35	12.3 / 7	8.8 / 5	0 / 0
	창문 모양	7.0 / 4	57.9 / 33	14.0 / 8	19.3 / 11	1.8 / 1
	창문 개폐 방식	3.5 / 2	36.8 / 21	10.5 / 6	43.9 / 25	5.3 / 3
	발코니 난간 모양	15.8 / 9	54.4 / 31	12.3 / 7	17.5 / 10	0 / 0

*1 : 매우 타당하다 2 : 어느정도 타당하다 3 : 모르겠다
4 : 별로 타당하지 않다 5 : 전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응답자들의 그룹을 경력 5년 이하와 6~10년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력 5년 이하에 비해 경력 6~10년의 응답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출입구 색채, 발코니 및 창틀 재료, 창문 개폐 방식 등의 항목들에서 경력 5년 이하의 그룹에 비해 경력 6~10년인 그룹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표 6). 즉, 비록 경력 5년 이하인 그룹의 응답자가 양적으로는 더 많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경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경력 6~10년인 그룹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과 도표화 작업을 바탕으로 설문 응답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 출입구 모양, 발코니 및 창틀 색채, 출입구 색채, 발코니 및 창틀 재료, 창문모양, 창문 개폐 방식 등의 항목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의 수치가 높으므로 문제점이 있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둘째, 건물 출입구 모양은 설문응답 중 기타의견에서 건물형태보다는 세부요소에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세부요소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창문모양은 그 명칭이 애매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창문크기로 변경하였다.

표 6. 경력자의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단위: % / 명)

	경력	1	2	3	4	5
발코니 및 창틀재료	5년이하	13.6 / 3	50.0 / 11	27.3 / 6	9.1 / 2	0 / 0
	6~10년	18.8 / 3	37.5 / 6	12.5 / 2	31.3 / 5	0 / 0
출입구 색채	5년이하	13.6 / 3	45.5 / 10	22.7 / 5	18.2 / 4	0 / 0
	6~10년	6.3 / 1	43.8 / 7	18.8 / 3	31.3 / 5	0 / 0
창문 개폐방식	5년이하	4.0 / 1	22.7 / 5	18.2 / 4	54.5 / 12	0 / 0
	6~10년	0 / 0	43.8 / 7	6.3 / 1	43.8 / 7	6.3 / 1

*1 : 매우 타당하다 2 : 어느정도 타당하다 3 : 모르겠다
4 : 별로 타당하지 않다 5 : 전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출입구 색채, 창문 개폐방식 등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넷째, 기타 의견에서 발코니 및 창틀 색채 항목과 발코니 및 창틀 재료 항목에서 발코니 색채와 재료가 아닌 창틀의 색채와 재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의 두 항목을 발코니 색채 및 재료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또 다른 기타 의견에서 최근 아파트 디자인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옥탑 디자인과 코어의 창문형태는 각각 건물 형태와 세부 요소 항목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1차적으로 제시한 계층구조모델을 종합하여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계층구조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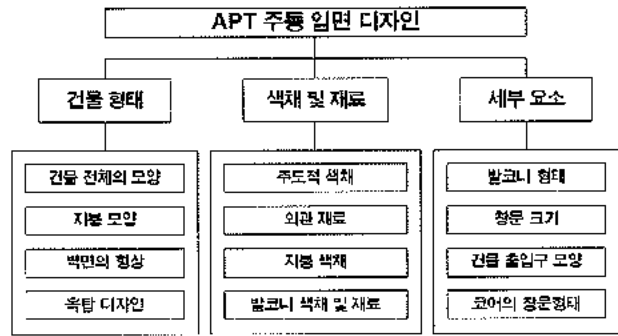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계층구조모델

AHP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분석

조사의 개요

설문에 응한 인원은 총 28명이었으며 일관성이 없는 응답을 한 3개의 응답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후반에서 40대이며,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설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계층구조모델을 작성할 때 설문에 응했던 전문가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응답결과 분석

상위기준으로 설정한 건물 형태와 색채 및 재료, 세부 요소의 경우 건물 형태가 전체 의견의 61.5%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색채 및 재료와 세부 요소는 각각 17.8%와 20.7%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건물 형태가 다른 기준들에 비해 월등히 중요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지만 각각의 하위기준들의 중요도는 꼭 상위기준과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림 4'와 같은 응답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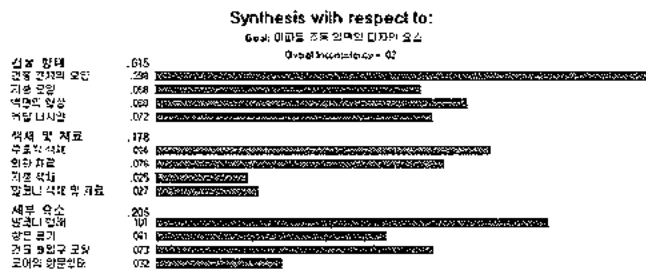


그림 4. 하위기준들의 중요도 측정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위기준 항목에서는 건물 형태가 다른 기준들에 비해 중요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기준의 요소들을 비교해 본 결과 건물 전체의 모양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주동 입면의 계획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출된 상위기준 요소는 건물의 형태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부 요소, 색채 및 재료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 가중치에 의한 하위기준요소들을 살펴보면, 건물의 형태에 속하는 요소가 항상 다른 요소들에 우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 형태의 건물 전체의 모양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도출되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세부 요소의 발코니 형태와 색채 및 재료의 주도적 색채가 차기 요소로 도출되었다. 비록 상위기준의 중요도는 모두 다르지만 건물 전체의 모양, 발코니 형태, 주도적 색채,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대략 전체의 전반적 가중치를 약 50%가량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 밖에도 벽면의 형상, 외관 재료, 건물 출입구 모양, 옥탑 디자인, 지붕 모양, 창문 크기와 같은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코어의 창문형태, 발코니 색채 및 재료, 지붕 색채와 같은 요소들은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요소로 나타났다.

표 7. 하위 기준 가중치

상위기준	하위기준	지역가중치	전반적 가중치	중요도 우선순위
건물 형태 (0.615)	건물 전체의 모양	0.575	0.298	1
	지붕 모양	0.131	0.068	8
	벽면의 형상	0.155	0.080	4
	옥탑 디자인	0.139	0.072	7
일관성 비율 (CR) = 0.01				
색채 및 재료 (0.178)	주도적 색채	0.402	0.086	3
	외관 재료	0.354	0.076	5
	지붕 색채	0.118	0.025	12
	발코니 색채 및 재료	0.126	0.027	11
일관성 비율 (CR) = 0.00				
세부 요소 (0.205)	발코니 형태	0.378	0.101	2
	창문 크기	0.228	0.061	9
	건물 출입구 모양	0.275	0.073	6
	코어의 창문형태	0.119	0.032	10
일관성 비율 (CR) = 0.00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AHP기법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아파트 입면 디자인에 있어서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의 선호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아파트 입면 디자인 요소의 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 고찰을 통해 아파트 주동 입면의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계층구조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계층화단계에서 델파이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인 최종 계층구조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디자인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한 디자인 요소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상으로는 건물의 형태가 색채 및 재료, 세부 요소에 비해 월등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의 하위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건물 형태에 속한 디자인 요소일지라도 다른 기준에 속한 디자인 요소들보다 중요도가 낮게 분석된 것들이 발견되었다. 즉, 상위 기준의 중요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 디자인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건물 전체 모양(29%)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발코니 형태(10%), 주도적 색채(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상위요소로 제시한 건물 형태, 색채 및 재료, 세부 요소에서 각각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요소들이었다. 따라서 전체 디자인 요소들의 우선순위는 상위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하위기준 요소들의 중요도 분석 결과 건물 전체의 모양(0.298), 발코니 형태(0.101), 주도적 색채(0.086), 벽면의 형상(0.080), 외관 재료(0.076), 건물 출입구 모양(0.073), 옥탑 디자인(0.072), 지붕 모양(0.068), 창문 크기(0.061), 코어의 창문형태(0.032), 발코니 색채 및 재료(0.027), 지붕 색채(0.025)의 순으로 그 중요도가 조사, 분석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건물 전체의 모양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문헌조사에서 인지 특성에 의한 인자 중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된 단지군집형상과 시지각차원에서의 1차원 시지각 요소와 상호연관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설계과정에서 건물의 형태, 그 중에서 건물 전체의 모양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에서 아파트설계에 관여하는 많은 건축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근에 본인이 연구 발표한 논문을 발췌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8회 이사회

2006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8월 17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건축사 연수교육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과 건축사 공제사업 실무작업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건축문화신문 보수 및 원고료 등의 지급체치 제정안 승인의 건, 정회원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전국건축사미술전 예산지원 승인의 건, 2006년 건축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교육시설 부문의 BTL 발주에 관한 건, 건축자재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 연수교육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기 간 : 2006. 9. 13 ~ 16

▷장 소 : 코엑스 장보고홀 및 대서양홀 (전시관내) 교육장

▷주최/주관 : 건설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소요예산 : 1,000만원

▷지출과목 : 일반회계 연수사업비

▷건축사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이번 건축사 연수교육에 참여한 건축사는 향후 계속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건축사 공제사업 실무작업 추진 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추진방안 : 실무작업 T/F팀 구성 운영(2개월, 필요시 연장)

▷소요예산 : 1,500만원

- 제3호의안 : 건축문화신문 보수 및 원고료 등의 지급체치 제정안 승인의 건

- 제정(안) 중 제7조 1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 정회원 회비를 5년 이상 장기미납한 자를 제명하고 제명된 자의 미납회비는 결손처분기로 하되, 최종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해주기로 함.

- 제5호의안 : 전국건축사미술전 예산지원 승인의 건

- 「전국건축사미술전」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키로 하되, 지원금은 '문화활동지원사업비'에서 목내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2006 건축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협의사항

- 제1호 : 교육시설 부문의 BTL 발주에 관한 건
- 교육시설 발주와 관련하여 각 시·도별로 사례를 조사중인 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기로 함.
- 취합된 사례를 토대로 법제위원회에서 분석·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자재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건
- 자재인증사업의 추진방향 및 예산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관련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노력하기로 함.

위원회 회의

■ 제5회 시·도건축사회회장 회의

2006년도 제5회 시·도건축사회회장 회의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에 관한 건과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교육시설 부문의 BTL 발주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에 관한 건

-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의한 연수교육과 연계할 예정인 바, 각 시·도건축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제2호 :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 가급적 많은 건축사회장들이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하기로 함.

• 제3호 : 교육시설 부문의 BLT 발주에 관한 건

- 교육청의 교육시설 발주와 관련하여 각 시·도별로 사례를 조사중인 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취합된 사례를 토대로 법제위원회에서 분석·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함.

■ 제8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2006년도 제8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험호 제호 결정의 건과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시험호 제호 결정의 건
 - 시험호 제호와 관련, (환)아름체, HY백송B, 휴먼엣체 3개 형태를 검토해 'HY백송B체'로 결정함.
- 제2호 :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
 - 창간호 1면은 사진과 지면안내, 사진 아래에 붓기사의 타이틀로 편집하기로 함.
 - 지면 광고 수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집위원들이 노력하기로 하고, 창간호는 건축사지 게재 광고 등을 싣기로 함.
 - 창간호에 게재할 만평의 시험판을 검토해 추가할 사항들을 편집위원들이 유원재 건축사에게 연락하기로 함.
 - 건축가협회 등 3단체장에게 명사칼럼을 의뢰하기로 함.
 - 국회 건교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의뢰기로 함.

■ 제9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2006년도 제9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이 논의되었다.

▲회의결과

- 제1호 :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
 - 시험호를 최종 제작기로 함.

■ 제10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2006년도 제10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30분 한국 CTS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이 논의되었다.

▲회의결과

- 제1호 :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
 - 시험호 초안을 수정함.

■ 제11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2006년도 제11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9월 5일 오전 9시 30분 한국 CTS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이 논의되었다.

▲회의결과

- 제1호 : 창간호 시험호 기획의 건
 - 시험호 수정안을 검토함.

■ 제12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2006년도 제12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간호 최종안 검토의 건이 논의되었다.

▲회의결과

- 제1호 : 창간호 최종안 검토의 건
 - 시험호 최종안을 검토함.

■ 제8회 법제위원회

2006년도 제12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가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BTL 관련 설계발주 행태에 관한 건,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법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교육인적자원부 BTL 관련 설계발주 행태에 관한 건
 -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있어 어린이도 순수하게 계획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금전적인 보상에 의한 행위라면 건축사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 시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물량을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위법하게 발주하고 있는 교육청을 직접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
 - 감사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여야 함.
 - 논리개발에 대한 내용을 박준승 위원이 작성한 레포트를 바탕으로 다음회의에서 보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여야 함.

〈정리〉

- 박준승 위원이 논리개발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다음 회의에서 보완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에 공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감리의 발주용역사례조사를 9월1일까지 취합하기로 함.
 - ▷시공 후 감리 부실로 인한 사례조사 포함
- 제2호 :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사감리계약서와 설계계약서의 통일성을 갖도록 개요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계약서 교시가 빠른시일안에 개정되도록 건설교통부 담당자와 협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물의 유지관리법에 관한 사항
 - 법안발의하기 전까지 축소심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 위원이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기로 함.
- 제4호 : 기타사항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 ▷설계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좀더 검토하여 차기 회의시 재논의하기로 함.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방안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각자 위원이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주기로 함.

■ 제9회 법제위원회

2006년도 제9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9월 5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설계·감리발주영역에 대한 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교육청의 설계·감리발주영역에 대한 건
 - 기본설계와 연구용역(대안제시)은 별도로 구분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연구용역안에 기본설계가 포함되어 발주하는 것은 건축사법에 위배됨.
 - 교육청의 건축물 설계연구용역에 기본설계도서범위까지 포함하여 발주하는 사례와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리발주를 하지 않는 교육청의 사례를 지적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시 또는 감사원에 건의 및 민원제기를 하기로 함.
 - 이사회에 상정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함.
- 제2호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
 - 법에서 규정한 “일조기준적용시의 특례”를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로 규정하고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면 사업성이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이 감면 또는 제외되어야 함.
- 제3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
 - 광고물정책위원회에 건축사 및 건축과 디자인에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자가 개정안 제7조2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에 삽입되도록 건의하기로 함.
- 광고는 건축물의 일부분이므로 설계자와의

협의를 받도록 하여야 함.

-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 확인 및 창작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건의(안 제7조)하기로 함.
- ▷설계자의 창작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설계자와의 협의를 하여야 함

■ 제4회 국제위원회

2006년도 제4회 국제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제10회 한중일건축사협회 참가에 관한 건, Architecture Asia 작품제출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 올해 행사의 경우, 아카시아 사무국 업무인계 및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등 관련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국제위원들이 참가하기로 하고 예산상의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하기로 함.
 - 각 행사에 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함.
 - Country Report와 ACAE Report는 심재호 국제위원장장과 정재욱 국제위원이 각각 작성하기로 하고, 레포트에 포함될 '건축학교육인증원' 및 'APEC 등록건축

사' 관련 자료는 이근창 부회장과 신춘규 국제부위원장님이 각각 작성하기로 함.

- Friendship Night 행사에 관한 사항은 강정삼 위원이 담당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지원하기로 함.
- 참가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제10회 한중일건축사협회 참가에 관한 건

- 발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주제발표(오전 회의) ≡ 신춘규 국제부위원장

※주제 : Criteria and Requirement from the Three Countries on Mutual Recognition of APEC Architects Project)

▷건축사 실무관련 발표 2인(오후 회의)

※ 주제

1. Landscape in Urban Environment

≡ “선유도공원”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하고, 발표자는 민규암 국제위원이 “선유도 공원” 조성에 관여하였던 관련자(조성룡 건축사 및 서안조경)와 연락하여 적임자를 추천하기로 함.

2. Energy-Saving Architectural Design Technology

≡ 심재호 국제위원장으로부터 법건축사사무소의 1인을 추천받기로 함.

▷참석자는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하고, 예산이외의 추가되는 참가경비는 참가자들이 공동 분담하기로 함.

≡ 회장, 이근창(국제담당이사), 김지덕

일 시	행 사 명	담당자 및 참가자	보고서작성
9. 17	ACAP	이근창, 이영수, 심재호	이영수
	Fellowship meeting	이근창, 김지덕, 최재희	이근창
9. 18~19	아카시아 이사회	회장, 이근창, 김지덕, 이영수, 심재호, 강정삼, 민규암, 오근석, 최재희,	심재호, 최재희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정재욱, 신춘규, 차성민, 이성란	정재욱
9. 20	ACA-12 General Session	민규암, 오근석, 이성란, 차성민	민규암(취합)
'06. 9. 21	ACA-12 Sub-session		
	Session 1 - 아시아 건축문화와 지역주의	※ 참가시 현지사정에 맞게 대표단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참가할 예정	민규암(취합)
	Session 2 - 건축실무와 설계 시장		
	Session 3 - 자연친화적 건축물과 지속가능한 발전		
	Session 4 - 인테리이 디자인과 자연		

(국제전문위원), 신춘규(국제부위원장), 차성민, 이성란, 민규암(이상 국제위원), 건축사 실무관련 발표자 2인

• 제3호 : Architecture Asia 작품제출에 관한 건

- 강정삼, 민규암 국제위원이 작품을 제출하기로 함.

■ 제1회 교육·시험위원회

2006년도 제1회 교육·시험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사 연수교육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이 논의되었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 연수교육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협의

- 필증내용 및 교부방법에 대한 사항

▷교육참가확인서는 교육장 출입시에 연수참가자에게 교부하고 교육종료 10분 전부터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며, 필증은 사후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발송하기로 함.

▷답사참가확인서는 모임장소를 정하여 그곳에서 교육참가 확인서를 받고 사후에 필증을 시도건축사회별로 일괄적으로 발송하기로 함.

▷"전시참가확인서"는 전시장 내에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부스에서 확인서를 교부하고 제출받도록 함.

- 답사지 계획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을 설계한 정림건축사사무소에 안내요청을 하고 해리 마을 및 청계천문화관에 공문을 보내 안내요청을 하기로 함.

- 건축관련 영상자료 선정에 대하여

▷YTN 방송사에 방영한 "초고속 빌딩 도시를 바꾼다"와 EBS 방송사에 방영한 "마이 아키텍"이란 영화를 14일~16일 14:00 이후부터 교육장에서 상영하기로 함.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발표

「청계천문화관」(사회공공부문), 「해송원」(민간부문), 「솔빛 머금은 남쪽마을...」(공동주거부문), 「오름-묵방리주택」(일반주거부문) 대상 수상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2006한국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작품이 발표됐다.

이번 대상은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4개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는데, 사회공공부문 대상에는 「청계천문화관(설계자:김정철/(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현대건설(주)/, 건축주:서울특별시)」이, 민간부문에는 「해송원(설계자:이인호/(주)이래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주)청하건설, 건축주:대양상선주식회사」이, 공동주거부문에는 「솔빛 머금은 남쪽마을...」(설계자:정영균/(주)화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주)KT건설/, 건축주:대한주택공사)이, 일반주거부문에는 「오름-묵방리주택(설계자:임재용/건축사사무소 OCA, 시공자:우성회/, 건축주:우성회)」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 설계자와 공동주거부문 시공자에게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의 시공자, 건축주와 공동주거부문 설계자와 건축주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한다. 또한 본상도 4개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데, 사회공공부문에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민간부문에 (주)하이마트사옥, 공동주거부문에 노은 리

슈빌Ⅱ, 일반주거부문에 동신대학교 기숙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 시공자와 공동주거부문 설계자에게는 국무총리상을,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의 설계자와 건축주, 공동주거부문 시공자와 건축주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한다. 또한 무안백련지 수상유리온실을 포함한 15점은 우수상으로서 모두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상을 각각 시상한다.

한편 일반 및 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서윤승(홍익대 일반대학원 건축학과)씨와 최미경(부경대 건축학부)씨가 공동 출품한 「Mixed-Intersection」이 대상을 차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우수상 5작품, 특선 6작품, 입선 22작품 등 모두 34개 작품이 입상했다.

아울러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서 김종성(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가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공로상에는 정정치(건축사사무소 합정건축 대표, 전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위원장) 건축사와 윤종열(법률신문사 편집국 국장, 전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 부장) 씨가 선정되어 각각 트로피를 수상한다.

아울러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회는 건설회관 로비 2층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 까지 5일간 전시된다.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성료

4일간 2만여 명 관람, 건축사연수교육 7년 만에 부활
‘프로젝트 전시’ 등 건축 전시의 새로운 유형 제시 평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축제전시’를 표방한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KAFF 2006(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월 13일부터 17일 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 열린 이번 전시는 기간내에 2만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주최 측, 일반관객,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건축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한 차별화된 전시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테마관, 우수자재관, 프로젝트관 등 3개 주제관으로 나뉘어 3백여 개의 국내 업체 부스가 전시된 이번 전시는 ‘건축프로젝트 전시관’과 전시물(Mall) 개념을 도입해 건축전시회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프로젝트 전시관’은 하나의 건축전시회(건축모형, 도면, 판넬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그룹들을 한 곳에 집중해 구성함으로써 관람객이 건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현장감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또 공간적인 변화감을 제공해 전시장 내외 공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전시물 개념 도입도 성공적이었다.

또 건축의 문화적인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전시회 취지에 걸맞게 건축 작품전, 건축사 미술전 등이 동시에 열렸고, 장애인 체험장 운영 등 실생활 속에서의 건축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호응이 높았다.

한편 지난 1999년 이후 7년 만에 시행된 건축

사연수교육은 4일간 2천5백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참여 열기 속에 건축설계 서비스 시장 개방 동향, 디지털실계 동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첫날 김진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장이 ‘건축문화선진화 추진 전략’에 대해, 이근창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이 ‘건축설계 서비스 시장개방 동향’에 각각 강연했고, 매일 오전 건축법령 관련 및 건축 관련 신기술 소개 등이 열렸으며, 오후에는 현대건축을 답사교육의 일환으로 ‘해이리 마을(제1코스)’, ‘국립중앙박물관’, ‘창계천(제2코스)’ 견학이 진행됐다.

1. 개막식 테이프 커팅 2. 전시장 각 업체 부스 참관 3. 장애인 체험관 시연 4. 건축사 미술전 참관 5. 건축사 연수교육 전경
6. 2006한국산업대전 전시장 전경 7. 전시장 업체 부스 전경 8. 참가 업체 상담 사례 9. 건축사 연수교육 초청강연회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6년 8월 31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06. 8월중 진행된 본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건축공정은 커튼월 창호공사, 지상층 내부미장공사, 계단 핸드레일공사, 화장실 벽체설치공사, 옥탑 철골구조물 설치공사, 옥탑층 외벽석공사, 계단실 도장공사 등의 주요 마감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기 및 소방공정은 PIT내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와 전화 및 TV배선공사, 알람벨브 배관공사, 화장실 배기덕트 공사 등이 진행되었다.

설계변경사항으로는 당초 지상층 공용부 엘리베이터홀 벽면에 설계된 무늬목 자재에 대해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대리석 자재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당초 엘리베이터 홀에 설계된 S.G.P 방화문에 대해 개방감 확보를 위해 협회 사용층(지상5층~7층)에 한해 강화유리 방화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신축회관 인테리어 공사발주는 실내건축공사

업협의회로부터 추천된 5개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경기방식으로 진행되어 '06. 8.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06. 8. 29일 심사결과 제출업체의 공사금액이 예정공사비를 초과함에 따라 당선작없이 상위 2개업체를 우선협의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예정공사비내에 적합한 설계안을 재제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06. 9. 6일에는 회관 지표면조경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자인 남흥건설과 2차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6. 8월말 현재 75%(계획 76.2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6. 8. 4일 개최된 제13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인테리어 공사발주를 위한 지명설계경기 공모안을 최종 확정하여 '06. 8.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회관 인테리어공사 지명설계경기 심사는 담당이사, 전현직 회관건립위원장, 회관건립위원 및 설계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06. 8. 29일 제출안 심사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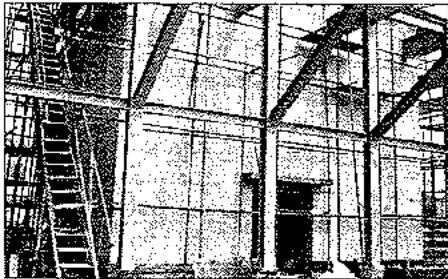
하기로 하였다.

회관 임대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된 업체 중 '센츄리21'을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하여 용역진행을 위한 세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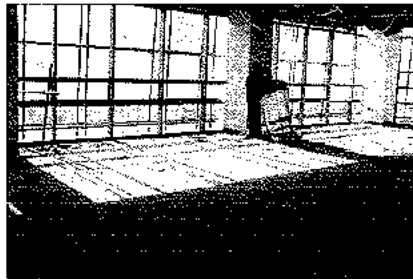
'06. 8. 18일 개최된 제14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인테리어 설계경기 심사기준에 대해 협의하여 디자인 평가항목과 산출내역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심사위원장으로 회관건립 담당이사인 박무길이사를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당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회관공사 잔여공정의 시공 품질관리를 위해 주요 마감공사가 진행되는 '06. 8. 25일부터 준공시까지 회관건립위원 중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2교대로 회관공사현장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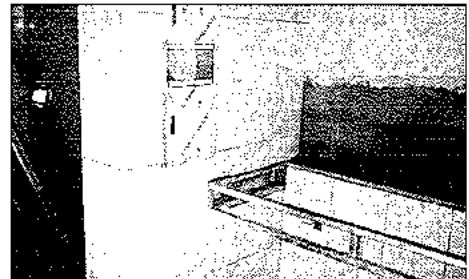
'06. 8. 29일 개최된 제15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인테리어 설계경기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협의대상업체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협찬업체와의 자제계약을 위해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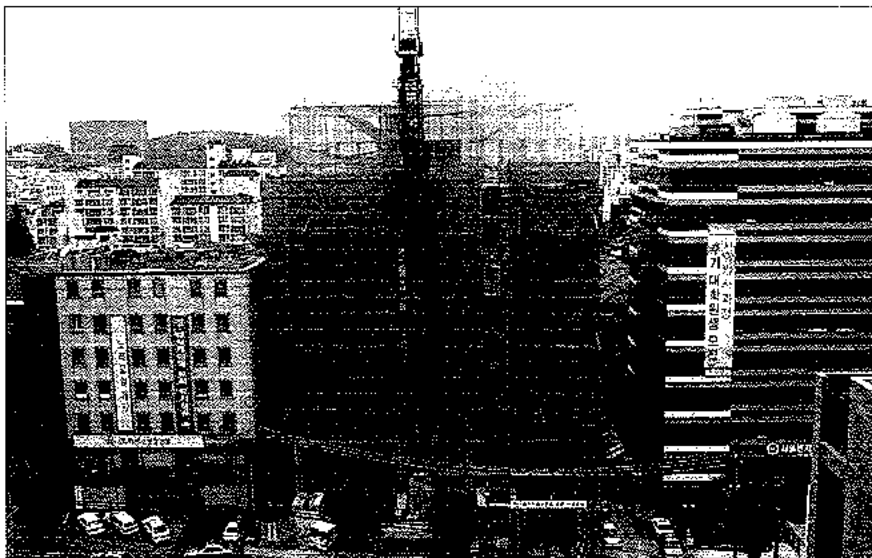
옥탑층 외벽 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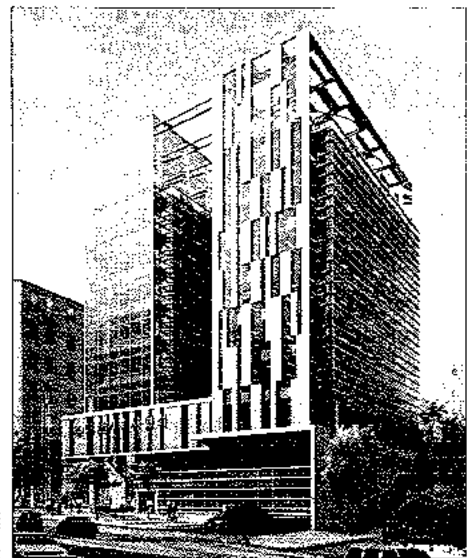
커튼월창호 공사



화장실 타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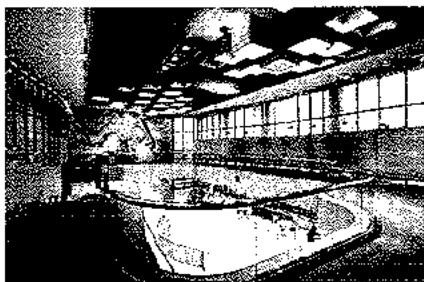


공사 전경



투시도

'하늘공원' 9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김진애)는 올지로의 SK네트웍스빌딩(구)서울투자금융 사옥)에서 20여년동안 변함없이 숨쉬고 있는 '하늘공원'을 9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중구 올지로 2가에 위치한 SK네트웍스빌딩 10층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내부의 격조 높은 장식성과 공간구성으로 준공당시 건축도시 분야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건축물로서 높이 평가받는다.

지상에서 40미터쯤 높이에 떠 있어 '하늘공원'이라 이름 하였으며 실내공간은 중층구조로 두 벽면을 모자이크(돌, 유리재료)로 처리하였고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하늘공원의 내부를 예술적인 공간으로 승화시켰으며, 곡선으로 처리된 하늘공원 내부 양쪽유리벽을 통하여 서울시내 전경을 관망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만들어 일반시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섬터공간을 마련하였다.

건축환경문화특별위원회 강병기 위원장(경고 싶은 도시연대 대표)은 "건물 1층 바닥면에 제공

하여야 할 공공 공간을 건물 10층 전체내부에 중층구조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창의성이 돋보이는 점, 건축주는 건축사의 조언으로 기대이상의 공간을 조성하여 올지로 입구의 랜드마크로 실현시킴으로 찾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신선함을 가져다주고 있는 점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소유주가 거쳐 가면서도 준공당시의 '하늘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한 사유" 라고 밝혔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올지로의 '하늘공원'이 진정한 시민의 공공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작품 개요

- 명칭 : SK네트웍스 빌딩(구 서울투자금융 사옥, 현재 GE Realstate 소유 임대 건물)
- 위치 : 서울 중구 올지로 2가 198-5
- 대지면적 : 1,466.78㎡
- 건축면적 : 679.21㎡
- 연면적 : 17,062.26㎡
- 건폐율 : 46.3%
- 용적율 : 873.42%
- 층수 : 지하 4층, 지상 20층
- 구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
- 외장 : 유리 커튼월, 화강암
- 준공 : 1986년 5월
- 건축주 : 서울투자금융(주)(정규진)
- 설계 : (주)선진엔지니어링(이상수)
- 인테리어 : 기용건축연구소(정기용)
- 시공 : (주)한양건설

• 문의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031-436-8900~1

선진세미나 개최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동주)는 9월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양평동 선진사옥 1층 세미나실에서 '현대건축의 형태이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비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2006선진세미나' 중 9월 행사로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변태호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현대 예술전반의 흐름에 대한 예술론적 이해와 현대건축의 특성 그리고



주 최 : 선진건축의 현대이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비평
주 자 : 선진건축연구소 변태호 교수
장 소 : 본사 1층 대강당

새로운 현대건축의 방향에 대한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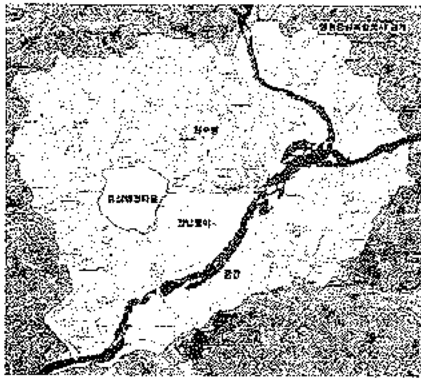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태호 교수는 "근대 이후 현대건축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건축 및 도시 이론과 그에 따른 형태의 출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에도 그 다양성들은 그들의 생각처럼 우리에게 도시의 생동감이나 형태의 즐거움을 주기보다 도리어 혼란스러움이나 혼돈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래서 가끔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하고 "현대건축에 있어 다양한 형태적 시도는 그것을 아방가르드적인 현대사회의 특성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이해하기보다 역사적 관계를 통하여 통시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좀더 비평적으로 가름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특히 우리만의 독창적 길을 모색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 문의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02-6333-3249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국제 공모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중심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 공동으로 도시설계 마스터플랜을 국제 공모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관 중에서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복합적인 중앙행정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행정타운은 대한민국정부의 중앙행정기능과 함께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6개 거점 지역 중의 하나이다. 도시설계 마스터플랜은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보행 및 교통 계획, 오픈 스페이스 및 스카이라인 지침,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배치계획, 규모 및 형태, 연결 관계 등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대상지 중 정부청사가 입지하는 지역 그리고 계획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추후 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국제 공모전은 UIA(국제건축사연맹)의 인증을 받아 진행하여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국제일반 공개현상설계로 진행되어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및 도시계획가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작품들로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등록마감 : 2006. 9. 21
- 접수기간 : 2006. 12. 29~2007. 1. 5, 17:00
- 응모작심사 : 2007. 1. 15~1. 19
- 당선작발표 : 2007. 1. 22
- 시상
 - 1등(1점) : USD450,000+단일 정부청사 설계권(연면적 약 33,000㎡ 규모) 1등 당선자는 중심행정타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3개월간 자문역 수행
 - 2등(1점) : USD100,000
 - 3등(1점) : USD70,000
 - 가작(3점) : USD20,000
- 문의 : www.mppat.or.kr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창립30주년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오는 10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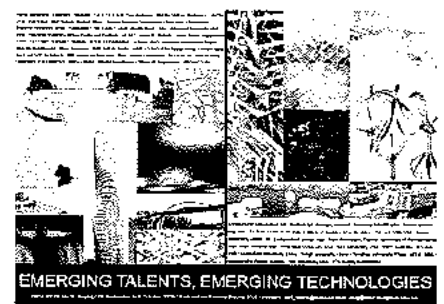
삼우건축은 1976년 창립하여 30년 간 인천국제공항 복합교통센터(2001)나 정부대전청사(1998), 국제청청사(2002)와 같은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소호 다가구 주택의 개념을 처음으로 실현한 이태원 다가구 주택(1998), 국내 최초의 전문박물관인 교통박물관(1997), 복원과 재생의 도시 문화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2002)과 명동예술극장, 국내 최초의 노인전문복지시설 노블카운터(1999), 초고층 주거복합시설 타워펠리스(2004)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디자인, 경제, 문화,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고보다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왔다.

오는 10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기념 작품집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창립30주년 기념식'이 열리며, 동시에 '2006 삼우 디자인 어워드'의 수상작과 대표작이 함께 전시된다. 또한 30년의 역사는 아날로그 아카이브로서 '삼우 30주년 기념 작품집'과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삼우 뮤지움'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문의 : 삼우 30주년 기념 사업단
02-3400-3666

2006 베이징건축비엔날레

제2회 2006 베이징건축비엔날레(ABB2006)가 2006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 베이징 곳곳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베이징건축비엔날레는 중국 건설부와 문화부가 'City and Architecture : Resources, Efficiency and Environment Friendliness'를 주요 테마로 세계 곳곳의 도시 계획, 건축, 부동산, 최첨단 기술 등의 관련 인사들을 초대하여 개최되는 전시회이다.

전체 전시기획자는 Neil Leach(현대건축 평론가, 영국), Xu weiguo(칭화대, 중국)이며, 6~7년전부터 유럽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던 김주병씨가 'Emerging Talents, Emerging Technologies'전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건축사작업 부문의 커미셔너로 참여한다.

이 전시는 건축의 방법론, 물성, 개념 및 시공 과정 등에 기술이 매개되는 방식을 소개하며, 건축사와 학생작품 그리고 파빌리온 디자인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세계아트미술관(World Art Museum)에 사무소 58곳과 건축학교 24곳에서 출판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부문 참여작가는 김주병·김찬중(대한민국), Masaki Endoh·Hiroshi Nakamura(일본), Liao Wei Li(타이완), CJ Lim(말레이시아) 씨 등이다.

- 문의 : www.abbeijing.com

파주출판도시, 영상부문과 함께 제2단계 개발계획 발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파주출판도시 2단계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영상과 출판이 만나는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발계획은 264,400평의 면적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1단계 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영화사 및 영상 관련 업체, 출판사 및 인쇄관련업체들이 참여하여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람리, 서래리, 신촌리 일원 207, 400평의 면적을 개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판도시 2단계 전설추진위원회에는 이기웅(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위원장과 차승재(씨이더스, 영상), 박광성(생각의나무, 출판), 장희운(에인미술, 인쇄) 씨가 부위원장, 김영준(주.김영준 도시건축연구소) 건축사가 건축코디네이터로 활동한다.

8월 현재 영상 18개사, 출판 56개사, 인쇄 26개사가 이 계획에 참여 신청한 상태이다.

• 문의 : www.pajubookcity.org

KCC 신제품 출시 및 자동차 보수용 도로 전용 홈페이지 오픈

• 발코니 확장용 초내열 방화유리 'PYROFENCE' 출시



KCC는 발코니 확장용 초내열 방화유리 '파이로펜스(PYROFENCE)'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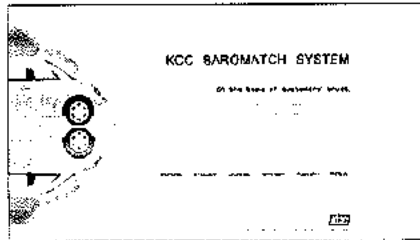
KCC는 "파이로펜스는 지난해 발표된 발코니 확장 관련법(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거실 확장의 경우 높이 90cm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건교부 고시 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에 맞춰 개발되었으며, 화염차단 성능은 물론 강도와 내충압 성능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화유리보다 훨씬 우수하며, 특히 파손방지를 위해 제품 전면에 대해 열 흡수 성능 테스트(heat soak test)를 실시해 완벽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특히 8mm로 최대한 슬림화시킨 난간대 일체형으로 외관에서도 확장 발코니의 개방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또한 100% 국산 자재와 기술로 생산,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방화유리 제품에 비해 납기와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KCC 관계자는 "국내 난간 업계 1위 업체인(주)승일산업, (주)평산 등 2곳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총 7가지 구조의 방화유리 난간 시스템을 개발, 공인인증 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 자동차 보수용 도로 전용 홈페이지 오픈



KCC는 21일 자동차 보수용 도로 전용 홈페이지(www.kccworld.co.kr/refinish)를 개설, 지난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CC가 기존의 자사 홈페이지와 별도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은 자동차 보수용 도로에 대한 정보와 적용법을 한층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의 특징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메이커나 차종별, 또는 색상코드를 입력하면 기본 색상 배합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터볼런스 브라이트실버 색상의 차량일 경우,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색상코드, 도료타입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보수용 도로를 배합할 때 일부 조색제를 초과 투입할 경우 나머지 조색제 투입량도 자동으로 재계산할 수 있어 자동차 도장업체의 도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자동차 보수용 도로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현장조색시스템인 '바로매치(BAROMATCH)'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현장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의 : KCC 홍보팀 02-3480-588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303-4686 · 강서구건축사회/2661-363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6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36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9-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3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3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3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8833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88-4804 · 중랑구건축사회/436-38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63-899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8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시건축사회/031-963-8902 · 평택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6-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5-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0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51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9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0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8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880 · 산천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지역건축사회/033)374-81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8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5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3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6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청양지역건축사회/041)554-0079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6-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48-5001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3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98 · 공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시지역건축사회/041)6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9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874-9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342-56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시지역건축사회/063)3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시지역건축사회/061)726-8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81-686-7023 · 나주시지역건축사회/061)355-92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지역건축사회/053)801-0395 · 경주시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시지역건축사회/054)246-28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62-1412 · 상주시지역건축사회/054)536-6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353-4455 · 영주시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5-6123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806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8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38-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5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133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8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8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65-9537 · 창녕지역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집주인과 건축가의 행복한 만남

이 책은 건축 일을 하다가 만나 결혼한 부부 건축인이 함께했던 집 구경을 맛깔스런 글로 엮어낸 책이다.

건축인이가 집구경을 하는 것에 “남들이 사는 방식이 궁금해서이기도 하고, 혹은 직업적인 성숙을 위해서”라는데, 둘의 글을 하나로 정리하며 믿음과 사랑을 굳혀가는 작업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잘 비벼졌다’라는 자명과 같이 두 사람의 소신이 잘 어우러진다. 몸이 불편한 딸을 위해 집을 지은 작가, 미술평론가, 웹 아티스트, 시사평론가, 등산가이자 카페 주인인 부부 등 집에 대한 꿈이 큰 11채의 집주인과 또 그만큼 상상력 풍부한 부부 건축인이 집을 지은 이야기 그리고 사이 사이에 김재경 선생이 잡아낸 장면과 함께, 저자의 개성 있는 집 스케치가 비빔밥의 고추장과 참기름처럼 잘 비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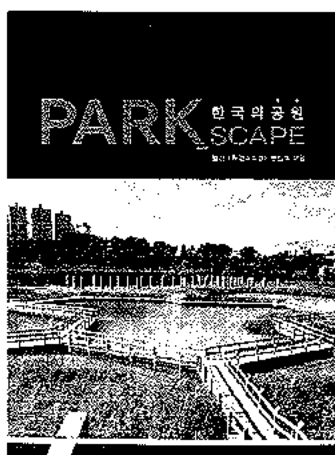


임형남+노은주 지음, 사진 김재경 / 272쪽 / 14,000원 / 서울포럼 발행 02-514-9838

PARK_scape 한국의 공원

이 책은 한국 현대조경을 대표하는 공원 30선을 선정하여 5년간 계절별로 촬영 수록한 최신 공원 작품집이다.

이 책은 크게 3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3명의 필자들이 공원의 기원과 변천사, 대표작, 설계의 주요 키워드 등을 상세히 정리했으며, 두 번째 파트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한국의 대표적인 공원, 선유도 공원, 올림픽 공원 등 30작품을 5년간 촬영해 4천여 컷 중 700여 컷을 엄선해서 게재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Critic 섹션으로 수록된 공원 가운데 주요 공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조경비평을 수록했다.



월간 환경과 조경 편집부 엮음 / 320쪽 올컬러 / 48,000원 / 도서출판 조경 발행 031-955-4966~8

백제 사찰건축의 조형과 기술

저자 이왕기(목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중국건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백제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백제건축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이를 발굴하고 알리는 사명에 매달려왔다.

이 책 역시 그 사명의 한가지로서 현존하는 백제 유적에서 백제건축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과 백제 사람들은 건축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가. 이와 더불어 백제 사람이 건축에 담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백제의 민속을 접근하는데, 빈곤한 문헌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사유적에서 출토된 발굴자료와 중국, 일본의 백제사 관련자료까지 섭렵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충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왕기 저 / 275쪽 / 10,000원 / 도서출판 주류성 발행 02-3481-1024

건축

프랭크 게리 건설비용 초과에 따른 합의

프랭크 게리에 의하여 설계된 디즈니 콘서트 홀의 공사비 파다에 대한 소송 합의가 이루어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지는 11개 계약자들이 홀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1,300만불을 나누어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추가적 450만불은 게리의 보험회사로부터 지불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디즈니 콘서트 홀은 2003년 10월에 개관하였으며, 6년간의 공사 지연과 1억 7천 4백만불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 되었다. 이 홀의 최종 공사비는 2억 7천 4백만불이 되었다. 소송은 개관 후 1개월 후에 제기되었다. 주 계약자인 M. A. Mortenson은 설계 변경과 잘못된 공사계획으로 인한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4천 3백만불의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하여 디즈니 홀사는 반대의 주장으로, 시공자에게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고 소송을 하였다. 합의는 18개 당사자와 계약 내용을 열거하였으며, 어떠한 누구도 비용 상승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웨일즈 의회 건물 개관

리차드 로저스에 의한 영국 웨일즈 의회 건물이 개관 되었다. 독특한 형태로 항만을 향하도록 지어졌다. 건물의 재료로 나무와 이 지역의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는 건축사 로저스에게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며, 또한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이기도 하였다.



새로 개관된 영국 웨일즈 의회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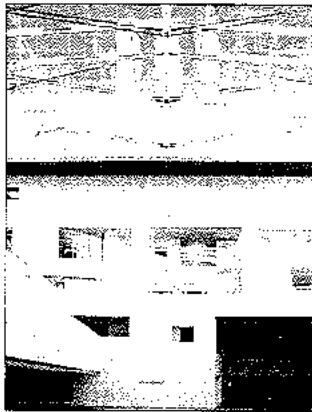
이 건물은 식단 무역 수출 항만으로 알려 졌던 항만에 지어졌다. 설계경기로 진행되었으며, 부지는 낙후되고 버려진 상태로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인근에 새로운 밀레니움 예술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건축사 리차드 로저스는 1998년 의회 건물에 대한 디자인 경연에 당선되었으나, 그 후 건물의 건립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하여 6년이 지연된 후 개관이 되었다. 유명한 건축물의 경우 흔한 일이나 비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지연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최종 공사비는 10%의 증가에 그쳤다.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기도 하여 리차드 로저스가 2001년 해고 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건물은 디자인의 문제가 아닌 시공에 대한 이야기로 전설적 건물이 되었다. 많은 지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만족스러운 평가로 남아 있다. 이 건물의 비전은 수공간에 대한 개방적 입면을 지닌 건물이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보안의 문제로 유리 외벽에 의한 건물의 논란을 일으켰다. 지붕은 곡선 형태의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사람들의 지역 정치에 참여를 권장하는 민주적 건물로서 투명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도시적 게스처로 그리고 디자인 요소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주 출입구에서 공간감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태양광과 자연적 환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창 밖을 통하여 보이는 수공간과 파빌리온과 같은 건물이 사이트에 멋지게 자리하고 있다.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MIT대학에 인도 건축사 찰스 코리아의
연구센터 건물 완공



찰스 코리아에 의하여 설계된 MIT의 새로운 연구 센터

작가로서 유명한 인도의 건축사 찰스 코리아는 보스턴의 설계회사인 구디 클렌시사와 함께 미국 MIT 대학의 캠퍼스에 그의 첫 프로젝트를 완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코리아의 현대 형식주의와 비움에 대한 형태에 관한 그녀의 관심을 건물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정원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평면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MIT에서의 새로운 건물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465,000m² 크기로, 새로운 두뇌 및 인지과학들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두뇌 연구센터이다.

이 건물은 프랭크 게리의 작품인 스타타 센터와 인접하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부지에 설계가 되었다. 부지는 삼각형의 형상으로 MIT 캠퍼스의 북동쪽 주출입로에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위치이다. 아래에 기차가 지나가는 문제를 2층 높이로 건물을 들어 올리고 15m 폭을 만들으로써 해결하였다. 기차의 저주파 진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 부분에는 수백개의 강철 파일을 지하 34미터까지 박았다.

페리쉬 예술관의 혁신적 디자인



새로운 페리쉬 예술관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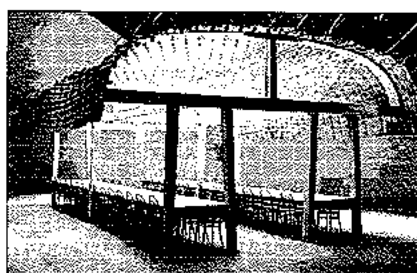
페리쉬 예술관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건축사 Herzog & de Meuron에 의한 새로운 시설

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발표하였다. 14 acre 크기의 부지 위에 64,000 ft²의 예술관 건물은 워터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롱 아일랜드의 동쪽 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독특한 디자인 개념은 건축과 조경의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이 지역은 아름다움과 예술적 유물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이 건물의 계획은 이쪽 동부 지역의 예술가들이 19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사들의 설치 작품을 전시하고자 계획되었다. 예술관은 빛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형태적으로는 분리되었으나 연결된 갤러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형태는 스튜디오 공간의 집합 혹은 예술가들의 집합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새로운 예술관은 다른 북미의 예술관과 다르게 런던의 테이트 현대 미술관, 미네아폴리스의 워커 아트 센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de Young Museum과 같이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네트워크 된 전시공간에 설치 예술품들이 전시될 것이며, 개별 예술가들의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 갤러리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과 어울려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예술관은 이 지역의 독특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하여 빛의 사용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빛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갤러리는 북쪽 스카이라이트를 통하여 빛을 들여보내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창과 함께 예술관 전체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여 대지에서의 경험과 친밀하게 되는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빛의 요소 이외에 이 지역의 조경이 디자인 개념과 경험에 중요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듀크 진 현대 미술관의 새로운 레스토랑



미술관 내 레스토랑의 전경

룩셈부르그에 폐이에 의하여 설계된 듀크 진 현대 미술관의 레스토랑의 실내 디자인에 프랑스

디자이너 Erwan과 Ronan Bouroullec가 참여하였다. 이 실내 설계를 위하여 상징적 건물에 걸맞는 내부의 나무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레스토랑은 섬유 타일로 덮여져 있어 내부로 천정을 통하여 투과되는 빛을 통과하고 있으며, 돌로 된 바닥으로 인한 음향의 잔음을 흡수하고 있다.

건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더너 근대 예술관을 위한 스노터와 스텐스의 설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기후 변화는 보다 많은 비와 바람 그리고 혼란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런데 왜 건축사는 영원히 햇빛이 밝은 세상을 위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건축의 세계는 항상 좋은 날만을 표현하고 있다. 행복하고, 해가 비치며, 긴장한 남녀들이 24시간 도시생활을 즐기는 유토피아적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에는 비가 없다.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눈도 표현이 거의 안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난 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였으며, 많은 기상 이변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기후가 더욱 험악하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하네 건축에서는 이와 같은 기후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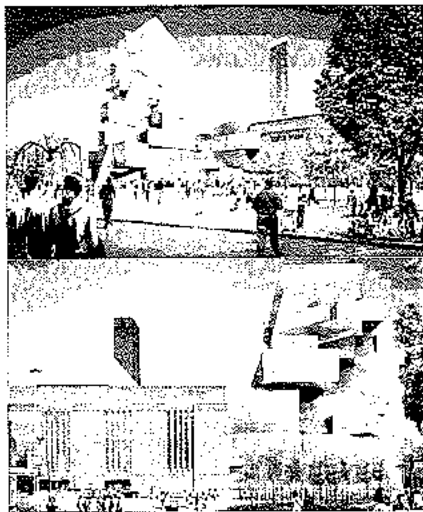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이유로는 첫째 너무 많은 건축도면이 표준적 내용만을 표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비슷 비슷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다른 설명으로 건축가와 개발업자들은 상업적 필요만을 추구하는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흙탕물이 묻은 새차의 경우 좋은 가격에 팔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발상으로 새로운 건물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건축사는 최악의 날씨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다. 예를 들어 하바나의 건물은 하늘이 열린 것과 같은 비가 내린 경우에서도 건물 내부의 코트 야드로 떨어지는 비를 감상할 수 있고, 문에 루버가 있어 방에서는 문을 충분히 열어 놓고 열대 폭풍을 즐기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왔다.

많은 나라의 경우, 날씨에 대한 일상적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나, 건물은 약간의 미풍에만 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개념만이 있다. 많은 건축 계획안은 날씨와 관계 없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커져만 가는 기상 변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날씨의 비정상적 변화에 새로운 건물들은 적합하게 지어지지 못할 것이다.

영국의 젊은 건축사 길리언 램버트는 '날씨에 집착한 건축사를 위한 스튜디오 하우스'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녀는 2006 Building Design 잡지에서 신장한 특출 난 졸업생으로 뽑혔다. 그녀의 항상 속의 집은 터너의 감동적인 그림 '눈 폭풍'으로부터 발상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녀가 계획한 집은 테임즈 강변에 있어야 하며, 그 집의 공간은 천장에서부터 벽으로 흐르는 빛물에 의하여 내부 공간이 흐리게 표현되어야 하며, 공기의 바람이 벽을 통하여 들어오며, 밝은 태양광을 걸리는 포켓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내부는 예측 불가능하고 드라마틱한 자연의 극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테이트 현대 미술관의 확장 계획



테이트 현대 미술관의 확장 계획안

테이트 현대 미술관은 가장 많은 방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 미술관은 \$3.97억의 예산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맞추어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런던의 테이트 현대 미술관의 확장될 부속건물은 11층짜리 별동의 건물로 계획 되었으며 매년 4백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속동은 220 ft 피라미드를

무작위의 형태로 쌓아 올린 유리박스의 형상을 하고 있다. 스위스 회사 Jacques Herzog and Pierre de Meuron에 의하여 설계 되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케임즈의 남쪽 제방에 버려진 발전소를 테이트 현대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킨 건축 회사이다.

11층짜리 부속동은 새로운 프라자나 혹은 기존 건물의 터빈홀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설치미술, 비디오, 영화, 사진, 퍼포먼스와 다른 비 전통적 형태의 예술 형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다.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계획



거리에서 훑길 수 있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모습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은 뉴욕 시장 블룸버그와 함께 2007년 1월 주요 공공 예술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술관과 뉴욕의 공공 예술 단체인 Creative Time은 미국의 대규모 공공 예술작업으로 MOMA의 외벽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위하여 더그 아트젠을 커미셔너로 지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MOMA의 7개 외벽에 일련의 영화 장면들을 비출 예정이다.

뉴욕의 고밀도 건물환경을 이용하여, 예술가는 도시의 건축적 외관과 통합이 될 수 있는 시네마틱 예술을 창조할 것이며, 이는 공공 공간에 대한 공공의 관념에 대한 도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1월 16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될 것이며, 미술관의 여럿의 다양한 위치로부터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센터 기념관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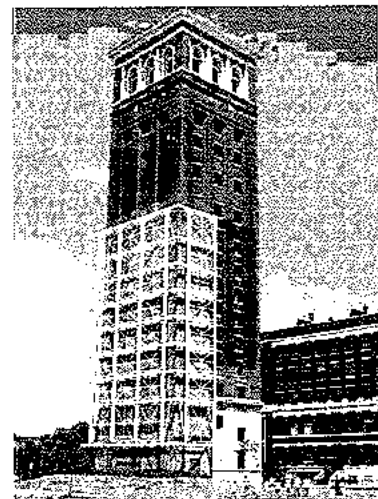
세계무역센터 추모재단과 뉴욕 항만국은 기념관을 착공하였다. 뉴욕 항만국은 기념관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모재단은 설계와 계획 그리고 모금을 수행하고 있다. E.E. Cruz of Holmdel는 기념관의 기초 공사를 1,700만불에

계약하였으며, 내년엔 완공될 것이다. 기념관의 시공은 지난 3월에 시작하였으며, 사전 작업으로 쌍둥이 빌딩의 원래 기둥들을 보호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기념관은 200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서 포도송이 '우주호텔' 설계

스페인에서는 '우하 스위트' (Galactic Suite)라고 이름 지어진 포도 송이 모양의 '우주 호텔' 제안을 하였다. 스페인 건축회사인 사비에르 클라라문트는 미국 플로리다의 항공 엔지니어들과 함께 연구하여 이와 같은 우주호텔 건설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이 우주 호텔은 중앙에 코아 부분이 있고, 코아에 객실과 부대 시설들이 붙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객실에서는 지구와 우주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형창을 계획하고 있다. 객실의 크기는 8평 규모로 계획되었다. 특히 우주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상하좌우'라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디자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100주년을 맞은 원 Sears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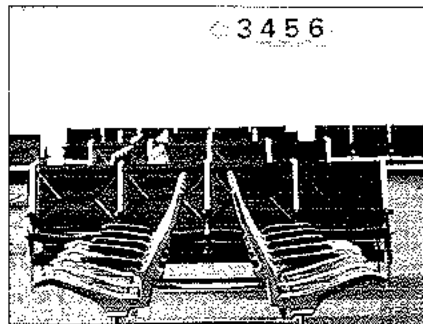
원래의 시어스 타워

시어스 타워가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건물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어스 타워를 1973년 세워진 유명한 고층건물 시어스타워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시어스 타워는 1906년 시어스 카타로그를 발간하기 위한 플랜트를 위하여 만들어 졌다. 이 플랜트는 2백만 ft² 규모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 건물로 인정되었다.

이 시어스 타워는 현재의 시어스 타워 이전에 매우 유명하였다. 미국민의 절반이 받아 보던 시

어스 카타로그를 이곳에서 제작하였다. 이 타워와 부속 건물들이 카타로그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헨리 포드가 산업의 효율성의 모델로 방문하고 연구하였던 건물이기도 하다.

항공여행을 위한 건축 및 디자인 전시회



사리벤에 의하여 설계된 존 포스터 플레스 국제 공항 내의 외자, 할스와 레이 에임스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암스테르담의 스테델릭 박물관은 'Airworld'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가졌다. 항공여행을 위한 건축과 디자인 전시회로 11월 5일까지 열린다. 지난 100년 동안 항공 업계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이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이는 승무원의 유니폼, 사인, 터미널, 서비스와 식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세기 동안 항공 산업의 역사와 함께 변하여 온 건축과 디자인의 발달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의 전시는 첫번째 시도이다.

보이스 예술관에서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전시회



미래의 도시 - 실험과 유토피아

보이스 미술관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전시를 10월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건축을 통한 미국적인 새로운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건물과 그 내부의 가구와 기타 물품들을 통하여 내부적 아름다움의 실내에서의 창조를 위한 철학과 현대적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라이트에 의하여 설계된 100개의 원작 가

구, 철제 작품, 텍스타일, 그림, 그리고 악세사리들이 전시된다.

영국 런던의 바비칸 갤러리는 '미래의 도시 - 1956~2006 실험과 유토피아 건축' 전시회를 열고 있다. 공중부양 도시 혹은 공기 부양 주택에서 살면 어떠한 느낌이 될 것인가? 순수한 환상인가 혹은 미래의 모습인가? 별난 주택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고층건물, 상상의 도시와 주거 가능한 조각 등, 이 전시는 과거 50년 동안 제안되었던 급진적이며 경험적 건축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도전하였으며, 또한 영향을 미쳐 왔던 영향력 있으며 개척자인 70명의 선구자들의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있다. 선구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Constant Nieuwenhuys로부터 Archigram과 SuperStudio, Daniel Libeskind and Zaha Hadid 그리고 디지털에 많은 영향을 받은 Nox와 Decoi의 작품등 영국에서의 경험적 건축에 대한 종합적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300개의 모델과 도면 그리고 사진과 영화가 전시되고 있다.

디지털

일본 미자와 홈 Piranesi 채택

일본의 미자와 홈사가 3D 렌더링 소프트웨어인 Piranesi를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으로 채택하였다. 미자와 홈은 2005년 12,700호를 지었으며, Piranesi를 일본 전 지역 지점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실사 렌더링에 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업체에게 맡겨 수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MCAD를 사용하고 있는 미자와 홈의 경우 프리젠테이션에 제한적으로 그래픽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Piranesi를 사용함에 따라 세일즈와 디자인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자와 홈은 Piranesi를 선택한 이유는 주택 디자인을 위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용자 만족을 위함이다. 이는 기존의 CAD 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다.

Soft Gold사 Pocket PC CAD Viewer 출시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 하에서 PDA나 포켓 PC에 설치할 수 있는 Pocket CAD 뷰어가 출시되었다. 이의 사용을 위하여는 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2.0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아이콘을 클릭 한 수 CAD 파일을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줌 기능, CAD 이미지의 이동 기능, 배경색 변환 기능, 이미지 회전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뷰어는 DXF와 DWG 형식의 파일을 볼 수 있다.

3ds Max 9.0 조만간 출시

새로운 버전인 3ds Max 9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32-bit 및 64-bit 윈도우 운영체제 모두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과거보다 보다 크고 복잡한 형태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보다 쉬운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다양한 효과를 보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의 흐린 반향, 다양한 유리 효과, 반짝이는 재질 표현 등이 강화되었다. 보다 실제적 이미지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시간 3D 스캐너

3D 스캐너가 발표되었다. Z Corporation에 의한 ZScanner 700은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자동 위치설정 기능이 있는 실시간 3D 표면 스캐너이다. 다른 3D 스캐너들의 경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제품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 보기 힘든 모서리도 스캔할 수 있다. 이 스캐너에 물체를 들고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스캐너는 0.1mm간격으로 스캐닝을 하며 STL 포맷으로 파일을 저장한다. [출처]

〈제공 :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06년 건축허가 현황(7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7월)			누계 (7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0,883	25,912	138.1%	74,436	104,722	40.7%
	연면적	8,049,547	21,079,985	161.9%	62,259,541	80,619,889	29.5%
주거용	동 수	3,320	5,747	73.1%	21,726	28,401	30.7%
	연면적	3,075,733	7,047,998	129.1%	26,999,478	31,302,180	15.9%
상업용	동 수	3,411	9,145	168.1%	22,316	31,646	41.8%
	연면적	2,025,025	6,532,315	222.6%	14,043,637	20,229,865	44.1%
공업용	동 수	1,593	4,870	205.7%	11,488	16,749	45.8%
	연면적	1,141,514	2,859,471	150.5%	7,859,485	10,631,415	35.3%
문화및 사회용	동 수	779	1,520	95.1%	5,432	7,133	31.3%
	연면적	826,377	2,199,543	166.2%	5,480,289	7,340,299	33.9%
기 타	동 수	1,780	4,630	160.1%	13,474	20,793	54.3%
	연면적	980,898	2,440,658	148.8%	7,876,652	11,116,130	41.1%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7월)			누계 (7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0,883	25,912	138.1%	74,436	104,722	40.7%
	연면적	8,049,547	21,079,985	161.9%	62,259,540	80,619,889	29.5%
철근 철골조	동 수	9,643	23,300	141.6%	65,136	92,280	41.7%
	연면적	7,956,682	20,868,623	162.3%	61,453,205	79,584,591	29.5%
조적조	동 수	1,064	2,061	93.7%	7,978	10,074	26.3%
	연면적	78,528	162,568	107.0%	667,709	814,606	22.0%
목 조	동 수	175	527	201.1%	1,317	2,339	77.6%
	연면적	14,164	46,802	230.4%	138,074	218,247	58.1%
기 타	동 수	1	24	0.0%	5	29	0.0%
	연면적	173	1,992	0.0%	552	2,445	0.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분		당월 (7월)			누계 (7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0,883	25,912	138.1%	74,436	104,722	40.7%
	연면적	8,049,547	21,079,985	161.9%	62,259,541	80,619,889	29.5%
수도권	동 수	3,611	11,367	214.8%	23,072	35,152	52.4%
	연면적	3,328,605	9,717,192	191.9%	27,991,498	33,080,996	18.2%
서울	동 수	688	1,670	142.7%	4,130	6,157	49.1%
	연면적	607,239	3,077,563	406.8%	6,595,027	9,536,178	44.6%
인천	동 수	328	671	104.6%	2,138	2,566	20.0%
	연면적	372,503	845,123	126.9%	2,953,624	2,688,799	-9.0%
경기	동 수	2,595	9,026	247.8%	16,804	26,429	57.3%
	연면적	2,348,863	5,794,506	146.7%	18,442,847	20,856,019	13.1%
지방	동 수	7,272	14,545	100.0%	51,364	69,570	35.4%
	연면적	4,720,942	11,362,793	140.7%	34,268,043	47,538,893	38.7%
부산	동 수	523	846	61.8%	2,989	3,819	27.8%
	연면적	386,104	1,301,373	237.1%	3,023,343	7,247,704	139.7%
대구	동 수	485	857	76.7%	2,805	3,545	26.4%
	연면적	575,530	1,458,657	153.4%	3,855,879	4,279,481	11.0%
광주	동 수	332	518	56.0%	1,954	2,785	42.5%
	연면적	243,186	540,869	122.4%	1,470,729	2,758,274	87.5%
대전	동 수	231	575	148.9%	1,647	2,279	38.4%
	연면적	123,794	571,899	362.0%	1,459,015	1,804,827	23.7%
울산	동 수	270	665	146.3%	1,999	2,800	40.1%
	연면적	223,241	321,575	44.0%	1,024,322	1,723,612	68.3%
강원	동 수	586	1,087	85.5%	4,121	5,557	34.8%
	연면적	497,287	954,273	91.9%	2,795,757	2,970,944	6.3%
충북	동 수	561	1,307	133.0%	4,182	6,009	43.7%
	연면적	253,080	800,470	216.3%	2,844,346	3,612,301	27.0%
충남	동 수	722	1,910	150.7%	5,286	7,119	34.7%
	연면적	563,725	1,768,467	213.7%	4,139,798	4,768,823	15.2%
전북	동 수	484	1,152	138.0%	4,045	6,049	49.5%
	연면적	354,980	529,760	49.2%	2,335,509	2,383,526	2.1%
전남	동 수	643	1,320	105.3%	4,421	7,011	58.6%
	연면적	167,857	499,504	197.6%	1,430,579	3,066,556	114.4%
경북	동 수	1,120	2,089	86.5%	8,147	10,735	31.8%
	연면적	696,778	893,276	28.2%	4,261,415	5,106,782	19.8%
경남	동 수	1,085	2,120	95.4%	8,046	9,620	19.6%
	연면적	577,302	1,674,449	190.0%	5,126,848	7,136,344	39.2%
제주	동 수	230	199	-13.5%	1,722	2,242	30.2%
	연면적	58,078	48,221	-17.0%	500,503	679,719	35.8%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6년 7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97	5,097	159	318	26	82					5,282	5,497	1,522	1,512	274	548	73	219	28	112	33	212					1,920	2,603	7	7	7,202	8,100	100.0%	100.0%
서울	1,167	1,167	42	84	13	40					1,222	1,291	873	873	176	352	44	132	16	64	19	120					1,128	1,548	6	6	2,350	2,840	32.6%	35.4%
부산	497	497	18	36	5	16					520	549	79	79	11	22	6	18	4	16	4	22					104	157			624	706	8.6%	9.1%
대구	417	417	23	45	7	22					447	435	50	50	23	46	6	18	1	4	2	10					82	238			529	613	7.3%	7.5%
인천	226	226	2	4	0	0					228	230	49	49	5	10	0	0	0	0	0	0					54	59			282	289	3.9%	3.5%
광주	216	216	2	4	0	0					220	222	33	33	7	14	2	6		4	3	17					46	74			266	296	3.6%	3.6%
대전	205	205	15	30	1	3					221	238	26	26	7	14	3	9	0	0	1	12					37	61			238	299	3.3%	3.7%
울산	160	160	7	14	1	3					168	177	16	16	2	4	2	6	0	0	0	0					20	26			188	203	2.3%	2.5%
경기	671	671	7	14	0	0					678	685	218	218	19	38	2	6	1	4	1	5					241	271			919	956	12.7%	12.5%
강원	160	160	3	6	0	0					163	166	21	21	3	6	0	0	0	0	1	5					25	32			188	198	2.3%	2.6%
충북	170	170	8	16	0	0					178	186	26	26	2	4	2	6	0	0	2	13					32	49			210	235	2.9%	2.9%
충남	159	159	4	8	0	0					163	167	32	32	2	4	2	6	2	8	0	0					38	50			201	217	2.7%	2.8%
전북	188	188	3	6	0	0					191	194	20	20	2	4	2	6	1	4	0	0					25	34			216	228	2.8%	2.6%
전남	131	131	0	0	0	0					131	131	9	9	0	0	2	6	0	0	0	0					11	15			142	146	1.9%	1.7%
경북	300	300	8	16		3					309	309	30	30	2	4	1	3	0	0	0	0					33	37	1	1	342	356	4.8%	4.2%
경남	348	348	12	24	0	0					360	372	20	20	5	10	1	3	0	0	0	0					26	33			386	405	5.2%	4.9%
제주	100	100	0	0	0	0					100	100	7	7	0	0	0	0	0	0	0	0					7	7			107	107	1.5%	1.0%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비 율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00	10	8,110	100.0%		23
서울	2,841	3	2,844	35.4%		10
부산	705	1	706	9.1%		9
대구	615	0	615	7.5%		0
인천	294	0	294	3.5%		0
광주	296	0	296	3.6%		0
대전	296	1	297	3.7%		0
울산	205	0	205	2.5%		0
경기	953	2	955	12.1%		2
강원	198	0	198	2.4%		0
충북	239	0	239	2.9%		0
충남	219	3	222	2.6%		0
전북	228	0	228	2.6%		0
전남	147	0	147	1.7%		0
경북	354	0	354	4.2%		1
경남	403	0	403	4.9%		1
제주	107	0	107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497	2,603	74	8,174	
비 율	67.25%	31.84%	0.91%	100.0%	
사무소수	5,282	1,920	-	7,203	
비 율	73.34%	26.66%	-	100.0%	

ARCHITECTURAL REVIEW

7월호

7월호의 주제는 'tourism'이다. '관광사업'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원어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이번 호가 담고 싶어하는 주제가 현상과 사업 간의 관계에 대한 역전적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확대된 관광사업의 수요에 의해 건축된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피드백을 연출하는가. 낯선 환경에서 타자로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어떻게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식되고 접근되게 할 것인가. 이번호에 소개된 리처드 로저스와 슈헤이 앤도, 안드레아스 슈트라우스 등의 건축은 우리가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낯설음과의 조우에서, 창작자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만 넓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 Spanish Soft Machine

Barajas 신 공항 터미널/스페인, 마드리드
/건축사: Richard Rogers Partnership

공항은 모든 곳이자 아무 장소도 아니다.(The airport is everywhere yet nowhere.)라는 말은 다소 진부하게 들리면서도 그간의 무미전조한 공항들의 디자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사실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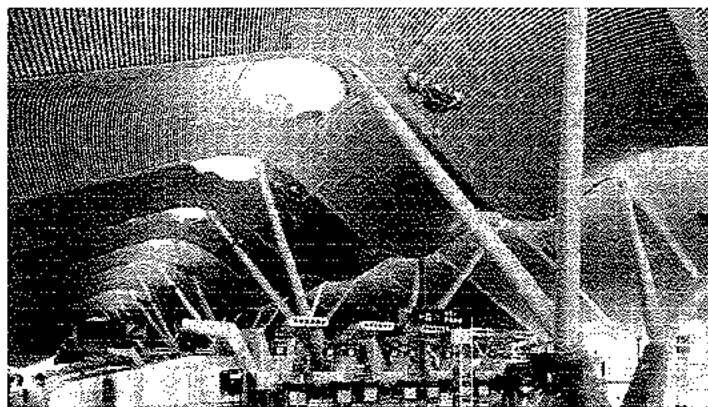
항은 디자인적 가능성이 풍부하지만 출입국 과정의 지난함과 딱딱함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공항 자체의 장소성과 랜드마크적 특징들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Barajas의 새로운 공항 터미널은 렌조 피아노의 간사이 공항, 노먼 포스터의 Chek Lap Kok, SOM의 Haj 터미널, 에로 사리넨의 JFK 공항 그리고 샤를 드골 공항의 계보에 첨부될 만한 성격의 것이다.

리처드 로저스의 새로운 공항 터미널은 스페인의 수도 임에도 바르셀로나를 위시한 바스크 지역에 비해 그간 위축되었던 마드리드의 정치적 야심과 건축적 아이디어가 적절히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 공항터미널로 인해 운송능력은 2천 5백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기존 터미널에서는 곤란했던 에어버스의 초대형 점토기도 수용 가능해졌다.

방문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상부구조의 디자인은 렌조 피아노가 간사이에서 아른 '소프트머신' 개념에서 시작하여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물 밑에서 파도가 치는 상부를 보는 듯한 지붕의 디자인은 황량한 스페인의 햇빛을 3개월의 개구부들을 통해 은은하게 유입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붙여진 중국산 대나무 클레딩은 공항의 거대 디자인에서 느끼기 어려운 수공예적 휴먼 스케일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시도는 물결을 따라 반복적으로 접힌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거대한 구조물에 대한 매스감을 가볍게 분산시키는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붕구조를 지지하는 것은 Y 자형의 강구조물로 이 기둥들은 출입국 과정에 따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등으로 바뀌면서 비행과 착륙에 연관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 때 하이테크라는 범주에 있는 건축사들이 이



Barajas 신 공항 터미널

런 유의미한 공항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 '이미지'의 현시에 멈추지 않고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리처드 로저스의 이번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라면 기술이 여전히 건축의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 World end's Hotel

호텔/칠레 파타고니아/건축사 : German del Sol

이 건물은 이름만 보면 얼핏 독일을 연상케 하는 칠레 건축사 German del Sol(이하 GdS)의 주목할 만한 '오지 호텔 프로젝트' 중 세 번째의 작품이다. 파타고니아의 첫 작품과 칠레 북단의 아타카마 사막에서의 두 번째 작품을 거쳐 GdS는 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Puerto Natales의 작은 어촌인 파타고니아로 돌아왔다.

여기서 그는 도시성의 비전을 우리가 소시적 읽어왔던 알폰스 도데의 별에서나 나올 것 같은 주변 환경과 건축적 전통을 통해 녹여내고 있다. 즉 목동이나 상인들이 하룻밤 거쳐 지나가는 자연환경 한 가운데 놓인 임시주거의 전통을 호텔의 형식으로 환유하고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농장 이미지를 적용하여 모던 건축에서의 시각적 특징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은 크게 메인 건물 1동과 객실건물 2동이 T자 형태로 주변의 양떼나 초원, 바위, 산, 그리



호텔

고 하늘과 같은 랜드스케이프를 포섭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의 입면에 적용된 아스팔트 코팅의 플라이 우드의 배열방식과 중앙의 정원과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단의 연결로 양옆을 덮고 있는 목축의 방식은 각각 파타고니아 지역 양떼 목장의 우라나 창고와 같은 이미지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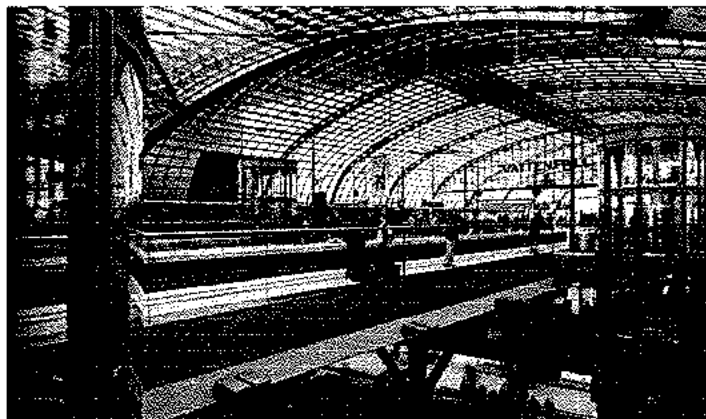
메인 빌딩은 호텔 직원들을 위한 공간과 창고,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 즉 라운지와 리딩룸과 음악실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램프와 계단을 통해 상하층을 연결하는 리딩룸(메자닌)은 코르뷔제나 마이어에서 보이는 '시각적 산책'을 통해 고립속에서 강력하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진물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는 자연 속에서 따로 또 같이 존재하면서 자연을 끌어당기거나 자연에 융합되는 방식이 아닌 '공존'하는 생활 태도의 하나로 랜드스케이프를 다루는 것에 대한 모범(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용도가 호텔이고 방문자들에게 새로움으로서의 낯설음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훌륭히 그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데에서, 이 건물은 세상의 끝에 있지만 여전히 눈길을 끄는 '자연과 인간'의 작품이다.

■ Tunnel Vison

베를린 중앙역(철도)/독일 베를린/건축사 : Von Gerkan Marg & Partner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를린의 도시 계획가들은 철도를 통해 베를린을 유럽의 중심 교차지로 만들고자 고심했다. 그 이상은 독일의 통일에 따라 가능한 일이 되었으며, 2006년 월드컵 결승경기가 열린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의 리모



베를린 중앙역

델링으로 본란에 소개된 Von Gerkan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

베를린 중앙역은 2차대전으로 인해 소실된 이전의 기차역이 있던 Lehrter Bahnhof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의 동서로 지나가는 철도선과 새로 완성된 지하의 남북의 철도선, 그리고 주변의 Spree 강의 흐름을 통해 기하학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건물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간 3천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철도역을 만들어 냈다.

지상의 6개선은 고전적인 유리볼트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유리들은 집광 패널로 전력수요의 2%를 담당하고 있다. 2개의 주 건물 등은 지하의 남북노선을 따라 형태가 만들어졌으며 중앙의 콘코스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

건물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내부가 무척 밝다'라는 것인데 이는 기둥이 최소화된 콘코스와 플랫폼의 유리볼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유리 지붕들은 19세기의 수장공이나 각종 박람회 건축, 역사건축에서 보이는 철과 유리로 구축되었던 방법과 대단히 유사한 감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베를린 중앙역사는 다이내믹한 구성에도 장중하고 고전적인 인상을 보다 우선하여 느끼게 해준다.

21세기의 기술로 변용된 19세기의 비전은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몇몇 부분에서 완결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운행 중인 최대길이의 기차에 맞추어 설계된 유리볼트의 길이는 100여 미터정도 감소하게 되었고, 강으로 된 볼트로 지지하도록 디자인된 지하의 천정 디자인은 미미한 재료로 평평하게 마무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on Gerkan의 베를린 중앙역사는 기술과 역사성을 결합한 사도이며 차분한 외관 속에 극적 드라마를 숨기고 있는 매우 흥

미로운 작품이다. 또한 유럽에서의 철도역사가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첨언인 것이다.

■ How Convenient

오사카 성 위생시설/일본 오사카/건축사: 슈헤이 엔도



오사카 성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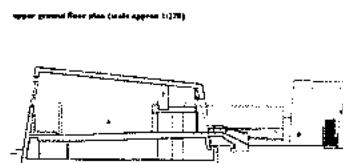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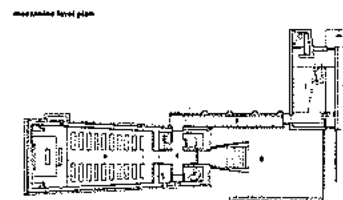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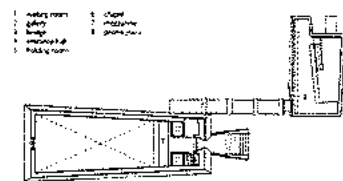
봄이면 벚꽃구경으로 유명한 오사카 성 공원 외곽에 슈헤이 엔도가 세 개의 파빌리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방문자나 공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다. 특징적으로 각각의 파빌리온은 'halfecture OR', 'halfecture OO', 'halfecture OJ' 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세 개를 합치면 하나 반, 하나의 architecture 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물결친 철판이 그의 아이콘이었다면 여기서 그는 두께 18mm의 코르텐강을 사용하여 재료의 구조적 가능성과 중력에 의한 효과를 실험하고 있다.

Halfecture OR은 그중 가장 중요한 시설로 카페와 남, 여 장애인용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상부의 고리형태의 코르텐강 지붕은 가느다란 3개의 봉이 간격을 유지한 채 꼬인 형상을 하고 있는 기둥에 의해 지지되며 비나 눈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내부로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 다른 두 개의 시설은 지붕이 대각선으로 접혀 있거나(folded: Halfecture OJ) 비틀려(deflected: Halfecture OO)있다.

여행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벤트화 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건축 뿐 아니라 일본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사카 성에서의 여행과 경험의 질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 Running Rings

Aktis Wedding Chaple/일본 교토/건축사: Amorphe Takeyama & Associates



Aktis Wedding Cha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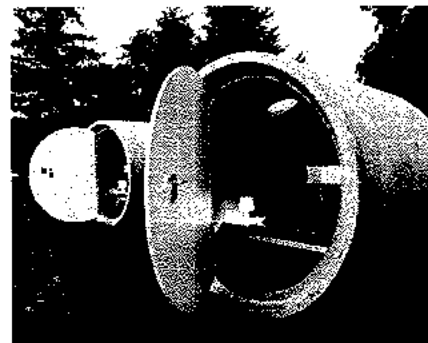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결혼은 돈이 많이 드나보다. 결혼단가를 낮추고 결혼 횟수를 높이면서도 각 결혼식이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이 교토의 한 웨딩 채플에서 시도 되었다. 즉 컨베이어벨트위에 결혼식을 올려 대우는 것이다. 키요시 세이 타케야마가 이끄는 Amorphe Takeyama & Associate가 디자인 한 이 웨딩채플은 교토의 한 호텔의 일부로서 하루에 8건의 결혼식을 수행할 수 있고, 최대 3건의 결혼식이 서로 부딪힘 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호텔에 근접하여 웨딩 채플은 크게 대기실과 행진을 위한 브릿지 그리고 예배당으로 구성된다. 공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최소한 두 시간 정도를 자하의 신부를 위한 공간에서 치장을 하고, 신부와 그의 아버지는 입구의 신부대기실에서 방문객들이 독립된 대기실에 모이는 것을 기다린다. 그 후 손님들은 행진을 위한 브릿지를 지나 예배당의 후면으로 이동을 하여 참석하면, 신랑과 신랑이 입장하여 20분간의 짝박한 결혼식을 하게 된다.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가 다시 작은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코니쪽으로 나오면 친구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사진사는 사진을 찍는다. 이들에게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진행 자체는 우리에게도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공된 서구의 팬터지 속에 결혼의식을 '소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시도는 서구의 형식 안에서도 나름대로 내화된 모던한 시각을 제시한다. 어떤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떠나서 자생적인 형태와 형식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하고 또한 부러운 것이다.

■ Tubular Troglodytes

Daspark Hotel/오스트리아 린츠(Linz)/건축사: Andreas Strauss



Daspark Hotel

제목을 번역하자면 튜브에 사는 혈기인 정도가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왈츠 하면 생각나는 인물과 동일한 성을 가진 Andreas Strauss는 기성품 형태의 콘크리트 실린더를 경비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최소 거주와 호텔로 제안하고 있다. 외부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숫사 키로 되어 있는 잠금장치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평상, 채광과 환기를 위한 개구부가 이 '호텔' 구성의 전부이다. 식사와 위생에 관련된 시설은 가까운 공공시설을 이용해야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피난 구호를 위한 주거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거주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공적 영역으로 넘겨지고 개인의 유동성이 극대화 된 상태에서의 궁극적인 호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성만을 남긴 채 나머지를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늘날의 도시적 상황만이 이런 호텔의 제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안드레아스 슈트라우스의 제안은 시대를 비치는 거울로서, 그리고 그 방향을 가속화시키는 시도로써 유의미하다.

(글 / 김훈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인천 전문대 출강)

新建築

6월호

이번 호는 일련의 저층형 학교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 코지마 카즈히로가 설계한 치바시립 미하마우타세 소학교.

아오키 준이 루이튀통 프로젝트 이후 새로운 그의 표현언어로 실험하고 있는 링구조를 사용한 백색의 교회 등이 소개되었다. 동경대학교수 오오노 히데토시가 축소되어져 가는 도시의 미래개발전략을 제안한 「fiber city 東京 2050」 또한 눈여겨 볼 기사이다.

■ 치바시립 미하마우타세(美浜打瀬)소학교 - 설계: 코지마 카즈히로+이카마츠 카즈코/CAI

「미하마우타세 소학교」는 일본 치바시의 유명한 신도시인 마쿠하리에 세워진 3번째 오픈스쿨 형식의 소학교이다. 이 지역 최초의 소학교인 「치바시립 우타세소학교」(1995년)도 코지마 카즈히

로의 설계로 10년전에 이루어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규모는 24교실, 아동수 960명을 상정했다. 이 학교는 이미 「우타세 소학교」에서 선보였으며 이 지역 소학교의 특색인 저층가구형(底層街區型)으로 이루어졌다. 저층가구형 학교는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형식이다. 또한 가로에 개방적이고 접지성이 높으며, 음환경, 온열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학습형태의 구현과 장래 시설의 전용(轉用)이 용이한 교사를 목표로 하였다. 건물은 마쿠하리신도선에 계획된 두 줄기의 그린벨트에 면하고 있는데, 북측의 교정이 그린벨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교사를 부지 남측에 배치시켰다. 모든 교실이 명확한 경계 없이 오픈스페이스로 개방되어 있지만 낮은 원형의 벽으로 둘러싸인 벤치와 같이 소그룹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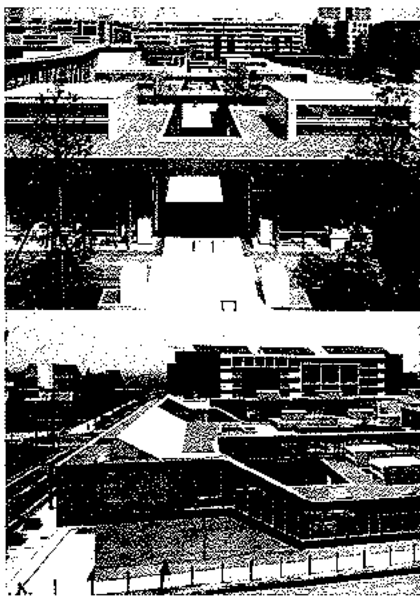
음환경측면에서의 배려로는 슬래브천장 전체에 리브 형태의 흡음면을 부착하여 저음역대와 고음역대 모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교실들 사이에는 유리 차음벽을 설치해 시각적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하였고, 위크스페이스에는 흡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교실까지 전달되기 힘들도록 하였다. 온열환경 측면에서는 모든 교실에 하이사이드라이트(고측창)를 설치하고 이곳에 통풍창을 마련해 교실창을 함께 개방하면 여름철에 자연스런 통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난방은 판코일 유니트로부터 바닥 밑으로 보내지는 온풍이 매리미터존을 통해

뽑어져 나오도록 해 교실이 균일하게 덥혀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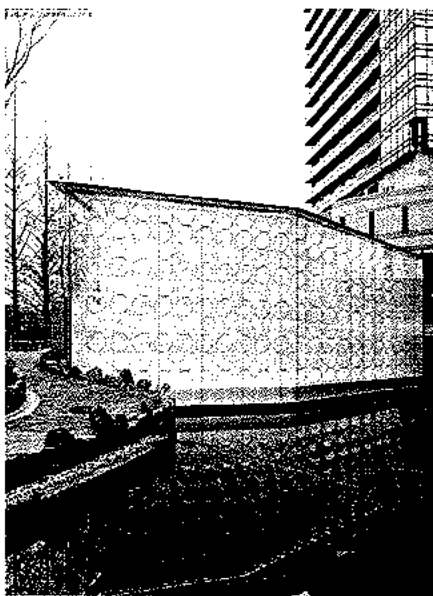
■ 백색의 교회 - 설계: 아오키 준 건축설계사무소

백색의 교회는 아오키 준이 구조기술자 오가무라와 함께 개발한 「링구조체」를 이용해 호텔 하얏트 리젠시 오오사카내에 설계한 웨딩용 채플이다. 80평 남짓의 작은 채플이지만 아오키 준이 개발한 링구조체는 단연 눈길을 끈다. 링구조체는 정사면체의 모서리 부분을 절단한 모양의 「절정(切頂)정사면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절정정사면체는 모서리 부분이 절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사면체와는 달리 수직으로 쌓아갈 수 있다. 절정정사면체는 4개의 육각형이 모여 만들어지는데, 이 육각형에 내접하는 원 4를 이용해 만든 것이 링구조체의 기본 유니트이다. 4개의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정 정사면체와 달리 수평방향으로도 접합이 가능하다. 이 링구조를 이용해 만든 벽면은 전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링이 쌓여 벽체를 형성한 모습으로 보이며, 그물망과 같은 모습이어서 빛과 시선에 대한 투과와 차단 등을 동시에 하고 있다. 링구조체는 외부에서 훌륭한 의장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내부에서도 그 자체가 의장요소로 활용된다. 백색의 교회에서는 예배공간을 둘러싼 4면의 벽 중 2면을 이 링구조체 벽으로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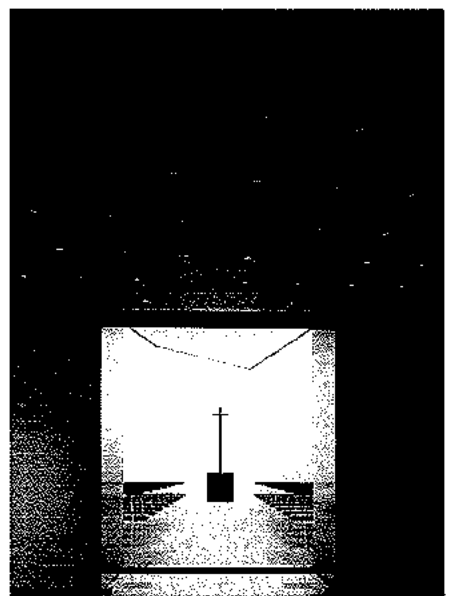
링구조체는 아오키 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바시립 미하마우타세(美浜打瀬)소학교



백색의 교회1



백색의 교회2

여러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링구조체를 가장 처음 적용해 설계한 것은 역사(驛舍) 프로젝트였는데 이식계도 이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두 번째 시도는 현상설계로 진행된 '자이안츠 코즈웨이(Giant's Causeway) 프로젝트'였으나 이 역시 가작에 머물러 실현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이안츠 코즈웨이 프로젝트는 북아일랜드 해안선에 8킬로에 걸쳐 이어지는 주상절리대인 자이안츠 코즈웨이의 방문자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링구조체로 만들어진 거대한 박스를 제안했었다. 이번 백색의 교회는 링구조체의 최초 실현작인 셈이다. 그러나 링구조체는 아직 실현단계이다. 이 구조는 중력, 지진력, 풍압 등의 응력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고안된 구조는 이론상 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현물(現物)을 통한 시공성시험이나 구조시험을 충분히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백색의 교회에서는 지진력은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다.

링구조체는 아오키 준의 '볼륨'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되었다. 고체의 괴(塊)를 매스라 하고 액체나 기체의 괴를 볼륨이라고 했을 때 볼륨은 실제로 현존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머리 속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존재이다. 액체나 기체가 괴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용기 없이는 볼륨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오키 준은 이와 같은 볼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만들어 보이고 싶어 했다. 먼저 '볼륨이란 우리를 둘러싼 보통의 공기와는 다른 성질의 공기 덩어리'란 생각을 갖고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개념이 반영된 첫 작품은 그의 일련의 루이비통 샵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루이비통 나고야(1999년)'였다. 그의 루이비통 샵 건물들에서는 격자무늬가 서로 중첩되어 일루전을 일으키는 이중외피를 이용해 볼륨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현상학적(phenomenal) 볼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실현하고 있는 링구조는 보다 볼륨 자체를 구축해 보려는 시도이다. 문자 그대로의(literal) 볼륨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 즉 공간과 그것을 담는 용기가 융합된 형태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이다.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루이비통 프로젝트들과 같이 아오키 준의 링구조

를 이용한 일련의 작품들이 실현되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 Fiber City 東京 2050 - 도쿄대학 오노히데토시 연구실



Fiber City 東京 2050

2050년 도쿄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니 어떻게 변모되어야 하는가? 최근 일본 도시계획분야의 이슈는 '컴팩트 시티'의 구현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의 감소를 겪고, 모든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은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줄어드는 인구 속에 도시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심을 이전부터 해왔다. 총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 인구의 3/4으로 줄어든다는 예측도 나와 있다. 팽창해 갔던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 경우, 어떻게 도시의 슬럼화를 막으면서 도시의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일본의 컴팩트 시티가 모색하고 있는 방향이

다. 이번 'FIBER CITY 東京 2050'은 축소되어져 가는 도시를 위한 디자인 전략이다. 이와 같은 도시의 축소를 도쿄의 도시구조 및 환경 개선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디자인 전략을 짜게 된 배경이다. 파이버 시티는 4개의 디자인 전략을 내 놓았다. Green Finger, Green Partition, Green Web, Urban Wrinkle의 4가지 전략이다. 구상의 큰 틀은 인구의 감소로 필요 없게 되는 도시의 면적을 녹지로 치환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조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선을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조성함으로써 결국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손가락 모양으로 뻗어가는 선형의 시가지가 생기는데, 이들 사이사이에 녹지가 침투하는 형상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Green Finger의 개념이다. 좀더 작은 형태의 녹지의 띠는 도시 곳곳에 마련된다. 주거지역에 마련되는 이 녹색의 띠는 도시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화재 방화벽의 역할을 겸한다. 대지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경험해 온 일본 도시계획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녹지의 띠는 도심지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공원을 중심으로 녹지의 띠가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녹지의 그물망 형태를 취한다. 이는 도심의 기존 교통망인 수도고속도로를 긴급구조도로와 녹도로 전환한 것으로 Green Web의 개념이다. Urban Wrinkle은 도시의 구역별 특색을 살린 선형(線型)의 명소를 만들자는 것이다. Fiber City는 '컴팩트한 대도시'라는 다소 모순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이 같은 제안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또한 행하고 있어 앞으로 도쿄의 도시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불에 잘 안타는 난연3급 프로폴 샌드위치패널

강릉축협 하나로마트, 진도 쓰레기소각장 외 다수 적용



영축 판넬의 난연3급 프로폴 샌드위치패널은 뛰어난 보온성을 인정 받는 Expanded Poly Styrene(E·P·S)에 나노기술을 적용 특수처리하여 제조되는 프로폴과 Pre-coated Steel Sheet를 특수 접착 방식으로 Laminating한 Sandwich type의 난연판넬로서 각종 공장, 냉동창고, 주차타워, 상가 및 전시장, 사무실, 주택 등 어떠한 건축물에도 적용가능한 난연패널이다. 또한,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화재사고와 위험이 없는 안전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대표적 난연판넬이며, 기존 E·P·S판넬의 강점을 모두 유지하면서, 불에 약한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제적인 난연판넬입니다.

<제품의 특징>

- 난연3급이상의 난연성(한국진자재시험연구원 GET 05-3554)
- "가"등급의 단열성능(강원지방중소기업청 제07-2006-00622호)
- <인증 서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증기청 제22-008호)
- 특허등록(특허청 제10-0589433호)
- 특허등록(특허청 제0479218호) 등.

영춘판넬 주식회사

Tel_033-261-6600 | www.ycpanel.co.kr

계단이라면 ... 클릭 'www.dayk.co.kr'

계단철관 높이별 현장에서 조절 '설계도, 현장골조 불일치 극복'



대아와이케이상사(주)는 지난 수년간 계단 전문 공급업체로서 그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대아는 항상 고객과 시장의 요청에 따라 변하고 있다.

대아의 계단은 우아한 디자인 및 마감처리가 특히 뛰어나며, 현장 적용성이 우수함을 자랑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계단 철관 높이를 현장에서 조절할 수 있게 설계, 제작돼 설계도와 현장 골조의 불일치를 극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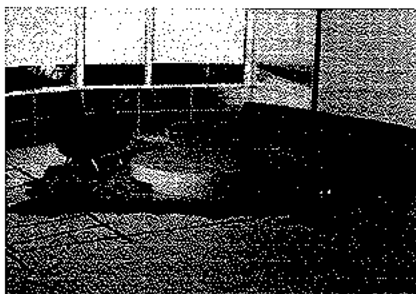
대아는 조립식 계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로, 1995년 설립되어 실용신안특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아와이케이상사

Tel_02-548-6083 | www.dayk.co.kr

최고의 테라조 수리산업의 핵심역량

두께 17mm까지 얇게 생산되는 수리산업 고강도 타일



수리산업(주)은 다양한 제품,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생산성을 가지고 국내 테라조 업체를 이끌어가는 회사이다.

<제품>

- 고강도테라조타일(Hytterra) 및 계단타일(305×350mm)
2005년도부터 고강도테라조로 단일층(Mono Layer)으로 제작되며, 두께 17mm까지 얇게 생산되는 고강도 제품이다.

- 보도, 광장, 조경용 페이퍼 타일

두께를 60mm로 보강했다. 보도, 광장 등 조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여러가지 문양을 넣을 수 있고 표면에 Shot Blasting 처리를 하여 미끄럼 방지기가 가능하다. 또 표면을 불로 씻어내어 종석이 드러나게 하는 Washed Stone 제품도 생산된다.

수리산업

Tel_02-472-0182 | www.suleaind.co.kr

자연, 불, 인간의 조화

불연재로서 원적외선 방출, 전자파 차단 효과까지



에인도에연구소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통해 '토예'라는 제품을 만들어 일반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제품소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건축도예미술장식품(토예)은 용각, 양각, 상감, 박지 등 전통방식을 이용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킨 것이다. 인테리어 장식품, 벽면, 아트웍, 비단 등에 활용하여 장식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공서,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널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불연재로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습도 유지, 전자파 차단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실내 환경이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문양을 다양하게 창조할 수 있고, 흙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웰빙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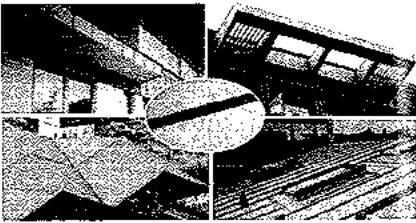
에인도에연구소

Tel_031-977-8283 | www.yeoinart.com

※자재정보 원고모집
건축사 회원과 우수한 건축자재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재사용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gods@kira.or.kr
· 원고내용
- 사진1컷(300dpi 이상)
- 제품정보(원고지 5매 이내)
-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기재

다양한 지붕재, 신개념 외장소재

독일 Corus사와 미국 All Tristazine사 제품 국내 독점 공급



우정복수기업(주)는 가치관 발전, 주변 정선, 창조적인 발전, 무한 가치 추구 등을 기업의 기본으로 삼아 획기적인 경영 시스템과 미래 지향적인 경영방향을 우선순위로 남보다 앞서가는 업체이다.

<제품소개>

• Zinc Sheet 적층 외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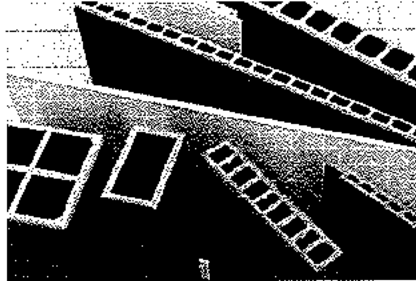
자연스러운 화색빛의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명과 생명을 같이 하는 천연재료로 거칠질기(Seaming)로 아음을 하여 Non-Caulking System의 시공이다. 어떠한 형태와 건축물도 사공이 가능하다. 내구성과 내수성이 뛰어나고 해안가에서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Bang System

대형 지붕이나 3차원 원형 지붕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곡선과 안전한 우수 처리에 적합한 지붕재이다.

자연과 과학의 완벽한 조화 Nanood 합성목재

국내 유일의 목분과 플라스틱의 합성목재 Nanood 개발



(주)웍스는 2001년에 설립되어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목분과 플라스틱의 합성목재 Nanood 개발했다. 합성목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연과 인간이 잘 조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리사이클이 가능한 건축자재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회사다.

<제품소개>

• 합성목재 Nanood

웍스 합성목재 Nanood는 전 제품을 DIY System으로 모듈화 실재를 하여 간단한 공구로 누구나 손쉽게 조립이 가능하다. 세 집중후군인 포름알데히드나 다이옥신, 중금속이 발생치 않고 병·충해의 위험이 없으므로 건축 내·외장재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Deck, Garden Terrace, Siding, Fence, Balcony, Louver, Garden Light, Table Set, Bench, 계단 등 활용범위 또한 매우 넓다.

고품격의 친환경 자연목 호주산 Jarrah

국내유일의 Jarrah 공급업체 '미림산업'



미림산업은 1999년 설립되어 호주, 남미, 북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20년 이상 목재를 취급한 경험을 가진 참모진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인 목재만 공급하고 있다. 또한 호주산 Gums 사와 Jarrah(가라) 독점판매계약을 맺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Jarrah를 공급하고 있다.

<제품소개>

Jarrah목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견고한 목재 중에 하나로 서 호주 주정부산하의 Jarrah협회에 모든 원목 및 제품을 철저한 관리 감독하여 생산하는 고품질 무방부의 친환경 자연목이다. 수명이 살의 70~80년, 살내 100년 이상이며 물성면에서 잘 썩지 않고 습기나 화재, 곰팡이, 흰개미, 산성비 등 환경적 피해에 매우 강한 고품질 목재다.

<주요생산품목>

- 데크재 및 우드블록(Deck & Wood Block)
- 플로어링(Flooring) • 벽재(Wall Panel)
- 문짝 및 문틀(Door & Door Frame) • 몰딩재(Molding)
- 가구재(Furniture) • 계단재(Stair) • 교량재(Bridge)

우정복수기업

Tel_ 02-736-7067 | www.roof.co.kr

(주)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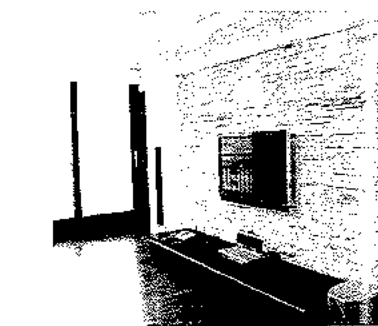
Tel_ 051-896-6390 | www.waps-korea.com

미림산업

Tel_ 02-552-9922 | www.mirim-timber.co.kr

고품격 기능성 인조석 '메직스톤'

100만발 수출탑 수상, 내외 ISO 인증 획득한 인조석 전문 생산기업



1988년 국내 최초로 인조석을 생산한 메직스톤은 인조석 최초로 품질보증을 획득하였으며, 그 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0년에는 100만발 수출의 쾌를 수상하고 국내외 ISO인증 획득한 인조석 전문 생산업체의 임지를 확고히 굳혔다. 이후 인조석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웰빙 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다기능 인조석 개발을 성공한 데 이어, 끊임없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주요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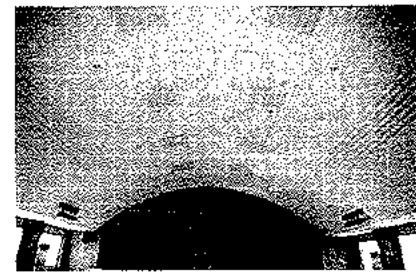
- 초경량 내·외장 인조석 • 파벽돌 • 매직블럭시리즈
- 조경용 바닥재, 두껍석 • 창대석 및 액세서리
- 각종크리스탈 시리즈

메직스톤코리아

Tel_ 02-3443-5432 | www.magicstone.co.kr

천장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량의 원자외선이 생육광선을 방출, 쾌적환경 제공



보스텍의 K.M.C.B.M.O는 주성분인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파이버 글래스(Fiber Glass) 및 SD203충진제, 저수축제, 경화제, 난연제, 이형제 등 첨가제를 혼합 보강시킨 복합성형재료이다.

(특장)

- 난연성 소재로 특허 출원 및 미국 공산품규격 UL94-V0 획득
- 습기, 물에 특히 강하며 부식, 변형, 변색이 전혀없어 수영장, 사우나, 온천, 목욕탕 또는 특수 부분에 최적
- 천단 소재로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A/L, 스테인리스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
- 조립식으로 파손 부위만 교체 가능
- 제품의 종류와 색상이 다양
- 불보와 폴리에스테르 수지 • 파이버 글래스
- 충진제 • 저수축제 • 경화제 • 난연제 • 이형제

<주요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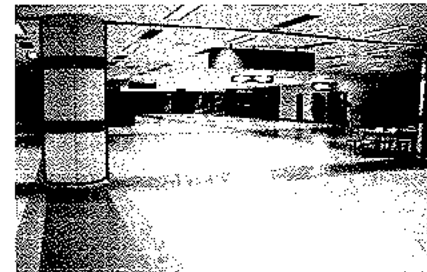
- 열경화성 수지 천장재 K.M.C(Thermal Ceiling Tiles)
- 타일(Tiles) • 타보용 타일(T-bar System Tiles)

보스텍

Tel_ 553-8883-5 | www.bosstec.co.kr

고품격 건축 바닥 마감재

김프공방 국내선 2청사 및 신촌세브란스 세병원 시공사례



(주)바임에스 코리아는 병원, 마트, 공항, 종합운동장 등 다중시설에 사용되는 고급연진속 바닥 마감재를 수입·공급·시공하는 회사다. 14년간의 풍부한 시장 경험에 끊임없는 노력과 개척정신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생산품목>

- P.V.C. 바닥재(P.V.C. Flooring)
- 고무 바닥재(Rubber Flooring)
- 이중 바닥재(Access Floor)
- 출입구 매트(Entrance Mat)
- 핸드레일(Hand rail)

바임에스코리아

Tel_ 02-2202-1237 | www.bms-korea.co.kr